



9

주체 101 (2012)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1(2012)년 제9호

(루계 제779호)

차례

-----||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에 영광을! ||-----

인민의 환희(시)	원영옥(3)
축원의 광장 행복의 노래(시)	엄정호(3)
영광의 이 날이 있어(시)	박문일(4)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5)
----------------------------	-----

백두산대국 나의 조국이며(시)	변홍영(5)
승고한 경의(수필)	김옥(18)

주체문학의 대강	(6)
-----------------------	-----

산촌의 물노래	백의선(6)
수령님 풍요한 들길에 계신다	류민호(7)
인민정권의 첫 요람	조석영(7)
인민행렬차	박영숙(8)
애국의 정과 열	리명근(9)
애국의 걸음 다시 떼노라	량원익(17)

단편소설 꽃향기	김금옥(10)
------------------------------	---------

◇ 평론 ◇

전편의 새 역사를 펼쳐놓은 애국헌신과 사랑의 세계에 대한 감동깊은 형상	안희열(20)
영원한 충정의 해발에 대한 감동깊은 예술적화폭	김순림(27)
그리움에 불타는 연산땅(시)	윤경남(24)
어은동의 물소리(시)	최주원(25)
아느냐 땅아(시)	리찬호(25)
영원한 친위전사(시)	김길성(31)
배낭속엔 총탄만이(시)	로옥선(31)

《온 나라가 김정일애국주의로 들끓고 김정일애국주의로
불랄 때 우리 조국은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솟아
오르게 될것입니다.》

김 정 은

~~~~~ 심 장 을 바 치 자 어 머 니 조 국 에 ! ~~~~~



|               |           |
|---------------|-----------|
| 사랑의 열매 .....  | 리 기 창(35) |
| 수옥선생 .....    | 박 찬 은(48) |
| 어머니의 마음 ..... | 라 광 철(68) |

수령형상서경시창작에서 통위있고

|                              |           |
|------------------------------|-----------|
| 독창적인 구형형식에 대한 생각(연단) .....   | 최 송(33)   |
| 봄의 속삭임속에 깃든 시대의 웨침(평론) ..... | 최 남 순(61) |
| 꽃은 무엇을 위해 피는가(수필) .....      | 김 원 영(66) |

## ◇ 시 ◇

|                          |                        |
|--------------------------|------------------------|
| 조국이어 나를 불러다오 .....       | 김 윤 걸(26)              |
| 조국과 더불어 .....            | 김 정 순(32)              |
|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 있다 .....     | 조 광 원(59)              |
| 그리움의 교단(시초) .....        | 김 명 옥(45)              |
| 처녀선생님들 .....             | 김 춘 호(59)              |
| 봄순아 또 한번 .....           | 우 광 복(44)              |
| 새집들이 첫밤에 .....           | 한 병 화(65)              |
| 카바이드로앞에서 .....           | 조 광 철(77)              |
|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 외 1편 ..... | 리 성 애(78)              |
| 해칠보의 절경 .....            | 문 기 창(60)              |
| 천하명승 묘향산(단시초) .....      | 함 영 근(79)              |
| 상 식 .....                | (19), (30), (58), (75) |

표지2면: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노래)

3면: 《사랑하라 어머니조국을》 (노래)

# 인 민 의 환 희

원 영 옥

정녕 꿈이 아니여라  
우리의 **김정은**장군님께  
공화국원수칭호를 수여해드렸다는  
이 감격 이 기쁨 이 걱정은

그이의 모습 텔레비존으로 비오며  
그이의 현지지도소식 방송으로 들으며  
이 가슴 감격에 설레여  
목매여 부르고부르던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

우리 우러러 터치는  
그 걱정 그 환희는 심장의 고백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의 령도자  
그이는 우리의 **김정은**원수

얼마나 고마왔던가  
평범한 로동자 농민의 자식들  
한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해주시던 그날  
아, 이 나라의 수천수만의 부모들  
목매여 드리던 감사의 그 인사

바람세찬 초도의 배길을 헤쳐  
병사들을 찾아가시던 그이

적들이 도사린 관문점까지 가시여  
원수들을 전률케 하시던 그 담력 그 배짱

인민을 찾아 눈비 맞으시며 걸으시던  
수령님의 그 걸음으로  
장군님의 그 마음으로  
인민을 찾아 걷고 또 걸으신  
그 멀고 험한 길

사랑하노라 그이를  
이 나라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이만을 믿고 따르면  
승리와 영광 행복만이 있어  
이 세상 무서운것 하나도 없어

인민의 녀원이며  
인민의 기쁨인 원수별  
인민은 기폭에 새겨 창공에 빛내고  
인민은 그 원수별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담아  
그이께 삼가 드리었나니

아, 우리는 이 세상 끝까지 받들어모시리  
우리의 **김정은**원수님을  
우리는 세월의 끝까지 따르리  
우리의 **김정은**원수님을

# 축 원 의 광 장 행 복 의 노 래

엄 정 호

오늘은 인민군장병들  
기쁨에 겨워 행복에 넘쳐  
경축무도회를 펼치였구나  
내 나라의 하나의 큰 명절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원수로 높이 모신 날

보아라 하늘을 휘젓는 구리빛팔은  
총대로 억세어진 병사들의 팔  
보아라 지축을 울리는 발걸음  
수령님과 장군님을 따라  
승리의 길만을 걸어온 병사의 발걸음

얼마나 이날을 기다렸던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사상도 령도도 품모도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그대로이신 백두의 천출명장

저 병사들 아니더냐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산악도 단숨에 넘던 땅크병  
그이와 팔을 끼고 어깨 겹고  
기념사진을 찍은 그 지휘관은 병사는

저 해병들 아니던가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  
사나운 파도를 헤치며 찾아주신  
그 초도의 해병 그대로구나  
그날에 날리던 해병모의 땡기

저 공군병사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  
아버지의 대를 이어 하늘의 방패되라고  
친어버이사랑으로 집까지 찾아주신  
축복받은 비행사의 아들이

춤을 추어라 축복받은 장병들아  
광장에 넘치는 환희는  
80년전 **김일성**장군님 우러러  
안투(안도)의 밀림에서 항일투사들 웨치던  
기쁨의 환희 아니냐

춤을 추어라 장병들아  
그네들이 울리는 발걸음소리는  
장군님의 배짱과 담력을 닮은

정일봉의 우뢰소리  
적진을 단숨에 없애버릴 방사포의 사격소리

병사들 머리위에 나뭇기는  
원수별 빛나는 최고사령관기는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  
광장에 넘치는 병사들의 노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축하의 노래

오, 불러라 노래 축하의 노래  
오, 추어라 춤 축하의 춤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의 혁명  
**김정은**원수님 모시여 승리를 펼칠  
신념의 노래 환희의 춤바다를!

## 영 광 의 이 날 이 있 어

### 박 문 일

전승의 날 7.27과 더불어  
이 땅에 영원할 경사의 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의 원수로 높이 모신  
오, 7월 17일

산도 들도 하늘도 한껏 푸르고  
무성한 계절 열정의 계절에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의 원수로 높이 모시여  
사람도 산천도 환희에 넘쳤구나

초소와 초소마다  
고지와 고지마다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나뭇기는  
원수별 빛나는 백승의 기치  
최고사령관기

수령님따라 항일의 혈전만리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대원수님과  
선군령장 **김정일**대원수님 우러러  
감사와 고마움의 격정을 터뜨리고

락동강을 헤쳐온 로병들과  
선군혁명 천만리길에  
자욱자욱 승리만을 새겨온  
이 나라의 천만군대와 인민들이  
광장마다 펼친 환희의 노래와 춤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의 원수로 높이 모신 영광이 있어  
조국을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신  
**김일성**대원수님 불멸의 위업  
만대로 빛날 력사의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의 원수로 높이 모신 행복이 있어  
내 조국을 지켜주시고 빛내여주신  
**김정일**대원수님의 선군업적  
무궁세월에도 빛날 영광의 날이어

영광의 이날이 있어  
**김일성**—**김정일**조국은 무궁번영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위대한 사상은  
이 땅에 강성국가의 려명을 불러오리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오리

영광의 이 행운이 있어  
원수별과 더불어 이 땅에  
《발걸음》노래 영원히 메아리치리  
이 땅은 수령결사옹위의 성새로 솟고  
우리의 힘 당할자 이 세상에 없으리니

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  
그이는 우리 조국의 영원한 상징  
그이는 우리 민족의 영원한 운명  
그이는 우리 혁명의 영원한 기치  
그이는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여라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망국 40년만에 조국을 찾고 리향 20년만에 고향을 찾았다면 우리는 그 조국과 고향을 위해 너무도 많은 세월을 바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국은 순간이요 복국은 천년이라는것이 항일혁명 20년의 로정을 걸으면서 내가 얻은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잃기는 험해도 찾기는 힘든것이 바로 조국이라는 뜻입니다. 순간에 잃은 조국을 찾느라고 수십년, 지어는 수백년의 고생을 해야 하는것이 이 세상의 준엄한 리치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지금도 종종 젊은 사람들에게 조국을 잃으면 살아도 죽은 목숨과 같다, 망국노가 되지 않으려거든 나라를 잘 지키라, 나라잃은 설움으로 통곡하기 전에 조국을 더 부강하게 하고 막돌 한개라도 더 주어다가 성새를 높이 쌓으라고 말해주군 합니다.》

## 백두산대국 나의 조국이어

변 홍 영

해쑥는 나라 아침의 강산으로  
유구 반만년을 이 하늘아래 솟아있었던만  
그대 오늘처럼 강국의 그 위용  
온 누리에 떨친적 있었더냐  
내 정답게 불러보는 어머니 나의 조국이어

가슴가득 차오르는 자부를 안고  
나는 본다 저 푸른 창공에  
장엄히 나뭇기는 람홍색공화국기발을  
그러면 그 기발아래 강성하는 선군의 나라  
해빛찬란한 그대의 앞날이 눈부시게 다가서누나

한세기전만도 망국의 비운서린  
식민지 약소국이었던 이 조선  
그 얼마나 위대한 손길이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할 백두산대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너를 안아 우뚝 세웠더냐

오각별 빛나는 우리의 국기를 바라보며  
조선아, 그 이름 조용히 불러볼수록  
저절로 이 가슴이 젖어오는구나  
우리 장군님 너를 안고 헤쳐오신  
애국헌신의 천만리가 눈물겹게 안겨와서

아, 위대한 수령님 찾아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버이장군님 한평생 야전복차림으로  
이 땅에 내리는 찬눈비를 다 맞으셨으랴  
천리방선 초소와 초소들을 찾고 또 찾고

조국땅 방방곡곡 험한 령들을 넘고 또 넘으셨으랴

동트는 전선길 달리는 야전차에서  
장중한 애국가의 선률에  
부강조국의 래일을 실어보시며  
사시장철 맞으신 새날은 그 얼마  
그토록 소중히 조국의 산과 들을 안아보시며  
한생토록 이어가신 강행군길은 그 몇만리

애국의 숭고한 그 뜻이 어리어  
찾으신 초소마다 천하무적 총검이 숲을 이루고  
애국의 위대한 그 한생이 비끼여  
가신 곳 어디나 선군절경이 꽃피난 이 강산  
가없이 넓어진 전야 최첨단열풍 넘친 공장들에  
오곡백과는 무르익고 강성국가 숨결이 태동하나니

아아, 백두산대국 나의 조국이어  
우리 장군님 한생바쳐 빛내주신  
천하제일강산 주체의 내 나라  
우리의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사회주의강성국가로 길이 변영할  
그대의 무궁한 미래가 창창히 열렸구나!

영원한 태양이 빛나는 나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손길따라  
**김정일**애국주의 그 뜻을 꽃피워나가는 앞길에  
천년만년 공화국기발이 존엄높이 휘날리고  
선군혁명의 최후승리축포가 터져오르리라!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 주체성은 민족자주정신의 반영이다. 문학에서 민족자주정신을 반영한다는것은 문학창작과 건설에서 자기 나라 인민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구현하며 자기 민족의 고유한 생활감정과 미감에 맞게 형상을 창조한다는것을 말한다.》

《오늘 세계에 수많은 민족문학이 존재하는것도 매개 나라 민족문학이 자기 인민의 민족적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매개 나라의 민족문학은 자기 인민의 민족적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예술적정화이다. 민족자주정신이 개화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민족문학이 찬란히 꽃피여난다.》

《결국 매개 나라 민족문학의 운명은 주체성을 구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체성을 문학의 생명이라고 하는것이다.》

## 산촌의 물 노래

백 의 선

새 조국건설이 한창이던 어느날  
물소리 그윽한 산촌의 새 휴양소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오셨네

단 한번만이라도  
봉우리는 봉우리마다 자기의 절묘함을  
그분께 보여드리고싶었던듯  
꽃은 꽃마다 향기를 더욱 풍겨  
단 한번만이라도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싶었던듯  
온 산촌이 정가롭게 제모습 가다듬네

하얀 자개돌들이 물속에서 빛을 뿜는  
개울가로 그이를 모시고 나온 휴양소 소장은  
자기의 생각을 말씀올렸네  
여기에 독을 쌓아 양어장을 만들겠노라고

금시 그림같은 양어못이 펼쳐지거나 하는듯  
꿈이 어린 소장의 눈앞엔 비껴왔네  
비취색호반에서 배놀이 즐기는 젊은이들  
저기 오리나무 둔덕아래 꾸러야 할 낚시터며  
신선한 민물고기가 푸짐히 올라왔을 휴양소의  
식탁이

그림자 길게 물속에 드리운 산악도  
묵묵히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는듯  
심원한 사색속에 잠기셨던 수령님  
그윽한 물소리에 귀기울이시네  
—그러면 물소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물소리 없이야 이 산촌이 무슨 명승이겠소

방금 물소리 없는 심산의 정적속에서 깨어나는듯  
좌— 천년묵은 로송들이 설레이네  
청신한 향취를 끝안가득 풍겨주는 그 물소리  
쇠를 꿰이던 용해공들의 뜨거운 가슴에도  
비단짜는 처녀들의 꽃같은 마음에도  
그대로 안겨보내고싶으신 수령님  
멀리 한손 들어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네

—양어장은 개울 저끝에 만듭시다

천길 지심속에서 굳어진 용암을 뚫고  
유구히 용솟음쳐오르던 물줄기  
만사람의 가슴속에 조국의 피출처럼 새겨지며  
아름다운 이 산촌에 이제야 태어나는가  
계곡을 뛰어내리며 소리치네  
흘러내리는 맑은 물을 안고 감돌며  
개울가의 작은 바위돌 주옥같이 빛나네

아, 물소리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나라의 근로하는 사람들  
들어도 들어도 더 듣고싶어하는 물소리  
아름다운 조국산수에 깃든 수령님의 그 뜻을  
가슴가득 채워주는 물노래소리

어버이수령님을 한품 한뜻으로 받들어  
빛나는 이 강산을 더욱 빛내이라  
쉬임없이 가슴 흔드는 물노래소리...  
온 세상에 길이 울릴 조국의 물노래소리

주체57(1968)년

# 수령님 풍요한 들길에 계신다

류 민 호

풍요한 가을 들길에 서니  
금나락 설레는 소리에 실려오는가  
이 가슴 사무치게 울려주는  
어버이수령님의 음성

금노을 비긴 들판에 어려와라  
무겁게 고개숙인 벼이삭을 드시고  
탐스럽게 여문 알수도 손수 세어보며  
그만하면 농사가 팬찮다고  
환하게 웃으시던 그 미소

누가 알았으랴  
80고령에도 농사일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던 그이  
농민들이 보면 가슴아파한다고  
지팽이를 차에 두시고  
힘든 내색없이 포전길 걸으시는줄

죄송스러워라  
그날 수령님 우리 농장 찾으신것이  
마지막현지지도의 걸음인줄 모르고  
철없이 옷자락에 매달리어  
이 포전 저 포전 보여드리고싶어  
어려운 걸음 더 걸으시게 하였거니

그렇게도 차마 떨어지기 아쉬워  
따라서는 우리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뜨겁게 하시던 그날의 말씀  
쟁 가슴 두드리며 울린다

—농사를 잘 지으라구  
그러면 래년에 내 다시 오지

간곡한 당부  
믿음으로 남기신 약속  
세월이 흐른들 잊으랴  
산천이 열백번 변한들 잊으랴

어버이수령님의 유혼  
더운 피 끓는 심장에 새긴 우리  
눈보라 세찬 한겨울에도 땅을 걸구며  
정히 고른 씨앗 포전에 뿌리며  
알뜰살뜰 여름내 가꾸며  
풍요한 가을 향해 달려왔더라

영광의 그날에 수령님당부  
삶의 가장 큰 보람이었기에  
가슴에 안고사는 수령님의 약속  
행복의 제일 큰 기쁨이었기에  
대지에 바친 구슬땀 방울방울  
충정의 열매로 무르익었구나

사랑의 음성 정답게 울리는 들길에  
꺼질듯 넘칠듯 무거운 이삭의 물결  
하늘도 땅도 웃는  
내 고향 가을의 두렁길로 걸으시며  
아, 어버이수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 인민정권의 첫 요람

조 석 영

두만강건너  
항일의 옛 전구  
내 그곳에 가본적도 없다  
그곳의 산길을 걸어본적도 없다

그러나 나는 그곳을 잘 안다  
그곳에 설레이던 나무와 풀 한포기  
그곳에서 부르던 노래  
그곳에 일떠섰던 학교와 병원

태어난 곳은 아니어도

내 삶의 요람처럼 사랑하노라  
세계정권사에서 있어보지 못한  
인민혁명정부가 서고  
지붕우에 붉은기가 나뭇기던 곳이어

대대로 땅의 노예였던 농민들이  
땅을 분여받고 땅의 주인으로 농사짓던 곳  
처음으로 아이들 학교에서 무료로 배우고  
처음으로 무상치료 받던 곳

두더지갈던 인생들이



인민정권의 혜택으로  
누구나 평등하고  
새삶을 창조하는 기쁨에  
**김일성**장군님 만세를 부르며 밝은 웃음 짓던  
항일유격근거지의 인민정권이어

일제의 봉쇄를  
군민이 단합하여 짓부시며  
땅을 지키고 붉은기를 지켜낸  
력사의 땅이어

여기서 내 태어나기 전에  
나의 행복한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의 혁명선렬들  
날마다 피의 격전을 벌려왔나니

내 어려울수록  
그날 그곳에서 휘날렸던  
인민혁명정부의 지봉우의 붉은기를 그려보노라  
발머리에 깊이 박힌  
이름 석자 새긴 패말을 그려보노라  
아이들의 랑랑한 노래 들어보노라

아, 우리 수령님 항일의 그날 세워주신  
인민정권의 첫 요람이어  
항일의 불길속에서 굶주림속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사람들이  
일제와 싸워 승리를 떨치던 곳  
우리 인민정권의 첫 요람이어

## 인 민 행 렬 차

박 영 숙

눈이 온다고 멈추었으랴  
비가 온다고 멈추었으랴  
낮에도 쉬임없이 달리고  
밤에도 쉬임없이 달리는  
인민행렬차

인민이 사는 곳 그 어디나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달리는 렬차  
인민의 소원이래면  
그 길이 이 세상 끝이라도  
쉬임없이 달리는 인민행렬차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  
그리도 사랑하신 인민  
그 인민의 마음속에 놓아주신  
이민위천의 궤도를 따라  
곧바로 달리는 인민행렬차

그 렬차 어찌 순간도 멈출수 있으랴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진  
12월의 대국상에  
바다같은 슬픔이  
하늘같은 그리움이 무겁게 실렸다고

하늘에 사무친 인민의 슬픔이  
눈이 되어 뿌려지던 그날  
인민은 보았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눈물에 언 인민들의 두볼과 가슴들을  
사랑의 손길로 닦아주시고 녹여주시던 그 모습

그날 그이께서 맞으신 눈은  
우리 수령님 맞으신 백두의 눈  
우리 장군님 맞으신 철령의 눈  
그이의 어깨에 무거이 떠실린 눈은  
그이에게 맡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었나니

어찌 순간인들 멈추랴  
백두에서 출발한 인민행렬차  
오늘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장군님 맡기고가신 인민들속으로  
달리고달리시는 인민행렬차

렬차는 달리여라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우리 조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한생을 바쳐  
인민을 찾아 인민의 마음속에  
곧바로 놓아주신 이민위천의 궤도를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행렬차는  
인민사랑의 무궁세월을 향해  
끝없이 끝없이 달리여라

# 애국의 정과 열

리 명 근

이 나라  
평범한 길을 걷다가도  
문득 울려오는  
아버이장군님의 그 음성  
머나먼 현지도길에  
조국의 산과 들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외우신 그 말씀  
...푸른 산... 푸른 들...

정녕 얼마나 뜨겁게  
자신의 정과 열을 바치셨으면  
그리도 가까이 안아보셨으랴  
얼마나 아낌없이  
온몸의 정과 열을 다 주시셨으면  
그리도 뜨겁게 부르셨으랴  
...푸른 산... 푸른 들...

바쳐오신 그 정이 깡그리 고여  
저 산줄기를 푸르게 물들였구나  
바쳐오신 그 열이 열렬히 불타  
저 들을 더 푸르게 하였구나

이 산천의 자그마한 조약돌 하나도  
그이는 자신의 정과 열로  
불처럼 달구어내어  
이 땅을 후덥혀주었거니  
그 사랑으로 가득찬 내 조국

바친 정이 뜨거워 설레는 푸른 산  
바친 열이 뜨거워 후더워진 푸른 들  
그 푸른 산의 흙 한줌 쥐어보라  
우리 장군님의 땀이 스며있지 않는가  
그 푸른 들의 설레임에 귀기울여보라  
우리 장군님의 숨결이 들리지 않는가

그래서 파원에 주렁진  
사과 한알도 선듯 만져볼수 없구나  
우리 장군님의 체온이 느껴오는것만 같아

그래서 이 나라 평범한 고개길도  
무심히 걸을수 없구나  
우리 장군님의 자옥이 금시 보여올것만 같아

사랑해야 하리 이 땅을  
바쳐야 하리 이 땅을 위해  
우리 장군님처럼 자기의 정과 열을  
사랑을 다해  
심장을 다 바쳐  
그렇게 가꾸어오신 내 조국의  
푸른 산 푸른 들이여

불처럼 사신 그 숭고한 넋이  
푸른 산천의 설레임으로 고동친다  
불길되어 타오른 그 사랑이  
따사로운 햇빛되어  
풍요한 들을 가꾸거니

너를 지금도 안고있고  
너를 영원히 떠받들  
그 숭고한 높은 뜻이  
우리의 심장속에  
넋이 되어 뉘뛰나니  
오, **김정일**애국주의!

세세년년 이 나라 사람들이  
좌우명처럼 안고살아야 할  
불멸할 신념의 메아리  
그이처럼 자기의 정과 열을  
조국위해 아낌없이 바친 사람만이  
땃땃이 들어설수 있는 애국의 세계

자신의 정과 열이  
저 푸른 산 푸른 들에  
진정 얼마나 깃들었는가를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며  
우리 애국에 살자  
**김정일**애국주의로 살자!

# 꽃향기



김금옥

자연은 아직 미명에 잠겨있다. 저 멀리 파도처럼 험준한 산발들 위에 펼쳐진 군청색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도로우엔 축축한 이슬이 깔려 있었다.

전조등을 환히 켜 야전승용차는 평양으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빠른 속도로 달리었다. 승용차의 시창에 이슬방울들이 착착 들어붙는다.

깊은 사색에 잠겨 새로 일떠서는 기계공장과 관련한 문건을 보고계시던 **김정일** 동지께서는 차유리를 내리시며 어둠이 차츰 설퍼지기 시작하는 밖으로 시선을 보내시었다.

길옆의 이슬맺힌 풀잎들이 한들거리는 모양이며 푸르싱싱한 남새포전들의 전경이 그이의 시야에 안겨들었다. 그이께서는 반쯤 내리웠던 차유리를 마저 내리우시었다. 한창 통이 드는 배추포기들이며 희끗희끗 드러난 팔뚝같이 실한 무우들을 보니 한밤을 새운 피로가 말끔히 가셔지는것만 같으시었다.

어제 온종일 최전연의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지도하신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지휘부에서 한밤을 보내시고 새벽에야 평양을 향해 떠나시었다. 평양에서는 새날의 바쁜 일정이 그이를 기다리고있었다.

(작황이 그만하면 괜찮아....)

아직 김장철까지는 적지 않은 기일이 남아있는데 지금처럼 자라면 그때 가서는 정말 불만하겠다는 생각이 드시었다.

인민군병사들과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남새문제를 두고 생각이 많으신 그이이시었다. 더우기 요즘 인민군군인들에게 배추나 시금치 같은 남새뿐아니라 품종이 좋은 무우를 사철 떨구지 않

고 먹이려 장군님께서서는 여간만 마음쓰게 되지 않으시었다.

남새에서는 뽕니뽕니해도 달면서 수분이 많은 무우가 있어야 식생활의 운치를 돌굴수 있는것이다. 시원한 겨울김치는 더 말할것도 없고 봄김치, 여름김치는 물론 물고기식혜의 독특한 맛까지도 무우가 좋아야 한다. 항상 긴장되고 전투적인 분위기속에서 초소근무를 수행하면서 땀흘리며 훈련을 하는 군인들에게 봄, 여름 시원한 김치를 맛있게 담그어먹도록 하자면 절기에 맞게 무우가 보장되어야 할것이다.

(봄, 가을무우...)

장군님께서서는 조용히 뇌이시었다. 지금 인민군부대들에서 가을무우는 맛 좋고 수확량이 높은 품종들을 심고있지만 봄, 가을무우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장군님께서서는 남새과학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좋은 품종의 봄, 가을무우를 연구해 보라고 파업을 주시었다.

최근 과학기술통보자료를 보면 인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영양성분이 무우에 적지 않게 들어 있다는것을 새롭게 밝혀냈다고 한다.

맛 좋은 봄, 가을무우를 우리 군인들에게 먹여야 할텐데...

장군님께서서는 어제 한 인민군부대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부대의 남새밭을 돌아보시었다. 부대의 지휘관인련대장은 무우, 배추작황이 놀라울 정도로 좋은 남새포전으로 장군님을 안내하면서 가을남새파종은 언제 했으며 군인들이 훈련의 여가시간에 그 비배관리를 어떻게 했는가를 상세히 보고드리었다. 자초지종 말씀올리는 그의 목소리는 어쩐지 걱정애 젖은듯 했고 흥분된 심정이 느껴졌다. 사

실 수십 정보에 달하는 그 남새포전으로 말하면 한해전 겨울 부대에 찾아오셨던 장군님께서 친히 자리를 잡아주셨던 것이다. 그날 부대군인들의 식생활형편을 료해하시던 장군님께서 겨울 김장은 넉넉하게 했지만 국거리로 쓸 배추와 무우 저장을 많이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고 친히 솥을 달아 끓여주시며 자체로 남새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포전을 정해주셨던 것이었다. 그 포전에서 무우, 배추가 것처럼 잘되었다.

장군님께서 남새포전을 돌아보시면서 매우 만족해하시었다.

《동무네 부대 군인들에게 사철 남새를 풍족하게 먹이는 문제를 두고 이제 더이상 마음쓰지 않아도 되겠소. 무우, 배추종자가 꽤 많은 것 같구만.》

장군님께서 런대장을 돌아보시었다.

《최고사령관동지! 사실 부대 후방부에서도 좋은 남새종자를 마련했었는데 올해 초봄부터 우량 품종의 남새종자를 보내오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남새종자를 보내온단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봄무우와 다른 남새종자도 지난 시기 우리가 심던 것보다 품종이 좋았는데 이번에 보내온 가을무우종자도 자라는 걸 보면 확실히...》

《좋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어데서 사는 어머니요?》

그이의 물음에 런대장은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했다.

《최고사령관동지!... 저희들이 아직 그 어머니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지 못했다...》

《예. 남새종자를 인편에 보내오군 하는데 종자가 들어있는 꾸레미에는 매번 〈병사들의 어머니로부터〉라고 써여있을 뿐 주소성명이 없습니다. 사실 노력하면 찾을 수도 있겠는데 어머니가 남새종자와 함께 남새씨앗을 뿌리는 방법과 비배관리 방법을 적은 편지 끝에 남새농사지은 걸 보러 한번 꼭 찾아가겠다고 했길래 하루하루 기다리다나니 그만...》

런대장은 말끝을 못 맺으며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찾지 않았다는 거지...》

장군님께서 의미깊은 어조로 조용히 뇌이셨다. 장군님을 동행하였던 총참모부 리한우장령은 좋은 남새종자를 보내온 그 어머니를 찾지 못

했다는 런대장의 대답이 마치 자기의 잘못인 듯이 느껴져 송구하기 그지없었다.

《꼭 찾으려 하시오.》

장군님께서 그때 품종이 좋은 남새종자를 보내온다는 한 녀인의 소행을 두고 참으로 생각이 깊으시였었다.

《장군님, 인차 날이 밝겠는데 잠깐만이라도 쉬셨으면 합니다.》

리한우장령의 안타까움이 실린 목소리에 그이께서는 생각에서 벗어나시며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내 걱정은 말고 한우동무, 눈을 좀 붙이오. 동무들한테 휴식을 시키지 못해서 내 미안한 감이 없지 않소.》

장군님의 음성은 뜨거운 애정을 안고 울렸다.

《장군님!... 저희들은 일없습니다. 장군님께서 너무 무리하시니...》

리한우장령은 말끝을 맺지 못하고 뜨거운 것을 삼켰다. 낮에 밤을 이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는 장군님께서 평양으로 돌아가시는 이 새벽이 나마 차안에서라도 잠시 피로를 푸셨으면 얼마나 좋으랴!

불쑥 짙은 꽃향기가 차창으로 흘러들었다.

《아, 피곤이 싹 달아나는 것 같구만.》

장군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다시금 차창밖으로 시선을 보내시었다.

그이를 우러르는 리한우장령의 눈썹은 축축히 젖어들었다. 본래 과묵한 편인 그는 입을 꼭 다물고 심호흡을 하며 장군님께서 시선을 보내고 계시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길옆에 활짝 피어난 코스모스가 눈길을 끌었다. 꽃향기는 거기에서 풍기는 것이었다. 어쩐지 이 순간 그 꽃을 심고 가꾼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이 새삼스레 가슴에 안겨들었다. 정말 그들을 만나 허리굽혀 인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장군님께서 쉬임없이 오가시는 전선길에 꽃향기를 피워올려 순간이나마 그에게 기쁨을 드렸으니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가.

《한우동무, 평양까지 가는 동안이라도 눈을 좀 붙이오, 내 걱정은 말고...》

장군님께서 끝없는 생각에 잠긴 리한우에게 다심한 어조로 이르시었다.

꽃향기는 신선한 새벽기류를 타고 기분 좋게 흘러든다. 붉은색, 분홍색, 흰색 등 갖가지 색깔의 코스모스가 꽃물결을 이루며 야전차를 향해 끝없이 마주 향해온다.

(코스모스...)

불현듯 흘러간 세월의 갈피속에 진하게 새겨

진 잊을수 없는 추억이 마주 향해오는 코스모스꽃물결위에 실려 안겨들었다.

전후 어느해 여름날이었다.

며칠동안 동해지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도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장군님께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시었다.

그때 어느 한 협동조합에 들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조합원들의 살림살이형편을 알아보시려고 그들이 일하는 포전에까지 친히 찾아가시었다. 한창 강냉이이삭비료를 주던 농민들은 수령님을 뵈옵게 된것이 너무 기뻐 만세의 환호성을 울리며 저마다 인사를 올렸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어 나타난 한 젊은 녀인이 얼굴에 흐르는 땀을 훔치며 수령님께 인사를 올리고 부끄러워 몸둘바를 몰라하더니 흰 머리수건으로 밀등을 감싼 꽃다발을 그이께 드리는데가 있었다. 활짝 피어난 분홍색, 붉은색, 흰색코스모스꽃다발이었다.

《아, 코스모스로구만.》

수령님께서서는 꽃향기를 느끼시며 잠시 꽃다발을 내려다보시었다. 것처럼 수수한 꽃다발이 수령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다.

사실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농촌에 농업협동조합들이 조직되었지만 아직 펴이지 못한 농민들의 생활문제를 두고 걱정이 크시여 심중이 무거우시었다. 그런데 그 녀성이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우리 농민들을 잘살도록 해주신 수령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올린다고, 협동조합을 무어 농사를 지으니 분배몫이 많아지고 이제는 잘살게 되었다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협동화가 제일이라고 젖은 목소리로 아뢰며 꽃다발을 올렸던것이다. 코스모스로 만든 꽃다발밖에 올리지 못하는 송구스러움에 녀인은 얼굴을 붉혔었다.

수령님께서서는 환히 웃으시며 그에게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다정하게 말씀하신 후 농민들과 더 잘살 앞날을 의논하여주시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수령님께서서는 생각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난 그 녀성이 주는 꽃다발을 받으면서 당과 조국의 은혜로움을 아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마음을 두고 참으로 생각이 깊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오래전에 하신 수령님의 그 말씀이 금시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으시었다. 도로옆에 무성하게 활짝 피어난 코스모스의 꽃향기를 가슴에 안아보시는 이 아침 장군님께서서는 그때 받아안으셨던 크나큰 감동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심정이었다.

(얼마나 훌륭한 우리 인민인가....)

수령님께 꽃다발을 드렸던 그 녀인은 그후 협동농장관리위원장을 거쳐 군협동농장경영위원장으로 일하다가 동해지구 한개 도의 농사를 책임진 일군으로 다년간 사업을 했었다. 이제는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 들어간지도 여러해 된다.

(김숙임...)

장군님께서서는 녀인의 이름을 조용히 뇌이시었다. 그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남새농사를 본때있게 잘하여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류다른 향기속에 길손을 반겨맞던 코스모스꽃, 작황이 좋은 남새포전... 인민군군인들에게 좋은 품종의 남새종자를 보내주었다는 어머니...

(혹시 그가 아닐가....)

도농업부문의 책임일군으로 일하다 년로보장을 받았다는 김숙임이 아직도 일손을 놓지 않고있을것이었다. 작황이 좋은 배추와 무우, 코스모스꽃향기... 모든것에 그의 체취가 어린듯싶으었다.

어느덧 날이 환히 밝았다. 짙은 안개발이 산허리를 휘감아안고 하늘로 오르려는듯 굽뜨게 흐르고있다.

창밖의 전경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운전사에게 차를 세우도록 이르시었다.

야전차는 인적드문 산골도로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리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량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가을날의 청신한 아침대기에 기분이 상쾌하신듯 다감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시었다.

앞쪽에 바라보이는 마을쪽으로 들어가는 갈림길 좌우에도 코스모스가 활짝 피여있고 길옆에는 한결 더 푸르싱싱해보이는 남새밭이 펼쳐졌다. 남새포전에 생각깊은 시선을 보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수행일군들을 돌아보시며 마을쪽을 가리키시었다.

《우리 다같이 시원한 바람도 쏘일겸 저기 잘된 남새포전을 구경하고 갑시다.》

장군님께서서는 앞장서 걸으시었다. 마을쪽으로 들어가면서 길옆에 펼쳐진 남새밭의 전경은 볼수록 마음을 호뭇하게 한다. 더우기 이채로운것은 남새포전둘레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서있는 여러가지 색깔의 코스모스들이 보기 좋게 안겨와 남새밭들이 마치 꽃테를 두른듯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었다. 어느 한 포전앞에 이르신 장군님께서서는 석축을 하여 쪽 뽑은 배수로로 건너 남새밭으로 들어서시었다.

《장군님, 밭에 이슬이 많습시다.》

리한우장령이 급히 그이의 뒤를 따라서며 말 씀을렸다.

《한우동무, 여기 남새포전들을 보면서 생각 되는것이 없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리한우의 걱정에는 개의치 않고 산골 남새밭들치고는 퍼그나 넓은 포전들을 쪽 둘러보시며 의미있는 어조로 물으시었다.

《장군님! 여기에 심은 무우, 배추종자가 좋은것 같습니다.》

《종자라... 종자가 좋은것 같단 말이지. ...》

장군님께서서는 조용히 뇌이시며 이슬맺힌 무우, 배추포기들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시었다.

생육이 좋은 무우, 배추의 상태... 그이의 시선은 남새밭들레에 듬성듬성 서있는 코스모스를 일별하신다. 금시 피어난듯 물기를 머금고 가지를 흐느적이는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이 자꾸 시야에 안겨드셨다.

장군님께서서는 천천히 남새포전사이로 난 소로길을 따라걸으시었다. 어쩐지 어제 찾으시였던 한 부대의 남새밭작황과 신통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시었다. 남새밭에 맺힌 물방울들이 구슬알처럼 부서져내리며 그이의 신발과 바지가랭이를 적셨다.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리한우의 마음은 뜨거워났다. 병사들과 인민들의 식생활문제를 두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면 그처럼 바쁘신 길에 이름없는 산골마을의 남새포전을 보아주시겠는가. 무엇을 음미하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남새밭을 둘러보다가는 마을쪽으로 시선을 던지시는 장군님을 우러르던 리한우는 그이의 안광에 언뜻 내비치는 류다른 사색의 빛을 느끼었다.

(혹시 긴장한 정세때문이 아니실가. ...)

그는 저도 모르게 마음의 탕개가 바짝 조여졌다.

《한우동무, 지금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장군님께서서는 발머리로 나오시며 물으시었다. 리한우는 긴장해지는 정세를 두고 자기의 견해를 말씀을리려고 몸가짐을 바로했다. 그런데 그이의 물으심이 뜻밖이었다.

《이 남새포전을 보면서 생각되는것이 없습니까?》

벌써 두번째로 하시는 물음이다. 그이의 물으심의 의도를 깨달으려고 한순간에 많은것을 마음속에 떠올려보던 리한우는 문득 번개같이 머리를 치는 충격에 심장이 세차게 뛴뛰었다.

(혹시 장군님께서서는 군인들에게 남새종자를 보내주었다는 그 녀인을 생각하고계시는것이 아닐

가?...)

가슴에 무엇인가 이름할수 없는 벅찬 감정이 짙 차올랐다.

《한우동무, 어떻습니까? 군인들이 남새농사를 잘 짓도록 봄, 가을무우종자와 많은 남새씨앗까지 보내주었다는 그 주인공을 여기서 만날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아! 어쩌면...)

리한우는 놀라운 심정을 안고 장군님을 우러렸다. 그이의 비상한 판단력과 추리에 대하여 잘 알고있었지만 이 아침의 놀라움은 한층 더 컸다. 작황이 좋은 남새포전을 보시고 그것을 심고 가꾼 인간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시는 장군님의 사려깊은 인품에 머리가 숙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어떻게 이곳에 그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이 있다고 느끼셨을까? ...)

《한우동무, 우리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고마운 녀인을 만나보고 떠납시다.》

장군님께서서는 확고하게 《만나보고 떠납시다.》라고 말씀하신다.

(정말 그 녀인이 여기 이 마을에 있을까? ...)

수행일군들중 초조한 심정으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다. 사실 이 하루의 일정이 너무도 긴장하신 장군님께서 이제 여기 한적한 산골마을에 딱히 있다고 볼수 없는 한 녀성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바치신다고 생각하니 한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올랐다.

(한밤을 지새우신 피로도 못 푸시고... 그리고 아직 이른 아침인데...)

그의 마음은 이러하였다.

남새포전에서 나오신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산기슭에 자리잡은 마을의 전경을 바라보시었다. 아침밥을 짓는듯 집집의 굴뚝마다에서는 연기발이 피어오르고 가볍게 불어오는 바람결에 구수한 토장국냄새마저 풍겨오는것만 같다. 마을로 들어가는 소로길 양옆에도 분홍색코스모스꽃이 장군님을 반겨맞듯 설레인다.

(코스모스... 작황이 좋은 남새포전...)

봄, 가을무우, 배추종자를 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는 녀인, 전선길에 활짝 피어난 코스모스...

이것이 과연 우연한 일치일까? ...)

30여년전 가을 장군님께서서는 평안남도지방을 현지도하시느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어느 한 로동자구의 남새밭을 돌아보신적이 있었다. 수십정보 되는 무연한 포전에 무우, 배추가 어찌나 잘되었는지 절로 마음이 흐뭇해지시었다.

《대단하오, 대단해. 남새농사를 할바엔 이쯤 해놓고 큰소리를 쳐야지. 숙임동무, 정말 남새농사를 잘 지었소.》

수령님께서는 그곳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인 김숙임이 장하여 그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이제는 이곳 로동자들에게 남새를 마음껏 먹일수 있게 되었다고 몹시 만족해하시었다.

평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도 수령님께서는 그가 기특하시어 칭찬을 거듭 하시었다.

《남새농사를 잘해보라고 농장관리위원장을 하던 김숙임동무를 그곳 군경영위원장으로 파견하였는데 봄철의 시금치로부터 시작하여 가을무우, 배추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남새를 마음껏 먹을수 있게 하였습니다. 녀성인데도 이악하게 일을 잘 하거던.… 수신통보 남새밭들의 돌추기를 하고 유기질 비료를 듬뿍 내고 모를 길러 일찍 났더니 남새농사가 안될수가 있겠소. 그는 진짜일군이요.》

아버이수령님께 기쁨만을 드리며 일해온 일군이기에 당에서는 그후 그에게 한개 도의 농사를 맡아하도록 크나큰 신임을 안겨주었던것이다.

언젠가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남새를 사철 팔구지 않고 먹을수 있는 방도를 한번 연구해보라는 과업을 그에게 주신적이 있었다. 전문남새연구사는 아니지만 남새농사를 잘하여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그에게 믿음이 가셨던것이다. 그로부터 몇해후 그는 남새연구소에서 연구한 봄무우, 시금치, 배추 등 여러종의 남새를 자기가 직접 현지에 나가 재배시험을 하여 일찍 심어먹을수 있는 품종으로 갱신시켜 장군님께 보고를 올렸었다. 그의 지칠줄 모르는 정열과 헌신성이 장군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었다. 오래전 그가 보내왔던 남새종자에 비해 지금 길옆의 남새밭에 심은 무우, 배추의 상태는 훨씬 좋아보였다. 장군님께서는 어제 ××부대 남새포전을 보실 때도 그렇고 이 아침 바쁜 길을 멈추고 길옆의 무우, 배추의 상태를 보시면서도 김숙임을 생각하게 되시었다. 그리고 어쩐지 코스모스꽃이 그의 모습처럼 안겨왔다.

《한우동무, 김숙임동무가 기억되니까?》

《몇해전까지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을 한 동무 말입니까?》

《기억하고있구만.》

장군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마을쪽을 바라보시었다. 리한우는 의문이 가셔지지 않아 그이께 조용히 말씀올렸다.

《그럼 장군님께서 찾으시는 주인공이 다름아닌…》

장군님께서는 크게 웃으시었다.

《글쎄 만나봐야 알겠지만… 아직은 내 짐작일뿐이요. 여기 주인들을 만나면 알수 있겠지만 어쩐지 그 동무가 이곳 농장에 꼭 있을것 같단 말이요.》

리한우는 놀라운 심정으로 장군님을 우러렸다. 그이께서 아직은 짐작일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장군님의 신비한 예언에 늘 경탄을 금치 못하고 하는 그로서는 그 녀인이 여기에 반드시 있다고 확신하게 되는것이였다.

어떻게 아셨을가. 이제는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 들어간지도 여러해나 된 그가 아닌가.…

참으로 놀랍기만 하다.

《장군님!》

리한우가 심중에 차오르는 생각을 말씀올리려는데 장군님께서 마을쪽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었다.

《저기 누군가 이쪽으로 오는것 같구만.》

밤색작업복을 걸친 중년사나이가 자전거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내려왔다. 발머리에 이르러 자전거에서 훌쩍 뛰어내리던 그는 한순간 그 자리에 굳어졌다. 너무도 뜻밖에 장군님을 뵈게 된것이 꿈을 꾸는것만 같았을것이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감격에 겨워 목멘 소리로 그는 장군님께 깊숙이 허리굽혀 인사를 올렸다.

《장군님! 제 여기 기사장입니다.》

《아, 그렇소? 동무네 농사를 아주 잘 지었구만. 저기 길옆의 논벼작황도 그렇고 특히 남새작황은 정말 볼만 하오.》

장군님의 칭찬에 너부족한 그의 얼굴에 부끄러움 타는 처녀와 같은 홍조가 어렸다.

《불만 해서 구경을 하자고 들렸소. 그래 이렇게 남새농사를 잘 지은 비결이 뭐요?》

《장군님!》

기사장은 정색한 인상으로 몸가짐을 바로하며 말씀올렸다. 사연인즉은 몇해전까지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을 하던 김숙임이 이곳 농장에 내려와있으면서 품종이 좋은 남새종자연구도 하고 직접 재배시험도 한다는것이였다.

《우리 농장의 남새농사는 모두 김숙임어머니가 잘 짓도록 방조를 주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러니 내 예감이 틀림없었구만. 그래 지금



그 동무가 어디 있습니까?)

장군님의 물으심에 기사장은 마을 뒤쪽의 나지막한 등성이를 따라 펼쳐진 과수원을 가리켜드렸다.

《숙임어머닌 저 과수원 뒤쪽포전에서 시금치씨 뿌리기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시금치라...》

장군님의 안광이 밝아지시었다.

《이곳의 포전들은 농장에서 군인들에게 남새를 보내주려고 정해놓은 밭인데 숙임어머니가 농장원들과 같이 씨를 뿌리고 가꾸어온것입니다.》

《그렇됐구만... 자 한우동무, 어서 갑시다.》

장군님께서서는 앞장에서 걸으시었다.

금방 갈아엎은 포전에서 한 녀인이 허리를 굽히고 호미질을 하고있었다. 얼마나 일에 열중했는지 그는 장군님을 모신 일행이 밭머리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누군가 일에 정신을 쏟고있는 녀인에게로 급히 달려가려는것을 손들어 제지시킨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그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김숙임을 향해 걸어가시었다. 그 순간 인기척을 느낀듯 언뜻 고개를 돌리던 녀인이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가에 환희의 불꽃이 일고 손에서 호미자루가 푹 떨어지며 목멘 부름소리가 흘러나왔다.

《장군님!》

황황히 장군님을 향해 마주 달려나오는 녀인의 눈가에서 맑은것이 부서졌다. 장군님앞에 이른 그는 깊숙이 고개숙여 인사를 올리고는 푹 젖은 목소리로 아뢰었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장군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실줄은... 꿈속에서도 뵈고싶었지만 정말 이렇게 만나보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녀인의 얼굴에 뜨거운것이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험한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었다.

《숙임동무! 전선으로 가는 큰길가에 향기로운 꽃을 피운 주인공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소.》

(아니, 그럼?...)

리한우도 수행일군들도 다같이 놀랐다. 그가 군인들에게 좋은 품종의 남새종자를 보내온 주인공이라는것을 장군님께서 길옆의 남새포전을 보시고 찾아낸것이 꿈을 꾸듯 신기해하였는데 전선길을 따라 피어난 코스모스꽃도 그의 소행으로 생긴것인가. 리한우는 생각할수록 놀랍기만 했다.

《장군님!》

김숙임은 부끄럼타는 소녀처럼 얼굴을 활짝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숙임동무, 나는 전선길을 따라 여름부터 마가울까지 피여있는 코스모스에서 동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군님!》

혁명전사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충만된 그이의 은정넘친 말씀에 김숙임은 끝내 뜨거운것을 쏟고야말았다. 장군님께서서는 잠시후 그에게 다정히 이르시었다.

《숙임동무, 동무의 고심어린 노력이 깃든 시험포전들을 어서 보여주시오.》

김숙임은 달아오른 얼굴을 흠치며 시험포전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안내해드렸다.

《배추55》호와 《배추77》호시험포전을 돌아보시며 숙임의 재배정형을 듣고나신 장군님께서서는 내친김에 사철무우시험포전에도 가보자고 하셨다.

그이의 만면에는 시종 환한 미소가 어리시었다.

《숙임동무, 그러니 동문 내가 언젠가 군인들에게 사철 남새를 먹일수 있는 방도를 연구해보라고 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좋은 남새품종을 얻어내려고 소문없이 애써왔구만.》

장군님께서서는 송구하여 어쩔줄 몰라하는 김숙임을 다정히 바라보시었다.

《나는 인생의 시작부터 한생을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무를 보는것이 기쁘오. 인민군 군인들에게 신선한 봄, 가을무우를 먹고싶어했는데 동무가 내 마음을 알아주어 정말 고맙소. 현재 심는 봄, 가을무우보다 일찍 심어 빨리 먹을수 있는 좋은 품종의 무우를 얻어낼 목표를 내걸었다는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무가 우리 군인들에게 좋은 남새종자를 보내주어서 모두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오. 그래서 내가 좀 바쁜 길이지만 최고사령관의 인사를 하고싶어 동무를 찾아온거요.》

《장군님! 과분한 평가입니다. 전 수령님앞에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을 위한 남새농사를 더 잘 짓겠다고 결의했는데 그저 마음뿐이고 수령님의 유훈을 실천하자면 아직 멀었습니다.》

김숙임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우리 서로 힘을 합쳐 꼭 성공시켜봅시다. 애로되는 점이 있으면 다 말하오.》

장군님께서서는 과수원등성이를 내리시여 야전차가 서있는 도로로 천천히 걸어나오시면서 김숙

임에게 의논조로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는 그이의 어조에는 김숙임에 대한 다심한 사랑과 크나큰 믿음이 어려있었다.

《장군님!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제가 공연히 일도 못치면서…》

《아니, 아니요. 인민군군인들에게 봄, 가을무우를 넉넉히 먹일수 있다면 뭐가 아까울게 있겠소.》

장군님께서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리한우는 가슴을 치는 충격에 온몸이 확 달아올랐다.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어쩌면… 우리 군인들에게 더 맛있고 영양가높은 봄, 가을무우를 먹이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것이 아닌가.…)

장군님께서 김숙임에게 다심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숙임동무,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오. 난 동무가 짧은 시절처럼 변함없이 인생의 꽃을 계속 피워가고있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 귀중하다고 봅니다. 동무가 이런 일을 안한다고 누가 탓할 사람도 없는데말이요.》

장군님께서 김숙임이 그 어떤 경우에도 지금 하고있는 일을 끝까지 변함없이 해나가리라는것을 잘 알고계셨다.

그이께서는 그에게 모든것을 아낌없이 다 주고 싶으시었다. 김숙임이 그토록 불같은 열정을 안고 해나가는 남새연구를 돕자면 좋은 온실도 하나 있어야 할것이고 능력있는 남새연구사들도 붙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었다. 잠시 포전들을 둘러보시던 장군님께서 길옆의 남새밭쪽을 가리키시었다.

《저기 좋은 부지에 숙임동무가 남새연구를 할수 있게 남새온실을 하나 잘 지어주어야 하겠습니까.》

장군님께서 수행일군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었다.

(남새온실…)

리한우는 이제는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서 편히 휴식해야 할 나이의 김숙임이 힘과 지혜를 바쳐가는 그 마음을 그토록 귀중히 여겨주시는 사랑에 목이 메었다. 김숙임의 어깨가 조용히 오르내렸다. 마침내 그는 젖은 얼굴을 들었다.

《장군님! 제가 무슨 큰일을 한다고 온실까지 지어주도록 하신단 말입니까. 나라에 부담을 끼치지 않고 제 힘껏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남새연구를 하자면 온실은 꼭 있어야 하오. 그리고 내가 이제 평양에 올라가면 남새연구소와 토론헤서 연구사들도 보내주도록 하겠소.》

《장군님! 고맙습니다.》

장군님을 우러르는 김숙임의 얼굴에 뜨거운것이 하염없이 흘렀다.

리한우는 걱정이 솟구쳐오르는것을 금할수가 없었다.

세상에 우리 장군님같은신분은 없다. 이 땅에 생을 받아안은 인간들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보살피주는 은혜로운 사랑의 품, 그 품에 우리 인민모두가 안겨살고 운명을 맡기고있는것이 아닌가.

장군님께서 길옆에 활짝 피어 어우러진 코스모스를 다시금 바라보시었다. 가벼운 미풍에 꽃향기가 풍겨왔다.

《자, 후날 다시 만납시다. 숙임동무, 건강에 주의하십시오.》

《장군님! 고맙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김숙임은 뜨거운에 푹 젖은 목소리로 인사를 올렸다.

장군님께서 김숙임이며 농장기사장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시고 차에 오르시었다.

야전차는 평양을 향해 달렸다. 열어놓은 차창으로 꽃향기가 흘러들었다.

×

그로부터 며칠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당 부문을 통하여 김숙임이 지난 시기 여러 품종의 무우, 배추재배시험을 해온 과정을 기록한 록화물이 있다는것을 보고받으시고 그것을 올려오도록 하시었다.

자정이 펍 지난 깊은 밤이었다.

장군님께서 비교적 긴 록화물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아주시었다. 록화물을 다 보고나신 그이의 안광에는 만족한 빛이 어려있었다.

《김숙임동무가 생육기일이 짧으면서도 맛좋은 봄, 가을무우를 만들어내자고 재배시험을 계속 하고있는데 록화물을 보고나니 그 동무가 현재 재배시험을 하는 봄, 가을무우종자를 인민군부대들에 보내주면 덕을 볼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후에 더 좋은 품종으로 개량되면 그것을 보내면 될것입니다. 숙임동무한테 그런 내용을 전해주어야 하겠습니까.》

장군님께서 봄, 가을무우의 재배시험을 하는 그의 생활을 잘 돌봐주며 애로되는 문제를 다 풀어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었다.

《숙임동무는 사실상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보장하겠다고

# 애국의 걸음 다시 떼노라

량 원 익

조국이어  
귀밀머리 희어진 이 아들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의 거울로 삼고  
자신을 비추어보노라

누구에게나 그러하듯  
나의 한생도 조국을 위한 한생  
허나 그것은  
장군님사랑과 은정속에  
그대가 이끌어주는 길을 따라  
방선에선 총대로  
일터에선 힘과 지혜를 바친 그것뿐 아니던가

그러나 조국이어 그대는  
나의 작은 가슴에도 빛내주었더라  
준엄한 날에 적의 화점을 몸으로 막은  
그 영웅전사들에게 수여한  
꼭같은 훈장과 메달들을

너무도 과분한 표창을  
내 웅당한 평가로 여긴적은 없었던가  
명절마다 가슴이 환하도록 달고다니며  
돌이켜볼수록 송구함을  
누를길 없는 오늘이구나

정녕 나에게 있었던가

장군님 조국수호의 나날에 넘고넘으신  
눈덮인 벼랑길을 지켜선적이  
또 있었던가 장군님 헤쳐가신 고난의 행군  
한공기의 죽도 나누어 드신 령길에  
작은 웅달샘이 된적이

아, 류레없는 고난의 나날  
온몸을 초불처럼 태우시며  
조국의 강성번영을 안아오신 그 자욱자욱이  
태양민족의 영원한 정신과 넋으로 빛나는  
**김정일**애국주의 그 거울앞에  
어느때나 땀땀이 서고싶나니

그대 것처럼 못 잊는  
금골광부의 그 모습으로  
한생 쌀을 위해 한몸바친 농민영웅의 모습으로  
열네살 꽃망울 나이에  
수령결사옹위의 별로 영생하는  
인품골의 그 소녀의 깨끗한 정신으로

진정 그대위해 한몸 서슴지 않겠노라  
몸도 마음도 새로이 바치며  
조국이어 나는 지금  
귀밀머리 희어졌어도  
그대 위한 애국의 첫걸음을 떼노라

~~~~~  
위대한 수령님앞에 다진 맹세를 한생을 다 바쳐
실천한것으로 됩니다. 년로하지만 그는 로쇠를 모
르고 일하고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도농촌경리
위원회 고문의 중책을 맡길 결심을 했습니다. 그
는 능히 그 임무를 감당할것입니다. ... 수령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의리와 본분을 다하기 위해 애
쓰는 그런 인간들이 많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
리 공화국이 위력한것입니다.》

장군님께서는 함께 록화물을 보고난 일군들에게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리한우장령은 김숙임에게 안겨준 장군님의 사랑
과 믿음을 두고 다시금 생각이 깊어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것처럼 다심하면서도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면 김숙임이 어찌 코스모스
꽃처럼 피어날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그는 파사로
운 태양의 품에서 다시 새롭게 인생을 받아안은것
이다.

어느덧 한밤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의 러명
빛이 창가로 흘러들었다. 장군님께서는 창가로 다
가서시여 창문을 활짝 여시였다. 상쾌한 가을날의
새벽공기가 집무실로 흘러들었다. 이 땅에 피어나
는 수천수만의 꽃들에서 풍기는 질은 향기가 창가
로 흘러드는것만 같으시였다. 그이의 안광에는 환
한 미소가 어리시였다. 전선길 가냘에서 류다른
꽃향기를 풍기는 코스모스가 이 아침 눈에 삼삼하
시였다.

숭고한 경의

김 욱

—위대한분께 매혹되었다.

인민은 경애하는 그이께 충심으로부터 매혹되었다.

뜻에 감복하고 정에 끌리고 인품에 매혹된 전체 천만군민이 충심으로부터의 경의를 드린다—

이것은 지난 7월의 그날에 격앙된 나의 감정을 두서없이 적어놓았던 글의 첫머리이다.

인생에 강하게 받은 충격과 감정은 시공간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자주 걸군 하는 취재길과 현실체험지에서 체험한바가 많다.

그날도 나는 언젠가 취재한적이 있는 원산농업종합대학에서 아주 인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늦여름의 대학구내는 수림화, 원림화의 표본이 될만큼 장관을 이루고있었다.

따거운 여름햇빛이 물들어놓기 시작한 수종이 좋은 여러 나무들의 잎새 무성한 구내길의 좌우에는 갖가지 꽃들이 만첩을 자랑하고있었다.

이제는 구면이 된 대학의 책임일군은 나를 받기며 천연기념물 원산금술나무에 이끌어갔다.

《작가선생도 아시겠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공화국원수칭호를 드린다는 결정을 받아안던 그날에도 우린 이 나무밑에서 서로 얼싸안고 감격과 환희의 만세를 부르고 불렀습니다.

이 나무야 어버이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셨던 그날의 증견자가 아닙니까.》

의미심장한 그 일군의 말에 우리의 추억은 자연히 못 잇을 세해전의 4월에도 떠실려갔다.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할 유능한 농업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라고, 대학에서 작물육종연구사업을 활발히 벌리라고 최상급의 희한한 온실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장군님께서 주체98(2009)년 4월 봄기운이 완전한 계절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함께 원산농업대학(당시)을 찾아주시었다.

그날 어버이장군님께서 대학을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뜨거운 발자취가 어려있는 대학에서 수림화, 원림화를 잘하고 나라의 농업발전을 떠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들을 많이 키워낸대 대하여 무척 만족해하시었다.

그동안 일을 많이 했다고 과분한 치하를 주시면서

서 장군님께서 원산농업대학은 력사가 있는 대학, 자랑할만 한 대학이라고, 앞으로도 어버이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날 대학책임일군들의 가슴가슴은 튼다른 감격과 환희로 일렁이었다. 한것은 장군님과 함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는 영광을 지닌것이다.

아, 그때의 그 감격, 그 기쁨.

천연기념물인 원산금술나무를 배경으로 대학의 일군들과 기념사진을 찍고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감격에 목메여하는 책임일군의 손을 힘껏 잡아주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을 기쁘게 해주어 고맙다고 뜻밖의 과분한 치하를 주시었다.

그 겸손하신 덕망과 자애론 품모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마음속으로 탄복을 금치 못하며 걱정을 누르지 못했다. 아, 우리의 **김정은**동지! 그이는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그대로이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감격과 환희의 감정을 누를길 없어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앞에서 가슴에 뿜어오르는 걱정을 터쳤다.

어버이장군님! 조선의 미래는 창창합니다.

우리는 수령복, 장군복을 대대로 누리는 참으로 행복한 인민입니다. 정말 힘이 솟습니다.

그 순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대학구내를 흔들고 수림도 쇠— 쇠 설레었다.

그러자 백두의 기상 넘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곧바로 서시더니 가슴을 짝 펴시며 힘있게 거수경례를 하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경례를 우러르며 받아안은것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감정이 날이 갈수록 잊혀지지 않고 새록새록 더 뜨거이 돌이켜집니다.

사실 어버이장군님과 선군령도의 길에 함께 계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 쌓으신 업적을 두고 말한다면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가며 감사를 드려도 다 못할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아버이장군님께 기쁨을 드려주어 고맙다고 우리에게 경례를 하시니 정말...》

한량없는 감개로 하여 대학책임일군의 말은 마냥 폭 젖어있었다.

한동안의 침묵끝에 다시 그 일군이 하는 말.

《작가선생, 지난 7월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을 받아안던 첫 순간에 바로 저는 못 잊을 세해전 4월의 감격과 환희가 되살아나는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경의를 드리는 순간이 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날에 하늘땅을 울린 만세소리,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심장으로 우러러따르는 우리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충정과 경모의 표시입니다.》

책임일군은 자기의 감정을 다 담을 표현력이 부족한것이 안타깝다며 말을 맺었다.

인민이 드리는 경의—공화국원수칭호의 수여.

7월은 지나갔지만 우리 인민의 가슴에 일렁이는 그날의 영광의 환희는 잠재울수 없다.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들마다에 간직하고있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매혹과 흠모의 열도는 날과 달의 흐름으로 파히 젼수 없으리만큼 뜨겁고 열렬하다.

심장으로 매혹된 분—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어떻게 하면 인민의 이 마음, 그이에 대한 매혹과 흠모, 충정과 경모의 마음을 그이께 다 드릴수 있을까.

이 나라의 어느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보라. 문득 만나는 그 어느 사람이든 그의 마음속 말을 들어보라.

그러면 서로 다른 계층의, 각이한 연령의 각양각색의 목소리지만 하나와 같은 진정의 말을 들을 수 있거니. 그것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인민들의 열화같은 매혹과 흠모의 웨침이다.

피눈물의 12월의 나날에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여야 한다고 하신 자자구구 파스한 정과 사랑이 깃든 그이의 친필을 받아안던 인민이, 하늘나라에 덩실 올라왔은것 같은 궁궐같은 창전거리의 새 아파트에 입사한 평범한 노동자들이, 꿈결과도 같이 만나뵈온 행복감에 울며 웃으며 어린 애들마냥 그이의 팔을 부여잡고 매달리던 초도의 군인가족녀인들이 한 마음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매혹되었고 온넛을 다 바쳐, 한생을 바쳐 그이만을 따를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정녕 7월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받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는 우리 조국이, 인민이 세세년년 이어가며 인사드려도 다 못 드릴 인사이며 가장 숭고한 경의이다.

둘이켜보면 7월은 뜨거운 여름, 불타는 여름이었다.

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여! 인민이 드리는 숭고한 경의를 받으시라.

그리고 우리의 당, 우리의 조국, 우리의 인민을 세세년년 승리만을 떨쳐갈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패의 당으로, 부강의 나라로, 행복한 인민으로 즐기치게 이끄시라!

나는 마치도 시인이 된 심정으로 이렇게 웨친다.

상 식

사라져가고 있는 꿀벌

최근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지고있는 사실을 두고 과학자들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인간은 5 000~6 000년전부터 꿀벌을 인공적으로 길러 다양하게 리용하여왔다. 그런데 최근 원인모르게 꿀벌이 사라지고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1년사이에 36%의 꿀벌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꿀벌뿐아니라 자연계에 존재하는 땅벌과 각종 곤충이 무리로 죽는 현상이 도처에서 나타나고있다고 한다.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해명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지만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있다.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환경과 생태계, 농업

등에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한다. 이미 오래전에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4년안에 지구는 멸망한다.》고 예측한바 있다.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의 3분의 1은 꿀벌 등 곤충에 의한 꽃가루수정방식으로 생산되고있는데 꿀벌들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한 2006년부터 그 치명적후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있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추세로 꿀벌이나 곤충들이 없어진다면 농산물값이 더욱 올라가고 식량위기가 지속되어 인류가 큰 재앙을 당하게 될것이라고 우려하고있다.

권변의 새 역사를 펼쳐놓은 애국헌신과 사랑의 세계에 대한 감동깊은 형상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기념 단편소설집(5) 《선경》을 읽고 —

안 희 열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한생의 뜻이 어려있는 **김정은**동지의 애국주의를 심장으로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이었고 리상이었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이 땅우에 기어이 일떠세우기 위한 대고조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위대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한생을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바치신 **김정일**동지의 애국헌신의 한생은 내 조국땅우에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열어놓고 사회주의부귀영화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영구불멸의 애국업적으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기념 단편소설집(5) 《선경》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에 자신의 한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그 길에서 꽃피난 사랑의 전설들을 감명깊게 형상한 단편소설 작품들을 묶은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녕 우리 장군님은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대대의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깡그리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시였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며 끊임 없는 애국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여 이 땅우에 세기적인 변혁을 안아오시였으며 가는 곳마다에 만복이 꽃피나는 사회주의선경을 펼쳐놓으시였다.

그 길에서 대소한의 눈보라도 헤치시고 피약벌 내려쬘이는 삼복철의 강행군길도 걸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숭고한 애국으로 빛나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불타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강행군길의 자욱마다에 새겨진 애국헌신의 세계, 인간사랑의 세계가 그대로 감동깊은

소설작품들로 되었다.

단편소설집 《선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장군님께서 천품으로 지니신 숭고한 애국심과 혁명적의리의 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한 소설작품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단편소설 《영생의 품》(윤민종), 《명절》(주유훈), 《축포》(김동호), 《아끼시는 마음》(문상봉), 《심중의 대화》(최영조), 《기차는 정시로 간다》(정기종), 《승전비》(김도환) 등과 같은 작품들을 들수 있다.

우리의 장군님께서서는 한평생 어버이수령님의 소원을 성취해드리고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을 자신의 사업과 활동의 필생의 목표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심혈과 정력을 다 바치시였다. 단편소설 《영생의 품》은 우리 장군님의 그러한 신념과 의지, 인생관과 충정의 세계를 깊이있게 형상한 작품의 하나이다.

혁명렬사릉에 세울 투사들의 반신상을 제작하는데 렬사들의 투쟁사적에 꼭 본인의 초상을 첨부해서 보장하는것은 하나의 원칙이였다. 그러나 1932년에 두만강연안에 진출하였다가 일제군경놈들에게 희생된 항일투사 장천록동지의 사진만은 구할수가 없었다. 일군들은 상상화라도 그려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자고 제기하였다. 이때 장군님께서서는 미완성조각품을 수령님앞에 내놓을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령님께 충직했던 장천록동지의 반신상을 잘 만들어수령님께 기쁨을 드려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국적인 판도에서 당조직과 군중을 발동시키도록 하시였다.

둘우에도 꽃을 피우는 뜨거운 정성이 있어 당시 렬사의 시신을 몰래 안장하고 바람처럼 사라져 종적을 감추었던 사람의 행처를 드디어 찾아낼수 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먼 바다가마음에까지 몸소가 시여 소학교교원을 하는 한 처녀로부터 할아버지에게서 넘겨받아 품속에 소중히 간직하고있던 투사의 사진을 찾아내신다.

렬사릉의 반신상을 돌아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장천록동지의 반신상앞에 이르시어 생전의 모습 그대로라고 하시며 기쁨과 감동을 금치 못해하시었으며 려사의 반신상앞에서 기념사진까지 찍으셨다.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충정심, 의리심이 기적을 낳게 했고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게 하였으며 혁명렬사들모두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단편소설 《명절》은 보통강반에 현대적인 창광원을 훌륭히 일떠세워 어버이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 기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다. 단편소설 《축포》에서 한밤중에 수령님을 모시고 성대하게 진행될 서해갑문준공식장에 나오시어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고 안녕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축포쏘는 시간과 계기, 위치와 좌지까지 선정해주시는 이야기는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는가.

혁명선배들, 혁명전우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며 내세우시는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천품으로 지니고계시는 가장 고결한 위인적품모의 하나이다. 후대교양을 위하여 항일혁명투사 최현동지가 혁명박물판에 사적물로 희사한 애용권총을 일군들을 보내여 되돌려주신 내용을 담은 단편소설 《아끼시는 마음》은 우리 장군님께서 수령님과 함께 싸워온 혁명선배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며 신임을 베풀어주시였는가를 뜨겁게 새겨안을 수 있게 한다.

수령님께서 준엄한 전선시찰의 길에서 생명을 소생시켜주시고 유능한 군사지휘관으로 키워주신 한 평범한 전사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보호해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주시어 혁명의 기수로 내세워주시고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신 내용을 그린 단편소설 《심중의 대화》도 우리 장군님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의 세계를 잘 보여준다.

수령님을 충정으로 받드시고 혁명동지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품모에 매혹되고 고무되어 우리의 천만군민은 장군님을 따라, 당을 따라 고난도 시련도 웃으며 헤쳐왔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에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쳤다.

단편소설집 《선경》에서는 또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과 사랑의 전설을 감동깊게 형상한 소설작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대표적인 작품들로 는 단편소설 《사과꽃》(최성진), 《대홍단의 아

침노을》(조상호), 《선경》(변월녀), 《흰눈세계》(김혜영), 《샘물터》(김영선), 《대지의 노래》(송병준), 《산촌의 물소리》(리정수), 《집》(리라순) 등을 들수 있다.

이 작품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고 마음쓰시며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세계와 헌신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헌신에 의하여 내 조국 땅 가는 곳마다에는 희한한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지고 그 선경에서 우리 인민은 행복의 노래소리 높이 울리며 장군님의 사랑과 은덕을 길이길이 노래하며 전해가고있다.

산간벽촌 부안리 샘골마을을 지상락원으로, 사회주의선경의 본보기로 꾸리도록 이끌어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신 이야기를 감동깊게 형상한 단편소설 《선경》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화신이신 우리 장군님의 절세의 위인상을 칭송하는 하나의 서정서사시와도 같다. 원래 샘골마을은 산골지대이고 랭습지여서 농사가 잘 안되는데다가 큰물피해까지 입어 농장마을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까지 제기되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전선시찰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곳을 여러차례 찾으시어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전경도를 보시고서는 마을을 꾸릴바에는 아예 최상의 수준에서 군과 도의 본보기가 될수 있게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자고 하시며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시고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현지에서 샘물을 계단식으로 리용하여 양어못도 건설하고 농사도 짓고 발전소도 건설할 방도와 수림화도 잘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장군님의 헌신의 로고와 은정어린 사랑에 떠받들리어 샘골마을은 살기 좋은 지상락원, 사회주의선경으로 그 면모가 일신되었다.

이밖에 단편소설 《사과꽃》을 비롯한 다른 작품들도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다.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리념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에 의하여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들마다에서는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고 조국의 이르는 곳마다에는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졌다. 장자강의 불야경을 비롯하여 범안리의 선경,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원흥의 사과꽃바다, 만수대거리

의 희한한 전경들은 다 우리 장군님의 애국헌신과 인민사랑의 열정의 결정체이다.

단편소설집 《선경》에는 선군령도의 길, 강성국가건설의 길에서 높이 발현된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풍모를 감동깊게 형상한 작품들도 많다. 그러한 단편소설작품들로는 《12월과 12월》(림봉철), 《뜨거운 겨울》(김명진), 《출항》(박윤), 《눈부신 해돋이》(리한호), 《지휘봉》(한정아) 등을 들수 있다.

단편소설 《12월과 12월》에서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새해전투를 앞둔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는 전투승리의 담보는 무엇이며 전투의 출발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예지로 우리 혁명의 력사는 당에 끝없이 충실한 천만군민의 정신력으로 승리를 펼쳐온 력사이며 인민의 심장속에 고여있는 무궁무진한 힘과 열정을 분출시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온 력사임을 통찰하시였다. 또한 강선로동계급이 초고전력전기로에서 쇠물을 팡팡 뿜아내고있는 현실에서 반세기전에 수령님께서 지퍼주신 천리마의 그 정신, 그 기백이 지금도 강선로동계급속에서 식지 않고 펄펄 끓어번지고있음을 심장으로 느끼시였다. 이로부터 장군님께서는 새해전투성공의 담보도,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의 승리의 담보도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우리의 로동계급, 인민의 정신력에서 찾으시였으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전투의 첫 신흥호성도 강선제강련합기업소에서 울려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제1차 5개년계획의 첫해전투를 눈앞에 둔 1956년 12월에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셨던것처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대고조의 새해전투를 눈앞에 둔 2008년 12월에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 떠나셨다.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잘 형상한 작품이다.

단편소설 《뜨거운 겨울》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강도로동계급이 자체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들을 보시고 자강도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가슴속에서 끓고있는 투쟁정신, 공격정신을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그것을 강계정신으로 명명해주시였으며 그 정신, 그 모범을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하신 내용을 반영하고있다. 우리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 천리혜안의 비범한 예지, 특출한 령도력을 심오한 생활철학으로 깊이있게 밝혀주고있는 작품이다.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시기에 자강도에서부터 강성국가건설의 진격로는 열려지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강선땅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로 타올라 함남의 불길,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로 더욱 세차게 타번져나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체현하신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은 우리 인민의 힘과 열정, 재능을 총분출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조국번영의 전성기를 펼쳐놓게 한 근본담보이다.

수령형상단편소설에서 그 특성에 맞게 형상방법과 수법을 다양하게 적극 탐구활용하는것은 작품의 사상예술적품격을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단편소설집에 들어있는 작품들은 우선 작품의 구성을 조형미가 나게 립체적으로 조직함으로써 형상의 폭과 깊이를 보장하며 성격과 생활을 폭넓고 심오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작품창작에서 회상의 수법, 심리묘사의 수법을 적극 활용하여 생활이야기를 자유분방하게 펼쳐나간것은 그 하나의 실례로 된다. 이러한 형상구성수법은 단편소설 《사과꽃》에서 회상과 심리묘사로 백과주령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된 원홍땅의 오늘의 현실과 장군님의 심중에 추억으로 펼쳐지는 원홍땅의 지난날의 이야기와 굴지의 과일 생산종합기지로 더욱 훌륭하게 꾸러지게 될 원홍땅의 래일에 대한 이야기가 시공간적으로 폭넓게 펼쳐보여주고있는것을 통하여 실증된다. 이러한 립체적인 구성수법에 의하여 원홍땅에 전변의 새 력사를 안아오기 위하여 기울으신 우리 장군님의 심혈, 사랑과 로고가 폭넓고 깊이있게 일반화되고 있다.

작품에서 여러 시점인물이 보고 느끼는 감정세계에 대한 묘사수법은 형상을 조형미나게 립체적으로 구성하여 인물의 성격과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는데 효과적이다. 단편소설 《흰눈세계》에서는 그러한 묘사수법을 잘 활용하고있다. 작품에는 끊임없이 솟는길을 헤치시며 현지지도의 강행군길을 이어나가는 장군님의 헌신적로고에 대한 작가의 묘사가 있는가 하면 당을 받드는 마음이 하나같고 순진하면서도 담이 커서 믿음이 가고 정이 가는 광산당비서, 지배인을 보고 느끼는 장군님의 감정세계에 대한 묘사도 있다. 그리고 장군님에 대한 흠모와 그리움, 보답의 한 마음으로 가슴불태우는 지배인, 당비서의 감정세계에 대한 묘사와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의 극치를 체험하는 측근인물인 부부장의 감정세계에

대한 묘사도 있다. 이러한 묘사수법은 구성의 조형미와 립체성을 보장하면서 우리 장군님의 위인적품모와 사랑의 세계를 여러 측면과 각도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

단편소설집에 들어있는 작품들은 또한 하나의 작은 사건과 이야기를 통하여 보다 크고 의의가 있는 문제, 사회적의의가 있는 문제를 밝혀내는 예술적일반화의 수법을 능숙하게 탐구활용하고 있다.

작품들에서는 단편소설의 특성에 맞게 장군님의 혁명활동의 한구간, 한 계기에서 찾아온 생활의 본질이 체현되어있는 한 단면의 작은 이야기를 취급하면서도 수평형상소설의 특성에 맞게 성격과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는 일반화의 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있다. 토지정리된 서원벌에 세워놓은 전망대를 폭파해버리는 사건을 취급하고있는 단편소설 《대지의 노래》를 들어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전망대는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는 이곳 농민들의 절절한 소원에 의하여 세워진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장군님을 노엽히게 될줄은 누구도 몰랐다. 장군님께서는 도의 책임일군으로부터 전망대를 세운 목적을 들으시자 당장 헐어버리라고 하신다. 깊은 밤 전화로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그 전망대를 없애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당장 흔적도 없이 폭파해버리라고 또다시 엄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래서 서원벌에 세워진 전망대는 물론 도안의 여러곳에 세워놓은 전망대가 일시에 사라졌다.

작품에서 취급된것은 작고도 큰것이다. 작가는 전망대를 세웠다가 없애버린 문제를 취급하면서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순결한 충정의 세계를 형상적으로 잘 보여주고있으며 이와 함께 농민들과 눈비도 같이 맞고 땀약별도 같이 쪼이며 험한 논두렁길도 같이 걸으시면서 부강조국을 건설하시려는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과 인생관, 인민적복무정신을 감동깊게 보여주는데로 형상을 확대시켜나갔다.

이러한 형상수법은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헤아릴수 있게 하며 크지 않은 평범한 문제를 통하여 보다 크고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밝혀낼수 있게 하는 일반화의 수법이다. 이러한 일반화의 수법은 토지를 정리하면서 없애버린 샘물터와 씨름터를 새로 옮겨 건설한 마을로 옮겨주고 마을이름도 본래대로 샘터마을로 명명하도록 해주시는 은정깊은

사랑의 이야기를 형상한 단편소설 《샘물터》에서도 찾아보게 된다. 단편소설 《뜨거운 겨울》, 《산촌의 물소리》에서도 이러한 일반화의 수법으로 형상의 심오한 철학성을 보장하고있으며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깊이있게 부각시켜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에서는 또한 생활의 본질이 체현되어있는 하나의 뜻깊고 인상깊은 생활세부를 통하여 성격과 생활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부각시켜보여주는 수법도 적극 활용하고있다.

세부묘사는 성격을 인상깊게 특징지으며 생활의 본질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게 하는 중요한 형상수법이다. 단편소설 《대홍단의 아침노을》에는 우리의 장군님께서 제대군인부부들과 함께 가족사진도 찍고 제대군인의 안해와 허물없이 누가 들을세라 귀속말로 속삭이는 장면의 세부가 묘사되어있다. 또한 단편소설 《선경》에는 장군님께서 샘골마을 제대군인부부가 올린 옥동녀가 태어났다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아이이름을 지어달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읽으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는 장면의 생활세부가 묘사되어있다. 이러한 생활장면의 세부묘사들은 우리의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뜨겁게 사랑하시는가 하는것과 함께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장군님을 얼마나 흠모하며 따르고 받드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준다. 그러면서 우리의 장군님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친근한 한가족, 한식솔이며 우리의 장군님은 우리 군대와 인민모두의 친어버이이시라는것을 형상적으로 부각시켜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12월과 12월》에는 장군님께서 한 겨울의 쌀쌀한 새벽에 북방의 먼길을 달려온 수행일군들을 폭 잠재우시려 숙소의 홀에서 리발을 하시는 장면의 생활세부가 묘사되고있다. 리발사는 잠시라도 휴식을 보장해드리려는 마음에서 조심히 가위질을 해나갔다. 장군님께서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리발사의 《채각, 채각...》하는 가위질소리를 시계의 초침소리로 착각하시며 깊은 사색의 심연속에 잠기신다. 리발은 이미 끝났지만 초침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리발사는 장군님의 사색의 세계를 깨치지 않으려고 빈가위질소리를 계속 냈던것이다. 얼마나 인상깊고 눈물겨운 세부묘사인가,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동지애의 세계도, 숭고한 애국헌신의 세계도, 우리 인민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도 깊이있게 부각시켜 보여주며 가슴뜨겁게 새겨안을

그리움에 불타는 연산땅

윤 경 남

별방에선 가없는 하늘이라 부르지만
높고낮은 산밭로 둘러싸여
하늘도 좁게 보이는 연산땅은
별보다 산이 많은 고장이랴오

산이 많아 별방을 부러워하던 고장이 오늘은
온 나라가 다 아는 고장이 되었다오
인심 좋고 살기 좋아 나들이왔던 손님들도
놀러앉아 살림을 펴고싶어하는 고장이랴오

배미천 10리제방은 유보도 10리길
쌍바위 감돌던 남강에 발전소 세워
식료공장에선 갖가지 식료품 쏟아져나오고
거리는 도시의 한 구역이 옮겨온듯

배미천 기슭따라 준비하게 일떠선 문화주택
집집의 트랙엔 대추나무 살구나무
오고가는 길손을 불러 후한 대접해주고
2층짜리 휴양각엔 흥성이는 휴양생들

산등성엔 시원히 펼쳐진 무성한 풀밭
양떼 염소떼 몰아가는 방목공처녀의 노래소리

맑은 물 흐르는 골짜기마다 건설한
평목장 노루목장은 마치 야생동물원인듯

누구나 한번 와보면 그냥은 못 간다오
올해만도 도시총각 열명이나 여기 장가왔소
남편따라 도시로 갔던 녀인들이
남편을 앞세우고 찾아오는 살기좋은 고장

연연히 산이 많아 연산이런듯
아니랴오 연연히 기쁜 일이 생겨 연산
이름없던 우리 고장 연산땅에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의 자욱 어려있거니

군민발전소... 식료공장... 휴양소...
이름만 불러도 눈물겨운 장군님사랑
연산땅의 천지개벽은
김정일애국주의의 고귀한 결실이거니

오늘도 좋지만 더 좋은 래일을 위해
자기 산천 자기 향토를 더 아름답게 꾸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싶은
그리움에 단풍마저 불타는 연산땅이랴오

수 있게 하는 생활세부이다.

단편소설 《사과꽃》에서 여러번 반복되어나오는 생무우쪼각에 대한 세부, 540그람짜리 왕사과세부는 또 얼마나 생활의 깊은 철학을 밝혀주며 위인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뜨겁게 새겨안을수 있게 하는 뜻이 깊은 세부, 인상적이며 상징적인 세부인가.

이러한 주옥같은 생활세부, 뜻이 깊고 인상깊은 세부들이 가득차있어 단편소설들은 형상수준도 높고 정서적감화력도 매우 크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기념 단편소설집(5) 《선경》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얼마나 절출한 위인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어버이로 모시고 투쟁해왔는가 하는것을 끝없는 흠모와 그리움의 감정에 젖어 절감하게 한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불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우에서 꽃피여난 사회주의선경.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은 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행복의 열매로 무르익을것이며 우리 인민 모두가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천년만년 살아갈 사회주의선경은 장군님의 애국의 발자취어린 내 나라, 내 조국땅우에 활짝 꽃피날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애국업적을 형상한 소설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치여 **김정일**애국주의의 열풍, 애국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적극 고무추동하여야 할것이다.

어 은 동 의 물 소 리

최 주 원

물소리 물소리
어은동의 물소리
밤나무숲 설레임 여기에 실려
그리도 유정한가 사연깊은 물소리

구슬같은 맑은 물 들여다보면
내 마음도 깨끗이 씻어주는듯
정히 두손 모아 떠마시니
가슴가득 일렁이는 추억의 물결이어

못 잊어라 어은동의 가을밤
쟁반같은 보름달 바라보시며
야영생들 가슴마다 충정의 뉘 십어주시던
아버이장군님의 그 음성울

항일의 날 밀림속 숙영지에서
추석명절 쇠도록 하시려는 수령님의 뜻
누구보다 먼저 헤아린 사람
바로 오중흡동지였다고

한목숨 위험도 아랑곳없이
적구에서 명절준비 마련한 사연
뜨겁게 들려주신 장군님 그 말씀
오늘도 전해주는가 어은동의 물소리

항일의 선렬들처럼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가 되라고
오중흡동지의 충정을
티없는 샘줄기에 담아주신 장군님

아, 위대한 그이의 뜻
오늘도 끝없이 속삭이는가
물소리 물소리
어은동의 물소리

낮이면 푸른 숲이 이어받아 전하네
밤이면 큰 골안이 메아리로 울리네
찾아오면 쉬이 못 떠나
내 마음에 뜨거운 노래로 출렁이네

아 느 나 땅 아

리 찬 호

병사의 발밑에 묵묵히 누워
조국에 즙을 주고 활기를 주는 땅아
너를 살찌우고 풍만하게 하시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우리 초소에 오시여 나무를 심으시었다

전사들과 함께 삽을 드시고
땀을 흘리며 나무심을 구멍이도 파시고
심으신 나무에 물도 주시고
심으신 나무에 버팀목도 세워주시며

조국의 숲이 무성하자면
자기의 땀을 뿌리에 묻어야 함을
조국의 땅이 기름지자면
량심을 깊이깊이 묻어야 함을
그이는 우리에게 깨우쳐주시었다

한삽한삽 무겁게 뜨신
그 흙에 어려있었다
수령님 찾아주신 내 조국
장군님 지켜주신 내 나라 온 산천을
짧은 기간에 수림화할 결심이
이 땅 끝까지 어려있는 땅

그 땅을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
전선으로 달리시며
타는 목 추길 생각마저 잊으신
아프신 그 심중이
끝과 령에 어려있는 땅이어

애국심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나무 한그루도 사랑하는데서 표현되는
구체적인 사상감정이라 하시며
이 나라의 푸른 숲을 그려보신 장군님

그 애국심을 어느분이 귀중히 받들었느냐

말하라 땅이여
이 땅에 나무를 심는 일이
총을 들고 너를 지키는것과 같음을
어느분이 병사들에게 깨우쳐주셨느냐
참된 애국의 마음 장악되지 않는다면
총도 대포도 소용없음을
총천 가슴들에 새겨주셨느냐

이 땅을 안고 총을 안으라고
사랑을 안고 총을 쏘라고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를
땅에 심는 한그루의 나무에도

깊이깊이 새겨주신 최고사령관동지

병사들은 보았노라 그 나무에서
애국으로 무성하는 내 나라의 총대숲을
원썬들의 총탄이
한귀퉁이도 파헤치게 할수 없는 이 땅을

아, 질세의 애국자 **김정은**원수님을 따라
총대를 추켜든 무적강군이
땅을 높이 받들었다
너에게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고
너에게 샘줄기가 넘쳐나게 하려
병사들 두손으로 땅을 뜨겁게 받들어올렸다

조국이어 나를 불러다오

김 윤 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랴
조국이어 그대가 언제나 못 잊어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남먼저 불러주는 이름속에
이 아들 내가 있다면

그러나 아직은
내 사는 정든 거리
내 사는 정든 마을에서조차
나를 아는 사람 많지 않은
나는 이 땅의 평범한 근로자

그대를 받아들여갈 불같은 욕망뿐
받고만 사는 사랑에 바친것 너무 적어
늘 송구한 마음 안고사는
나는 이 땅의 평범한 공민

조국이어
그대의 기억속에 산다는것은
이 세상 더없는 영광이며 행운
그 영광의 언덕에 세워주기 위해
평범한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변함없는 그대의 사랑이 나를 키우지 않았던가

나라의 천만자식 안아키우는
사심없는 크나큰 사랑의 그 품은
나의 꿈이 움트고 자라난 대지였고
나의 꿈이 한껏 나래칠 하늘이었거니

그대의 품에 태어났다고
내 그대의 아들이라
내 그대의 달디단 젖줄기 물고 자랐다고
그대가 못 잊는 아들이라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아들!

이 땅 그 어디서든
그대를 내 어머니라 땃땃이 부르는
이 아들의 정찬 목소리 울리거든
조국이어 믿어다오
그곳에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리라는것을
그곳에서 그대가 원하는
이 아들의 심장의 노래 높이 울리리라는것을

한생 그대의 아들로 사는것은
내 사는 보람이며 행복
그대를 위한 길에 몸과 마음 다 바쳐가며
만일 그대가 바란다면
이 한몸 한알 잔디의 씨앗이 되어
그대의 언덕을 푸르게 하려니

조국과 나 나와 조국이
운명을 함께 하는 하나가 될 때
조국이어 나의 어머니시여
이 세상 그 어떤 값높은 칭호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고귀한 부름
조국의 아들이라 나를 불러다오
영원히 못 잊어 기억하는 아들로!

영원한 충정의 해발에 대한 감동깊은 예술적화폭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기념 단편소설집(5) 《해빛》에 대하여—

김 순 립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충정다하시였으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우신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의 참다운 구감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시는 주체의 광휘로운 해발을 안으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하시어 혈전의 불바다를 헤치시며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건결히 옹호보위하시였으며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에 공헌하시였다. 또한 조국이 해방된 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로 우리 녀성들을 힘있게 이끄시고 새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자신의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찬란한 미래를 안아키우시어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도록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놓으심으로써 조국과 혁명앞에 불멸의 공적을 쌓으시였다.

진정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생애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의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생애였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한없이 고결한 혁명적의리, 동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강철의 의지와 신념,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더없이 겸손하고 소박한 인민적품성... 정녕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생애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빛나는 한생이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기념 단편소설집(5) 《해빛》은 가장 혁명적이고 고결한 충정심과 끝없는 헌신성으로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한 해발이 되시어 인민사랑의 전설적인 자욱을 새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생애에 대한 시대의 찬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어머니는 벌써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김일성장군님은 우리 민족의 태양이십니다. 우리모두는 김일성장군님의 해발이 됩시다.> 라고 하시였는데 이 뜻깊은 말씀에는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어머니의 불같은 충성심과 한생을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살며 싸우려는 철석같은 신념이 그대로 담겨져있습니다.》

단편소설집 《해빛》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한 해발이 되시어 한생을 오로지 조선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을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키워주신 김정숙동지의 혁명투쟁의 일단을 감명깊게 형상한 작품들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뜨겁게 해주고있다.

단편소설집 《해빛》은 위대한 태양의 찬란한 해발이 되시어 한생 위대한 수령님을 충정으로 높이 받들어모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혁명생애에 대한 찬가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서는 한치의 드림도 없으시였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어머니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으시였으며 그와 어긋나는 현상과는 추호의 타협도 없이 날카로운 투쟁을 벌리시였다.

어머니께서는 나라가 해방되었으나 정세가 복잡하고 할일이 많은데 어떻게 자리를 뜨겠는가고 하시면서 것처럼 그리워하던 고향에도 가보지 못하고 일가친척들을 찾는것도 미루시며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는데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어머니께서는 수령님의 새 민주조선전설로선을 받드시고 수령님과 함께 전국각지의 공장, 농촌, 어

촌, 학교에로 쉽없이 발걸음을 옮기시였으며 때로는 수령님께서 현지도하실 단위들에 먼저 나가 그곳 실태를 료해하기도 하시였다.

참으로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언제한번 편히 지내지 못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는 사업에 한생을 고스란히 바치시였다. 어머님의 한생은 혁명가가 자기 수령을 어떻게 받들어모셔야 하는가 하는 모범을 보여준 한생이였다.

단편소설 《해빛》(최양수 작)은 갓 해방된 청진에서 시보안서장 리명식과 평범한 녀성 차성숙, 그의 오빠 차성남의 곡절 많고 수난에 겨웠던 생활을 통하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이시야말로 억눌리고 멎었던 가슴들에 희망의 봄을 안겨주시고 보안서원들을 부강조국건설에서 열렬한 혁명가, 인민의 참된 총복이 되도록 이끌어주신 찬란한 해빛이시라는것을 강한 극적정황속에서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시보안서장 리명식의 시점을 통하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심, 수령님의 뜻대로 새 민주조선건설에 모든 사람들을 한마음한뜻이 되어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주시는 어머님의 형상을 감동깊게 창조하고있다.

리명식은 해방전 감옥살이를 해보았을뿐 법일군으로서 아무런 경험도 가지고있지 못한것으로 하여 해방된 조국의 복잡다단한 환경에 맞게 무슨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보안서원들은 일제경찰처럼 인민들에게 호령하며 우쭐떨거릴것이 아니라 인민의 총복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을 사랑하자! 이것이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뜻이라고 리명식과 보안서원들을 차근차근 깨우쳐주신다.

작품은 김정숙동지께서 차성숙을 병원에까지 입원시켜 치료해주시고 그의 오빠를 찾아 만나도록 해주시는 헌신적인 사랑의 세계와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사상에 공감하여 해방후 처음으로 구워낸 벽돌을 새 조국건설에 써달라고 회사하는 벽돌공장주인의 형상 등을 통하여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실천으로 구현해나가는 어머님의 숭고한 형상을 다각적이면서도 립체적으로 강하게 부각하고있다.

이러한 형상은 한 기술자청년의 마음을 움직여 방송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자기의 지혜와 기술을 다 바치도록 이끌어주신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감

명깊게 보여준 단편소설 《노들강변》(정중신 작), 면위원장 길한덕이 호조미운동이라는것을 벌려 농민들의 식량을 강제로 모아들이는것을 바로 잡아주신 어머님의 형상을 화폭에 새긴 단편소설 《경암에서의 하루밤》(리영환 작) 등 많은 작품들에서 생동하게 묘사되여있다.

단편소설집 《해빛》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이시야말로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시며 헌신의 정화이시라는것을 격조높이 구가한 형상적화폭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였으며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하여 헌신의 정을 다 기울이시였다. 어머님은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신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애의 자애로운 해발이시였다.

자연의 태양은 만물에게 빛을 주고 자연의 모든것을 키워주고 소생시키기는 하지만 그 빛에는 춘하추동 사계절에 따라 구름이 끼고 안개가 덮여 그들이 지고 가리워지는 때도 있는것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그 어떤 천치조화에도 구애됨이 없이 우리 인민모두에게 따사로운 사랑의 빛을 안겨주시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의 영원한 해발이시다.

그 해발은 나라없고 돈이 없어 앓고있는 어머니를 봉양하느라고 병어리아닌 병어리가 된 한 소년의 운명에도(단편소설 《부전령을 넘어》 조권일 작), 할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약초캐러 갔다가 아버지가 죽은 무서운 수림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던 나 어린 처녀 수옥이에게도(단편소설 《새벽》 리계심 작), 어머님의 사랑속에 자기 이름을 찾고 협주단에서 무용을 하고싶던 희망을 마음껏 꽃피워가는 영숙에게도(단편소설 《새봄의 메아리》 조창근 작) 비쳐주는, 이 나라의 모든 불쌍하고 어진 사람들 누구에게나 그늘없이 비쳐주는 따사로운 태양의 빛발인것이다.

단편소설집에 들어있는 모든 작품들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단편소설 《고향》(류정옥 작)과 단편소설 《산촌의 봄날에》(리웅수 작)는 우리 인민의 생의 은인, 영원한 태양의 해발이신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켜인 구성과 생활에 대한 진실하고 깊이있는 묘사, 등장인물들의 개성적인 성격과 극적정황에 대한 깊이있는 탐구, 특색있는 묘사로 안받침함으로써 사람들의 심장에 감동의 걱정이 세차게 파도치게 하고있다.

단편소설 《고향》에서는 시녀맹일군 허예란

의 시점을 통하여 조사직장의 기능공 차선녀를 새 민주조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주신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인간애와 헌신적인 사랑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황지주의 행랑살이머슴군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장마철 큰물때 황지주님의 강박에 논란으로 쓸어드는 큰물을 막으려고 모래가마니를 메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한날한시에 숨지고 행랑방에는 14살난 차선녀와 9살난 동생 차선희만이 남았다. 황지주님은 차선녀를 직공모집거간군놈에게 팔아넘기어 동생 차선희만이 남게 하였다. 애오라지 언니만을 의탁하고 살아가던 철없는 소녀애는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발버둥치다가 그만 왜놈의 자동차에 치워 절름발이병신이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차선녀는 기어이 동생이 있는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으숙진 곳의 담장을 뚫고 탈출하려 하다가 그만 보조놈에게 잡혀 갇은 악행을 다 당한다.

차선녀는 해방을 맞자 동생의 생사를 알고 싶어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다. 허예란이 여러번 설복했으나 그의 마음을 도저히 돌려세울 수가 없었다. 지배인까지도 어찌는수가 없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런 가슴아픈 사연을 안고있는 차선녀를 뜨거운 정으로 품어 주시고 그를 동생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보내도록 하신다. 그후 차선녀는 공장을 아예 떠나갔던 네명의 기능공처녀들까지 데리고 공장으로 다시 돌아온다. 공장을 자신이 주인이 되어 가꾸어가야 할 고향으로 여기며 크나큰 사랑의 품,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온것이다.

이처럼 작품은 해방전 갇은 천대와 멸시, 설움과 아픔을 숙명처럼 감수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던 우리 인민, 차선녀와 같은 처녀를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극적인 인간관계, 생활에 대한 진실하고 섬세한 묘사로 그리고있다. 또한 허예란의 체협과 주정도로를 통하여 어머니의 뜨거운 인정세계를 감동있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산촌의 봄날에》는 산기슭파수원에 피어난 하얀 배꽃세부를 통하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한없이 고결하고 무한한 인간사랑의 헌신의 자욱을 감동있게 새겨볼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산기슭의 파수원, 구름같이 피어난 하얀 배꽃, 장대기로 나무가지를 마구 쳐갈기는 소년, 노한 얼굴로 소리치는 로인, 소년의 두볼에 질벽한 눈물자욱...

어머님께서서는 소년에게 분명 무슨 곡절이 있다는 생각이 드시어 역수로 퍼붓는 비발속을 헤치시며 그 소년의 집을 찾아가시어 앓고있는 녀동생을 따뜻이 돌보아주신다.

작품은 여기에서 배꽃세부를 형상생리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 소년(인남이)의 동생 인순이가 배꽃이 너무 고와 한송이를 꺾었는데 파수원의 주인인 쪽발이왜놈의 아들놈이 심심풀이로 사랑개를 부추겨 인순이의 어머니를 물어뜯어 죽게 하였다. 어머님께서서는 피멍이 들었던 소년과 녀동생의 가슴에 우리모두는 **김일성장군**님의 한식술이라고 하시며 희망의 봄빛을 안겨주신다.

작품은 이처럼 사건과 정황, 흥미있게 구사된 생활세부들을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신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집중적으로 보여줄수 있게 구성조직에 인입해나감으로써 어머니의 숭고한 인간애에 대하여 감동깊이 형상하고있다.

단편소설집 《해빛》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천대받고 억압받던 우리 인민들에게 사랑과 정으로 재생의 길을 밝혀주신 삶의 은인, 인덕의 해발이시며 인민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로선을 충정으로 받들어어나가도록 교양하고 손잡아 이끌어주신 은인이시라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증한 빛나는 예술적화폭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희생된 동지들의 자식들을 어버이수령님의 참된 아들딸로,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나갈 핵심골간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온갖 지성을 다하시였으며 단편소설 《오늘도 살아계시다》(신진순 작), 《난알의 향기》(안용근 작)를 비롯하여 많은 작품들에서 묘사되고있는바와 같이 해방전에 인간이하의 천대를 받으며 무지와 몽매속에서 헤매이던 사람들, 식민지 지식인으로 갇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온 지식인들과 수공업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로선을 받들고 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의도대로 일해나가는 일군으로 어엿하게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단편소설 《오늘도 살아계시다》에서는 수령님께서 주신 땅에서 자래운 첫물오이를 그이께 올리고싶어 정히 탄 오이마대를 이고 대안에서 평양까지 수령님댁을 찾아왔던 복실 어미(리만옥)에게 김정숙동지께서 글을 배워주시고 온 마을 녀인들도 다 문맹을 퇴치하도록 하는데 앞장서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내용을 감명깊게 그리고있다. 어머니의 따뜻하고 다정한 이끄심과 사랑은 《복실 어미》라고 불리우던 그를 무지와 몽매에서 벗어나 새 조국의 열성농민, 녀성일군 만족으로 다

시 태어나도록 하였고 그는 리녀맹위원장으로, 공화국의 첫 대의원으로 자라난다.

참으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진정 가난과 무권리속에 신음하고 설음에 멎들었던 이 나라 녀성들에게 광명의 새아침을 마련해주시고 새시대의 일군으로 키워주신 운명의 밝은 해발이시였다.

이 철리를 밝힌 여기에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적 감화력과 어머니를 못 잊어 그리워하는 우리모두의 심장속에 오늘도 살아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더욱 뚜렷이 새겨지는 형상의 여운이 있는것이다.

단편소설 《난알의 향기》(안용근 작)에서는 천수답에 매달려 하늘에만 명줄을 걸고 살아가던 유근성로인과 녀맹일군 진옥의 형상을 통하여 김정숙동지께서 버림받고 천대받던 이 나라 농민들을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라나도록 이끄시여 양수기를 놓고 물길을 썰어 언제나 풍년을 가져오도록 하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고있다. 그리하여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힘있는 인민으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신 김정숙동지에 대한 형상을 감명깊은 정서적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특히 작품의 마감에서 (아, 김정숙동지, 바로 저 순간을 안아오시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다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보십니까, 저 장엄한 모습을! 산천초목도 기쁨에 흐느끼는데 어찌하여 녀사께서는 못 오십니까. ... 아니, 녀사께선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 감격의 눈물짓는 농민들속에, 해빛보다 밝은 웃음을 띄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몸가까이에, 저 기쁨안고 출렁이는 풍년이삭들의 파도속에 녀사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라고 심장으로 웨치는 진옥의 격동적인 토로는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의 파도를 끝없이 설레이게 한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기념 단편소

설집(5) 《해빛》은 잊을수 없는 전설같은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단편소설 《옥색고무신》(한성호 작), 단편소설 《봄하늘》(동의희 작)과 아동단편소설들인 《한주일》(리동섭 작), 《붉은 진달래》(길성근 작), 《첫걸음》(리혁민 작) 등이 실려있는것으로 하여 단편소설집의 다채로운 면모를 더욱 풍부히 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생애에서 있는 사실을 감명깊은 예술적형상으로 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독특한 감화력을 가지고 단편소설집을 특색있는 양상으로 풍만하게 하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애석하게 우리결을 떠나신지도 6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해마다 9월이 오면 어머니에 대한 못 잊을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가슴끓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김정숙동지의 한생은 참으로 아버지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의 한생이였고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한 헌신의 한생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심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신 김정숙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주체혁명위업의 필승불패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하기에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김정숙동지를 못 잊어 그리며 항일의 녀성영웅, 백두산의 녀장군,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오늘 우리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번영기를 펼치기 위한 혁명적대고조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그 무궁한 번영의 길우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충정의 해발은 영원토록 휘황찬란한 빛을 뿌릴것이다.

상 식

지구의 운동속도

지구는 한가지 운동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운동을 동시에 하고있는 천체이다. 즉 자전축주위로의 자전운동, 태양둘레에로의 공전운동, 태양계와 함께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전운동 그리고 이 은하계와 함께 별무리내에서의 운동을 한다.

지구의 자전속도는 적도상에서 1 670km/h이며 랑극지방에서는 0이다.

태양주위를 도는 공전속도는 평균 108 000km/h이며 태양계와 함께 은하계중심을 도는 회전운동속도는 약 900 000km/h이다. 은하계중심을 한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억 5 000만년 걸리며 지구에서부터 은하계 중심까지의 거리는 2만 6 000광년이다.

은하계와 함께 별무리중심을 돌아가는 운동속도는 약 108만km/h이다.

영원한 친위전사

김길성

가슴속 그리움에 산천도 불불어서인가
단풍도 불타는 9월
수도에서 천리 또 천리 먼곳
여기 신파에 오신 어버이수령님
남산의 언덕에 모셔진
김정숙어머님 동상을 찾으시었네

항일의 그날에나 오늘에나
언제나 변함없는 친위전사의 모습으로
북변땅 먼곳에서 수령님을 맞이하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남산의 언덕을 내리시여 한달음에 달려가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실듯

세월이 기다리던 뜻깊은 상봉
력사가 듣고싶던 뜻깊은 대화
온 누리는 밝은 빛 여기에 모아오고
산천은 숨죽이고 귀를 기울이는데

어머님동상앞에
걸음을 멈추신 어버이수령님의
뜻깊은 심중의 대화여
—정숙동무 내가 왔소
동무는 어제 또 오늘도
친위전사의 그 모습 변함없구만

수령님의 심중의 말씀여

어머님의 얼굴에 피어나는 기쁨의 미소
수령님께 정중히 드리는 말씀이어
—수령님!
태양이 있어 해발이 있듯
이 정숙이는 언제나 수령님 받들어
전사의 도리를 다하고있을뿐입니다

해쫄는 아침이면
평양하늘 우러러 수령님안녕위해 인사드리고
수령님 찾아가시는 령길과 초소길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구내길과 포전길들에
안녕만을 바라신 어머님의 마음
언제나 수령님과 함께 계신 어머님

한생 친위전사의 모습으로 삶을 빛내는
어머님을 못 잊어
어머님의 불멸의 자욱이 빛나는
신갈파나루며 석전양복점 광선사진관...
모두 돌아보신 어버이수령님

아, 그날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모자를 정중히 벗어드시고
한손에 총을 억세게 틀어쥐신 그 모습은
어제도 오늘도 천리 먼곳에 있어도
어버이수령님 몸가까이에 계시는
빨찌산 친위전사의 영원한 모습이었네

배낭속에 총탄만이

로옥선

고콜불...
토스레웃...
보습도 대보지 못한 발
가난과 억압에 짓눌린
신사동 처서군들의 집

어머님께선 가슴아피 둘러보시였다
한치한치 불바다 피바다를 넘어
목숨으로 길을 열어 찾아온
조국의 모습이 너무도 눈물겨워

어머님은 서둘러 푸시였다
머나먼 진군길에 소중히 지고온
빨찌산의 배낭
엄마 잃고 우는 아기와 같은
겨레에게 소생의 숨결 주고싶으시여

꽃처럼 피어야 할 귀여운 아이
처서군의 딸을 품에 꼭 안으신채
혈육의 정 아낌없이 부어주시였다
머리도 곱게 빗어주고
터갈라진 손에 크림도 발라주고

끓주림에 시달려
 툭툭 부은 얼굴들을 차마 볼수 없어
 생눈을 삼키면서 아껴온
 빨찌산의 군량미로
 끼니를 끓여주신 어머니

그래도 그래도 못다 주신 정이 있어
 행여나 혹시나마 무엇이 있는듯
 자꾸만 자꾸만 배낭을 더듬으시는
 빨찌산녀장군 어머니의 손에
 잡히는것은
 오, 배낭속에 간직한 총탄

어머님은 으스스리지도록 그러하시였다
 사랑과 인정만으로도 줄수 없는
 겨레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원썬들에게 퍼부어야 할 총탄

어머님은 더 억세게 그러하시였다
 압록강을 넘어온 빨찌산의 총탄
 자유의 종소리로 해방의 전승가로
 대홍단벌에 섬멸의 우뢰로 터칠
 아, 선군총대의 무자비한 총탄을

조국과 더불어

김 정 순

칠없던 시절에
 나의 다정한 어머니시여
 다 자란 오늘에
 더욱 귀중한 어머니시여

어릴적 내 바라던것
 무엇이나 다 안겨주던 그대
 병사시절 참호속에 날마다 찾아와
 찬이슬 함께 맞던 그대
 검은 머리 회여가는 오늘에
 나의 열정의 시와 노래인 그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시련을 뚫고
 굶핍없이 애끓없이
 행진곡을 부르며 가는 그대의 선군길이
 너무도 자랑겨워 갈수록 후더운 가슴

설사 그대 가는 앞길에
 천만길 격랑이 막아선대도
 이 아들은 끝까지 따르오리다
 그대의 변함없는 향로
 그대의 한결같은 목표
 그대의 힘찬 구령을

같이 가오리다
 어릴적 험한 산길 나서면
 어머니손을 더 힘껏 잡던 그 마음으로
 같이 가오리다
 그대의 한 공민
 그대의 보통병사로
 그대의 기쁨에 함께 노래하고

그대의 분노에 함께 분노하며
 그대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며...

조국이며 령을 주십시오
 그 어떤 령이라도!
 그러면 내 어느때든 떠나리다
 진펄길 가시밭길이든
 순간도 망설임없이

그대 날더러
 이름모를 첩첩산중에
 하나의 철탑으로 서있으라면
 나는 거기 뿌리 내리리다
 눈비속에 바람속에 묵묵히 그대를 받들며

그대 날더러
 어느 외진 발전소언제에
 하나의 자갈로 굳어지라면
 나는 거기 묻혀있으리다
 그 맑은 물결에 몸과 마음 씻으며

그대 날더러
 전장의 화염이 되라면
 나는 불이 되어 불덩이 되어
 그대 가리키는 곳 저기
 원썬의 화점에 날아들리다

평범한 그날에
 나의 고마운 어머니시여
 준엄한 오늘에
 나의 훌륭한 어머니시여!

수령형상서정시창작에서 품위있고 독창적인 구성형식에 대한 생각

최 송

…태양은 순간에 자기의 빛과 열로 온 우주를 가득 채운다. 그 찬란한 해발과 뜨거운 숨결과 그 격렬한 기상을 손색없이 그려내기엔 우리의 붓대가 너무도 작고 가벼운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선군혁명문학은 그러한 거장의 붓대를 버리어냈다. 절세의 위인이 백두의 용암에 잠그어 버리어낸 주체의 붓대포로 우리 작가들은 선군시대의 하늘높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힘찬 수령형상문학의 줄기찬 축포를 쏘아 올렸다. …

수령형상서정시창작에 대한 자그마한 견해를 쓰자고 하니 언젠가 본적이 있는 어느 한 작가의 이 글구절이 문득 떠오른다.

우리의 수령형상문학의 줄기찬 축포의 한가닥이기도 한 수령형상서정시문학.

그 줄기찬 축포에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휘황한 빛을 보태기 위한 우리 시인들의 노력은 날을 따라 더욱 강렬해지고 활발해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구성작업에 기울이는 작가의 노력이 크면 클수록 작품은 훌륭한 결실을 맺을수 있다.》

수령형상문학형태가운데서 서정시형식은 제일 작은 형식이다.

하지만 형식이 작다고 하여 수령형상의 웅장함과 칭송의 열도가 결코 그릇만큼 담겨지는것은 아니다. 때문에 수령형상서정시에도 큰 형식의 작품 못지 않게 수령의 위대성의 숭엄함과 웅건함을 담아나아가야 하며 그러자면 구성형식에 대한 탐구를 깊이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때때로 수령의 위대성이 주는 감동을 그대로 펼쳐놓기만 한 그런 시들이 창작되기도 한다. 이것은 다 수령의 위대성이 안겨주는 감동에만 머무르면서 그 감동을 보다 깊이있게 토로하기 위한 구성작업에 힘을 넣지 않은 결과이다.

수령형상서정시창작에서 품위있고 독창적인 구

성형식을 탐구하자면 무엇보다먼저 서정적주인공의 감정론리를 잘 따르는것이다.

서정시의 구성은 본질에 있어서 종자를 꽃피우는 뜻깊은 정서를 발전시켜나가는 감정정서의 흐름조직이라고 할수 있다. 시형상창조과정에 흐르는 전반적인 감정흐름은 서정적주인공의 감정론리에 따르게 된다.

그것은 서정시에서는 소설이나 극문학에서처럼 인물관계나 이야기줄거리발전과정을 그리는것이 아니라 주로 감정선을 따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에 기초한 감정흐름의 짜임새로 되기때문이다.

역시 수령형상서정시에서도 품위있고 독창적인 구성형식을 탐구하자면 어떤 형식미를 추구하기 전에 수령의 발자취앞에서 감동이 된 시인의 감정론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수령형상서정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열렬하고 뜨거운 감정세계가 서정적주인공의 체험과 결부된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놓고볼 때 《조선문학》잡지(2012년 2호)에 실린 두편의 시(《장군의 눈물은 뜨겁다》,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들이 바로 수령형상서정시창작에서 품위있고 독창적인 구성형식의 본모기를 보여주었다고 말할수 있다.

시 《장군의 눈물은 뜨겁다》(김효봉)에서는 흥겨운 CNC노래가 장대를 울릴 때 뜨겁게 눈물지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을 우러르는 서정적주인공의 시점에서 그이에 대한 전체 천만 군민의 매혹과 흠모의 감정을 격정적으로 잘 펴내고있다.

시에서는 흥겨운 노래와 위인의 눈물이라는 강한 대조를 통하여 우리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적품모, 위인의 감정세계를 훌륭하게 형상하였다.

흥겨운 CNC노래가 장대를 울릴 때
누구나 어깨들씩 웃음 절로 지을 때

나는 보았노라 단 한분
우리 장군님의 눈굽 뜨겁게 젖고있음을
...

흥겨운 노래가 울리는 장내에서 고난 많고 시련에 찌던 파란만장의 사연을 담고있는 눈물을 지으시는 장군님의 심중에 대해 《가슴속에 푹푹 피가 맺혀 떨어지는/그 아픔을 절감한 장군님 심장만이/그 모진 진통을 다 이겨낸 장군님의 심장만이/》 안아올수 있고 추억할수 있는 무게라고 위인의 눈물의 무게, 위인의 숭고한 감정을 철학적으로 품위있게 형상한 여기에 시의 감흥력이 있다.

수령형상서정시창작에서 품위있고 독창적인 구성형식을 탐구하자면 깊이있고 립체적인 구성형식을 짜나가야 한다.

시인이 생활과 체험을 통해 잡는 종자에는 반드시 그것에만 적응하는 구성이 뒤따르게 된다.

구성형식의 깊이와 립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인들이 자기 특유의 독특한 형상수법을 탐구하고 리용해야 한다.

자기 특유의 독특한 형상수법이라 할 때 시창작에서 지금까지 리용되어온 형상수법의 능숙하고 적절한 활용에 있다.

우의 시에서 바로 대비, 대조의 수법을 리용하여 수령의 위대성을 체험하면서 받아안은 서정적 주인공—시인의 감정으로부터 전인민적감정으로의 승화를 잘 보장하고있는것이다.

수령형상서정시에서 대비, 대조는 서로 다른 감정정서의 대비, 대조로서 깊이있고 립체적인 구성형식에서 철학성을 보장한다.

바로 이 시에 시인의 시점으로 보는 위인의 과거와 현재, 노래와 눈물의 대조속에 철학적인 사색이 깃들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눈물과 흥겨운 CNC노래, 장군님의 눈물과 서정적주인공의 뜨거운 심장의 노래를 종적, 횡적으로 대조시켜 립체적구성형식을 창조하였다.

구성형식의 깊이와 립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구, 반복법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대구, 반복법은 수령형상서정시에서 서정의 심오성과 감동성을 표현하는데 이바지한다.

서정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차영도)가 대구와 반복법적용에서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주고있다.

...
보라! 그 의로운 인민이
지축을 뒤흔들며 나아가는
이 나라의 **김일성**광장을 보라!

아, 천지를 진감하는
그 만세의 환호속에서 꽃바다속에서
그처럼 그립고 뵈고싶은 장군님을 우러러
두발 동동 구르는 이 나라 사람들의 두볼에
줄줄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라!

그 방울방울의 눈물에서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장군님께 향한 마음 백옥같이 변치 않을
이 나라 인민의 의지를 보라! 맹세를 보라!
...

시에서는 보라!로 력점을 찍는 부분을 세개 련에 반복적으로 주면서 《**김일성**광장을 보라!》, 《눈물을 보라!》, 《의지를 보라! 맹세를 보라!》 등 단계적으로, 점층의 방법으로 주정을 토로하는 식으로 장군님께 향한 우리 인민의 일편단심, 시의 종자이기도 한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철학성있게 훌륭히 토로하였다.

이외에도 수령형상서정시형상의 구체적인 과정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수법에는 련상, 비약, 강조 등의 수법들이 있다.

시인들은 창작 전과정에 자기 식의 독특한 창작수법을 일관하게 관통시켜나가면서 수령형상서정시의 생리에 맞는 시형상을 더 훌륭히 창조해야 한다.

우리의 수령, 우리의 아버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그 위대함의 세계를 몇백, 몇천편의 서정시엔들 다 담을수 있을가.

하지만 우리 시인들은 그 자그마한 서정시에 우리 수령의 위대함의 다문 한 부분이라도 진실하게 담아내기 위하여 자신의 정열과 지혜, 재능을 깡그리 쏟아부어야 할것이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대대손손 수령의 위대성을 노래하고 또 노래하여도 그 격조높은 매혹과 흠모의 메아리는 더 크게 울릴것이니 그 울림을 안고 서정시문학은 자기의 보폭을 더욱 보무당당히 내짚으며 천만심장의 가슴마다에 칭송의 노래를 영원토록 안겨줄것이다.



리 기 창

1

만물이 움트고 꽃을 피우는 봄철이었다.

우리 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을 맞으며 동해기슭에 펼쳐진 진펄을 개간하여 옥토벌로 전변시키기로 결정하고 청년돌격대를 조직하였다.

우리 련결농기계공장에서는 내가 탄원하였다.

파도치는 바다기슭에서 진펄을 개간하는 일이 아무리 어렵다 하여도 나의 희망찬 젊은 시절의 한페지에 빛나는 로력적위훈의 자욱을 새기리라!

새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에 가슴 부풀리우며 나는 마음속깊이 다짐도 하면서 공장동무들의 열렬한 환송속에 렬차에 올랐다.

따스한 봄빛이 비끼 산기슭마다 물기오른 연록색 나무들과 꽃망울이 빨개진 진달래들이 다발을 이루었고 별마다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움트고있었다.

어느덧 렬차가 Ԡ역에 들어서자 나는 급해지는 마음으로 서둘러 가방을 메고 역밖으로 나갔다. 역앞에 세워진 리정표를 보니 개간지까지는 80리나 되었다. 사위를 둘러보았으나 그쪽으로 가는 자동차는 눈에 띄이지 않았다.

벌써 하늘가에는 감빛석양노을이 비끼었다.

나는 걸어서라도 밤중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배심으로 주저없이 씨엉씨엉 걷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내앞에서 산뜻한 돌격대제복을 입고 콧방울을 땀 땀 호리호리한 처녀가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의 차림새로 보아 분명히 개간지로 가는 처녀라고 짐작하고 걸음발을 다우쳐 뒤쫓아갔다.

《저, 혹시 개간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의 곁으로 다가서며 넋지시 묻자 처녀는 경계

하듯 깔끔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떡이었다. 대번에 반가와났다. 함께 가고 푸점 좋게 나란히 걸어가자 그 처녀는 붓초리같은 살넉설밀에서 반짝이는 눈매로 다시금 나를 여겨보고나서 개간지에 가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그렇소. 난 련결농기계공장에서 오는데 동무는 어디서 옵니까?》

《시원림사업소 로동자예요.》

처녀는 나직하나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목직한 배낭을 추스르며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손수건으로 훔쳤다. 보매 그가 몹시 힘겨워하는것 같아 배낭을 메주고싶었으나 처음 만난 사이에 생색을 내는듯 하여 짐짓 그냥 걸어갔다.

연록빛으로 단장된 산기슭을 따라 굽이굽이 뻗어간 길로 걷는 나의 폐부에 청신한 숲향기가 그들먹이 흘러들었다. 길손을 반기듯 산기슭에 다문 다문 망울진 나리꽃아지를 꺾어든 나는 코날개를 벌름거리며 꽃향기를 맡아보고나서 처녀에게 슬쩍 내밀었다. 그러나 처녀는 책망하듯 아무 말도 않고 그것을 받아서 길옆의 땅에 다시 심어놓았다. 그 나리꽃이 다시 살아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처녀의 소행에 저으기 놀랐다.

봄철이면 그 어디에나 흔히 피는 나리꽃 한가지가 무엇이어서 그러는것일까? 하긴 원림사업소에서 화초를 가꾸던 처녀이니 직업적인 타성으로 그럴수도 있으리라. 하다면 것처럼 꽃을 사랑하는 처녀가 아늑한 화원에서 꽃이나 가꿀것이지 왜 바다바람 세찬 개간지로 오는것일까? 원림사업소에서는 남다른 위훈을 떨쳐보지 못하다나니 나와 같은 생각과 열망으로 청년돌격대에 탄원한것일지도 모르리라!

처음 만난 길동무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머리

속에 굴리며 처녀를 따라 얼마간 걸어가는데 느닷없이 검은 비구름이 밀려들며 하늘을 덮더니 봄소나기가 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저마끔 비옷을 꺼내들었다. 처녀는 파란 비옷을 어깨우에 걸치더니 배낭이 젖을세라 손으로 꼭 감싸쥐었다.

사위는 점차 검은 장막을 드리운듯 캄캄해지는데 갑자기 번쩍 벼락이 치면서 우뢰소리가 대기를 흔들었다.

손전지를 켜들고 앞서걸던 처녀가 갑자기 《어마나—》 하고 놀라면서 무춤 멈춰섰다. 앞을 보니 방금 벼락을 맞아 떨어진듯 한 돌들이 길우에 널려있었다.

처녀는 제각 배낭을 벗어 길옆에 내려놓고 비옷으로 꿇꿇 여며놓았다.

그리고는 큼직한 돌멩이에 다가서더니 안간힘을 써서 들어던졌다.

온실의 꽃인줄 알았더니 보기와는 다른걸...

나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그를 보다가 일손을 도와나섰다. 이윽고 온몸이 비물에 후줄근히 젖은채 돌들을 말끔히 치워버린 후 우리는 다시 배낭을 졌다. 처녀의 배낭을 받쳐주는 내 손바닥에 도글도글한 콩알같은것이 감촉되어 나는 배낭안에 든게 혹시 콩이 아니냐고 넌지시 물었다. 처녀는 웃음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러자 나도 모르게 허거뜰 웃음이 새어나왔다.

아무리 돌격대생활이 힘들어지언정 간식용으로 콩배낭을 지고 가다니... 그러고보면 집에서 귀동팔로 자라난 처녀가 험했다.

우리는 또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퍼붓던 소나비는 뜸해졌으나 길이 매우 질척거리서 걷기가 험치 않았다. 이렇게 가다가는 래일 아침까지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것 같았다.

이때 등뒤에서 자동차의 전조등빛이 비치며 경적소리가 울려왔다. 안경테를 추스르며 돌아보니 화물자동차가 오고있었다.

우리를 지나쳐 얼마쯤 달리던 자동차는 비물에 질벽해진 언덕길을 오르다가 그만 한자리에서 헛바퀴질을 하며 모지름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처녀에게 어서 가서 타자고 소리치며 달려갔다. 운전칸쪽으로 달려가며 뒤를 돌아보던 나는 그만에야 멈춰 굳어져버렸다. 처녀가 안간힘을 쓰듯 부릉거리는 적재함뒤에 어깨를 들이미는것이 아닌가.

아니?! 처녀에 대한 감탄과 함께 슬며시 떠오르는 자책감으로 나도 다시 뒤로 돌아가 힘껏 차를 떠밀었다. 얼마후 자동차는 롱트림을 하듯 앙칼진 소리를 지르며 언덕길을 뚫아올랐다. 그제서야 우리를 알아보았던지 운전사가 차를 세우더니 수고했다고 인사를 하며 불편하지만 어서 타라고 막

무가내로 우리를 적재함에 태워주었다.

이때 비구름틈새로 달빛이 비끼면서 처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보름달처럼 동심한 얼굴에 까맣고 긴 속눈썹이며 그밀에서 수정같이 반짝이는 눈, 오똑한 코마루에 꼭 맺힌 입귀머가 매우 단아하고 청신한 모습이었다. 얼굴처럼 마음도 꾸밈없이 순결할듯싶은 믿음이 가는 처녀였다.

나에게는 전혀 생소한감이 들지 않고 늘 보아오던 모습처럼 느껴지었다.

2

나는 청년돌격대로 오던 길에 만난 김진주라는 그 처녀와 한소대에서 일하게 되었다.

개간사업은 이태전부터 진행되고있었다.

우리가 왔을 때는 이미 기본적인 기초작업이 끝나고 얼마 남지 않은 구간에서 갈뿌리를 뽑아 버리는 동시에 감탕을 날라다가 방조제를 쌓는 일이 한창 진행되고있었다.

돌격대에 자동차와 트랙포트가 있었으나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죽탕같은 진펄에서는 도저히 기계수단을 리용할수가 없어 부득불 맞들이며 질통으로 일을 제껴야 했다.

김진주와 한조가 된 나는 보란듯이 감탕을 듬뿍 퍼담고 맞들이의 앞채를 들어친채 쉬임없이 진펄을 누비며 달리였다. 진주는 이를 악물고 끌려오다싶이 하면서도 절대로 뒤채를 놓지 않았다. 우리 조의 경쟁대상은 롱구선수처럼 키가 늘씬한 영철이와 작달막하고 가냘프게 생긴 순희였다. 한고향에서 서로 사랑을 언약하고 돌격대에 나온 사이여서인지 그들은 마음과 일손을 잘 맞춰 감탕운반에서 제일 앞서군 했다.

나는 그들에게 뒤지고싶지 않은 배심으로 혈금 씨금 달리고 또 달리다보니 공장에서 어지간히 굳은살이 앓았던 손바닥에 콩알같은 물집이 튕겨올랐다. 내 손바닥이 이 지경이니 화초나 가꾸던 진주의 부드러운 손은 오죽하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내 일욕심에 사로잡혀 언약한 처녀한테 힘에 부친 짐을 강요하는것이냐 아닌지 하는 걱정을 안고 그날 밤 나는 첫물팔기를 구해들고 녀성병실로 걸음을 옮겼다. 래일부러는 맞들이 앞채가 아니라 뒤채손잡이를 바투 깎아서 들어진 주쪽으로 실리는 감탕무게를 덜어주리라 하는 생각을 더듬으며 나는 우리 병실과 초간히 떨어진 녀성병실쪽으로 스적스적 걸어갔다. 남청색 하늘에 늦대야같은 보름달이 동심 떠올라 사위는 무척 밝았다. 푸르스름한 달빛이 부드럽게 깔린 길

로 걸음을 옮기던 나는 병실마당가의 야외등 밑에 앉아있는 진주의 모습을 띄어보자 무뎠다. 이 밤중에 또 손거울을 꺼내들고 자기의 얼굴을 비쳐 보는가....

진주는 아무리 힘겨워도 설참때면 꼭 호젓한 곳에서 작은 손거울을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었다. 밤에도 저렇게 얼굴모양새나 들여다보는 처녀에게 내가 남다른 마음을 쓴다고 생각하니 부지중 입이 쓰거워났다. 허나 이왕 들고왔던 딸기라도 주고가려는 마음으로 그에게로 다가가던 나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지었다. 한것은 그가 손거울을 보고있는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맞들이손잡이에 고무जू브같은것을 탐탐하게 덧씌우고있었던것이다. 그것도 내가 잡던 앞채에는 좀더 두툼하게 감싸며 감촉이 어떤지 알아보는양 몇번이고 쥐어보고있지 않는가.

그 광경을 바라보는 순간 나의 마음은 감동으로 서서히 더워지기 시작했다. 나를 위해 저렇듯 원심을 기울이는 그를 새삼스러운 눈길로 굽어보던 나는 목이 꼭 잠긴 어조로 <진주동무...> 하고 부르며 빨간 딸기봉지를 내밀었다. 그러자 진주는 자못 놀라더니 인차 이슬에 젖은 머루알같은 감장눈을 반짝이며 도드룩한 입가에 얹은 미소를 지었다.

《어마나, 이진 어디서?... 벌써 딸기가 익었군요.》

진주는 먹음직스럽게 익은 딸기의 달콤한 향기를 한참동안 들이켰다. 그러나 한개도 입에 대지 않고 방싯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순희동무가 요즘 감기에 걸려 입맛을 잃었는데 이걸 주면 달게 들거예요.》

《그래두 한개라도 맛보지. ...》

나는 동무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 감동은 되면서도 내 성의를 받아들이지 않는것이 한편으로 섭섭했다.

《성호동무, 이 맞들이손잡이를 잡아보세요.》

진주는 방긋 웃으며 고무जू브를 정성껏 씌운 손잡이를 가리켰다. 손잡이를 쥐어보니 부드럽고 폭신한 느낌이 손바닥에 후덥게 느껴졌다.

《어때요? 이제부터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감탕을 나눌거예요!》

진주는 어느 사이에 내 손바닥의 물집을 엿보았던 모양이다. 방긋이 볼우물을 지으며 맞들이채를 마주 들여보았다. 결국 그날 나는 작은것을 들고왔다가 도리어 그 처녀한테 한꼴을 먹은셈이 되었다.

다음날부터 진주의 따뜻한 마음이 어린 맞들이에 감탕을 가득 담고 달음질치면서도 손바닥에 물집은커녕 그닥 힘든줄도 몰랐다. 어쩐지 이제 와서 내가 진주를 이끌어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에게 끌려가는것이 아닌가 하는 손상당한 자존심이 아렴풋이 꿈틀거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쨌든시간에 우리는 경쟁에서 영철이와 순희네 조를 누르고 앞장에 섰으며 속보판에는 <리성호, 김진주>라는 이름이 혁신자로 나란히 나붙게까지 되었다.

지내보니 진주는 일을 잘할뿐아니라 보기 드문 락천가이기도 하였다.

진주는 맞들이를 들고 설새없이 뛰어다니다가도 설참이면 하모니카를 멋들어지게 불어대며 흥겨운 노래와 춤판을 펼쳐놓곤 했다. 그리고 감탕을 퍼담을 때 갈게들이 피난처를 찾아 황황히 달아나는것을 보면 마치 시를 읊듯이 <용서해다오, 갈게여! 네 살던 이곳에 오곡백과 주렁지려니 새 보금자리로 가다오!> 라고 시를 읊조리기도 하고 비릿한 감탕을 두손으로 움켜쥐고는 <너는 머지않아 황금나라 물결칠 옥토벌의 밀거름이 될지어라!> 라고 환희와 랑만에 넘쳐 웨치며 감탕을 꽃보라처럼 머리위로 휘뿌리기도 하였다. 그의 얼굴에서는 언제나 웃음이 떠날줄 몰랐다. 하지만 한가지 이해할 수 없는것은 진주가 때때로 남몰래 손거울을 꺼내 보다가도 내가 다가가면 얼른 주머니에 넣곤 하는 일이었다. 혹시 그와 사랑을 약속한 청년이 기념품으로 준것이어서 애인이 그리울 때마다 손거울을 꺼내보는것이 아닌지 해서 나는 어느날에는 싱겁게도 그에게 애인이 있느냐고 슬쩍 물었다. 그러자 진주는 펄쩍 뛰며 되려 반박을 들이댔다.

《어마나, 애인이라니요? 아직 그런 생각조차 해본적이 없는걸요. 이제보니 아마 성호동무한테 이미 약속한 처녀가 있는 모양이지요.》

그가 눈을 새물거리며 되묻는 말에 나는 황황히 도리머리를 저었다.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우리 사이는 더욱 친밀해지었고 감탕나르기에서는 여전히 앞장서고있었다.

3

이곳 날씨는 바다기슭이어서인지 몹시 변덕스러웠다. 뜨거운 땡볕에 진펄이 죽가마꺾듯 하기도 하고 세찬 바다바람이 모래알을 뽀얗게 휘뿌려 눈조차 뜰수 없게 하는가 하면 갑자기 먹장구름이 하늘을 덮으며 소낙비를 퍼붓곤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때아닌 무더기비로 하여 무르팍까지 빠지는 진펄속에서 맞들이를 들고 감탕을 나르자니 힘은 곱절 드는 반면에 작업실적은 점점 떨어지기만 하였다.

나는 맞들이가 아니라 다른 운반수단으로 감탕을 쉽게 나룰수 없을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나에게는 언젠가 예술영화의 화면에서 본 소금밭에서 삭도를 নিয়ে 소금을 나르던 모양이 문득 떠올랐다. 순간 후두둑 뿜어내는 가슴을 다잡으며 나는 진주와 한번 의논해보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진주는 맞돌이에 걸터앉아서 무엇인가 정신없이 들여다보고있었다. 또 손거울인가.

이런 상황에서 손거울을 보고 앉아있다니?

오늘은 좀 손거울에 무슨 내용이라도 있는가 물어보자 하고 다가가는데 진주의 손에 들려있는것은 의외에도 손거울이 아니라 매생이같은 배모양을 그려놓은 수첩이었다.

나는 진주에게 삭도에 대한 생각을 터놓았다.

그러자 진주는 욕망은 좋지만 아이보다 배꼽이 큰 격이라면서 삭도바가지와 삭도줄을 마련하는것도 어렵지만 개간지의 곳곳에 지지대를 세워야겠으니 실리성이 없다는것이였다.

하지만 나는 그대신에 우리가 힘내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작업능률을 훨씬 높일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박하였다.

잠시 입을 다물고있던 진주는 삭도보다 다른 방도를 생각해보자면서 내가 련결농기계공장에서 갖가지 농기계를 만들었을테니 모내기철에 수령논 같은데는 트랙토르를 어떤 방법으로 리용하는지 잘 알것이라고 물었다.

나는 기억을 더듬다가 트랙토르고무바퀴대신 날개식외바퀴를 달고 밑에다는 수령논에 빠지지 않도록 매생이같은 띄우개를 만들어 붙인다고 했다.

그러자 진주는 손뼉을 치며 환성을 터뜨렸다.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보면 어때요? 그러면 거기에서 〈감탕배〉를 주련이 련결해서 쉽게 운반할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기발한 착상이였다. 그러고보면 진주가 수첩장에 그려보던 매생이는 배놀이를 위한것이 아니라 감탕운반에 받아들일 멋들어진 창안품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나는 얼굴 뜨거워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의 제안은 내가 생각하던 삭도보다 로력과 자재를 적게 들이면서도 실리성이 있는것이였다.

나는 그한테 한수 떨어졌다는 아쉬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런데 진주는 뜻밖에도 소대장한테 제기해서 자기가 내 뒤통까지 감탕을 나를테니 그대신 설계도면을 그려보라는 말까지 하였다. 물론 나를 내세워주기 위해 그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선뜻 대답할수 없었다. 한것은 내가 공장기능공학교에 다닐때 설계기초를 배우기도 하고 후에 직장에서 몇건의 기술혁신에 참가하면서 일부 스케치정도는 해보

았으나 전문가들이나 할수 있을 도면을 그려보라니 왜서인지 자신심이 생기지 않았다.

나는 확답을 못한채 얼마간 망설이고있었다. 그런데 력기선수처럼 다부진 몸집을 가진 팍삼소대장이 나를 부르더니 이제부터 진주의 의견대로 도면 그리는데 달라붙으라고 명령조로 말하였다. 내가 변명하려고 하자 제대군인인 소대장은 엄격히 말했다.

《동문 군사복무를 못한게로구만. 전사는 상관의 명령에 오직 〈알았습니다.〉 밖에 몰라야 하오!》

별수없이 나는 다음날부터 설계도면을 붙들고 씨름질하게 되였다.

그러던 어느날도 나는 병실에서 학습장과 원주필을 꺼내놓고 머리를 싸뼌채 모대기고있었다.

이때 문기척소리에 이어 진주가 가쁜숨을 몰아쉬며 배낭을 메고 들어섰다. 그는 배낭에서 배무이에 대한 참고서적들이며 제도기, 설계도구들을 꺼내놓았다.

나는 그의 이마에 송글송글 내뿜는 땀방울과 충혈진 눈을 보고 온밤을 지새우며 그것들을 구해가지고오는 길이라것을 알수 있었다.

《그럼 성호동무의 솜씨를 한번 보이세요.》

진주는 나더러 간식삼아 들라면서 닭은 강냉이 봉지까지 내놓고 사라지였다. 그러나 나는 굳어진듯 서서 그가 사라진 문쪽을 지켜보았다. 하루빨리 이 개간지공사를 끝내고픈 일념이 얼마나 불타오르면 처녀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기울이라. 나의 마음속엔 동시대청년으로서의 자각과 사내로서의 자존심이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저 진주라는 처녀를 위해서라도 땀뻑하게 무엇인가 내뿜고 있는 창조물을 내놓고싶었다.

드디어 그날은 왔다.

내가 있는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쏟아부으며 수산사업소에까지 찾아가서 방조를 받아 작성한 발명안에 기초하여 온 소대원들이 달라붙어 마침내 트랙토르밑에 설치할 띄우개를 제작한것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섰던 감탕운반을 무서운 속도로 해제했고 청년돌격대원들의 사기는 더없이 의기양양했다.

결과 감탕운반이며 해안방조제쌓기며 내부망공사며 흙깎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소대가 말은 1단계목표를 앞당겨 끝내게 된무렵이였다.

우리들은 산기슭의 진흙을 날라다가 배수로의 보둑을 쌓는 작업을 하고있었다.

휴식참에 진주가 언제 지나왔는지 불룩한 배낭끈을 풀면서 소리쳤다.

《자, 동무들, 이걸 한줌씩 받으세요!》

진주가 얼굴에 웃음꽃을 방실방실 피우며 배낭

에서 꺼내드는걸 보니 뜻밖에도 알알이 여문 콩알들이었다.

《아니, 이젠 생콩이 아니야?!》

나뿐아니라 소대원들모두가 콩을 한줌씩 받아 들고 의혹이 담긴 눈길로 진주를 바라보자 그는 여전히 웃음을 남실거리며 말하였다.

《우리의 구슬땀이 습배인 여기 보퉁에 콩을 심어보자는거예요!》

우리는 뜻하지 않은 진주의 말에 모두가 《와—》하고 환성을 올렸다.

《좋소.》

이때 키다리 영철이가 머리를 기웃거리며 혹시 소금기가 내뿜수 있을지 모르는데 콩을 심어도 일없을가 하고 중얼거렸다.

이때 나는 진주의 제기를 적극 지지하고싶어 선뜻 나서며 말했다.

《이 보퉁은 감탕이 아니라 진흙을 날라다 쌓았으니 소금기 영향을 받지 않을겁니다. 더우기 콩은 다른 작물보다 생활력이 강하기때문에 일없을거구요!》

내 말에 광삼소대장이 응수했다.

《웁소. 지난날 광포호수를 개간하고 거기에 콩만이 아니라 벼까지 심어서 위대한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린 일도 있소.》

그러자 진주가 다시 말했다.

《그래요. 녀려말고 어서 심자요.》

진주는 콩을 보퉁에 정성들여 알알이 심기 시작했다. 그러자 모두가 그의 뒤를 따라 줄줄이 콩을 심었다.

그들과 함께 콩을 심어가는 나의 가슴속에 뜨거운것이 밀물처럼 차오르며 안경알이 뿌옇게 흐려지었다.

처음 만났을 때 보았던 소낙비에 콩배낭이 젖을 세라 비웃자락을 꼭 감싸쥐고 걸어오던 그의 모습이 다시금 눈앞에 밝혀왔다.

꼭 무슨 사연이 있는 콩같았다.

나는 그 사연은 알수 없었으나 진주의 소행으로 하여 가슴밀겉에서 고패치는 뜨거운 걱정을 담아 콩을 정성들여 심었다.

4

우리 소대는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총공격전을 드세차게 벌려 간석지마감정리를 앞당겨끝낸 후 제방에 장식입히기작업을 맡게 되었다.

이번에도 우리 소대는 돌격대적인 경쟁에서 앞자리를 차지할 결심이었다. 했으나 수리산에서 캐여쓰던 장식원천이 밀창나기 시작하고 쪼박돌만

남게 되자 장식쌓기속도는 날을 따라 떨어지었다. 그러니 새로운 장식원천을 찾아야 하였다.

모두가 떨쳐나 여기저기 수소문해본 결과 물에서 얼마간 떨어져있는 알섬에 질 좋은 장석이 있다는것을 알았다. 하지만 알섬에서 장석을 실어올 배가 우리한테 없으니 그림의 떡처럼 생각될뿐이었다. 저녁무렵 나는 어데서 배를 구할수 있을가 하는 생각에 옴한채 알섬이 바라보이는 바다가로 걸음을 옮겼다.

서늘한 바다바람에 물결은 일렁이고 모래불가에 다문다문 피어난 해당화는 춤추듯 설레었다.

나는 얼마쯤 걸어가다가 바다가에서 해당화의 향기를 맡으며 어깨나란히 앉아 무엇인가 다정하게 속삭이는 영철이와 순희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옆에는 장식감이 무드기 담긴 밧들이가 놓여있었다. 그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스스로 장식들을 찾아보고 모아오는 그들의 아름다운 소행에 나는 무척 감동되었다.

그들결을 지나 스적스적 걸어가던 나는 뜻밖에도 마치 수영선수처럼 바다물을 누비며 헤엄쳐오는 진주의 모습을 띄여보고서 저으기 놀랐다.

갈매기들이 끼룩끼룩 소리지르며 그의 머리우를 빙빙 날아옴다.

멋들어지게 두팔로 물을 가르며 헤엄치는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어제 광삼소대장한테서 진주가 지난날 녀성해안포병중대에서 군사복무를 한 제대군인처녀라고 하던 말을 상기했다.

그런것을 나는 아직까지 온실에서 화초나 가꾸며 일해온 처녀로 알고있었다. 하긴 진주가 누구한테도 그런 말을 입밖에 내지 않았으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광삼소대장도 역시 본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원물자를 가지고 왔던 진주네 기업소사람들한테 들었다는것이다.

녀성해안포병중대에서 복무했던 진주였기에 수영선수처럼 저렇듯 멋들어지게 헤엄치는것이리라.

이윽고 진주가 모래불에 올라섰을 때 나는 바다물에 차분히 젖고 해감내가 풍기는 그의 머리를 눈더듬하며 물었다.

《수영숨씨가 여간 아닌데요.》

《월요, 알섬에 있다는 장석들을 확인해보자고 갔댔어요.》

《아니, 알섬에까지요?!》

《네, 질 좋은 장식감이 정말 많더군요.》

함초롬히 젖은 머리칼을 손으로 비다듬으며 기뻐하는 그의 눈가에 웃음이 남실거렸다.

《그런데 알섬에 질 좋은 장식원천이 아무리 많은들 그걸 실어올 배가 없으니 속수무책인걸요.》

진주가 머루알같은 눈을 깜빡거리며 스스로없이 이렇게 말하자 나는 자못 놀랐다.

어느새 벌써 배 생각까지 하고있었던 말인가! 나의 가슴은 뭉클해졌다.

다음날부터 온 소대가 지혜와 힘을 합쳐 장식은 반선을 무어가지고 알섬으로 건너갔다.

아닌게아니라 알섬에는 질 좋은 장식원천이 무진장했다. 그것을 본 소대원들은 마치 동화속의 보물섬을 찾은 어린이들처럼 환성을 울리며 기뻐했다.

키작다리 영철이가 떡판같은 너럭바위를 함마로 두드리며 벌쭉거렸다.

《이런 장식밭을 우리가 타고왔었으니 우리가 장식입히기에서도 1등은 문제없겠구만. 순희동무, 어서 정대를 잡으라구!》

순희가 쟁싸게 정대를 너럭바위우에 대자 영철이는 흥— 흥— 황소숨을 내뿜으며 함마를 띄메 둘러치듯 했다.

나도 진주와 같이 함마질을 불꽃을 튕기며 세판게 해냈다.

그날은 정말 잊을수 없는 날이었다.

오전작업 휴식시간이었다. 광삼소대장이 느닷없이 《동무들!》 하며 소대원들앞에 나섰다.

무슨 일인가 묻는듯 눈들을 둥그렇게 뜨고 바라보는 소대원들앞에서 광삼소대장이 말하였다.

《털통한 내가 오늘이 김진주동무의 생일날이라 는걸 잊어버리고 특식준비를 못해가지고 왔은즉 점심시간에는 모두들 바다가에 내려가서 섭을 뜯어다가 섭죽이나 푸짐하게 쪼아먹지요.》

《야!》 환성이 터져올랐다. 그러면서 다들 진주를 에워쌌다.

《축하해요, 진주동무.》

《진주동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소대원들이 진주에게 축하의 인사를 하며 바다가로 우르르 내려갔다.

《아이참, 그만들 두세요.》

진주는 얼굴을 빨강게 물들이며 몸둘바를 몰라 했다.

그동안 나는 멍하니 서있었다.

탄원해온 첫날부터 한조를 못하고 많은 날들을 함께 일해온 가까운 동무라는 사람이 처녀의 생일도 몰랐다는 사실이 나자신을 무척 부끄럽고 화가 나게끔 만들었다.

나는 도대체 진주라는 저 처녀의 무엇을 알고있을가. 생김새? 제대군인이라는 그 한가지? 아니면 무슨 일이나 막힘이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말아 제끼는 그 일욕심과 끈진 일솜씨?... 어쨌든 나는 그에게 무척 미안스러웠다.

낮이 화끈 달아오른채 나는 서둘러 바다가로 달

려가서 큼직한 섭과 석굴을 한구럭 따들었다.

이때 영철이가 나한테 섭죽을 쏘 때 함께 깨넣으면 별맛이라면서 불룩한 천주머니를 안겨주었다.

그런데 섬위로 올라와보니 진주 혼자서 팟투성이가 되어 장식감을 손질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이건 뭐요? 생일날에 혼자서?!》

나는 그의 손에서 망치자루를 빼앗으며 그앞에 섭구럭을 내놓았다.

《이거 미안하오. 다음번 생일날엔 봉창할테요.》

그러며 영철이가 주던 천주머니를 헤쳐놓았더니 의외에도 푸릿한 갈매기알들이었다.

《아니, 성호동문 어쩌면 갈매기알을 가져왔어요?》

진주가 그답지 않게 눈총을 쏘며 물었다.

나는 영철이가 성계알을 주는가 해서 그냥 가져왔노라고 변명하려다가 그만 입을 다물었다.

이윽고 진주는 주머니에서 녹이 쓴 총탄깍지를 꺼내보이며 저으기 갈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걸 봐요. 여기에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흔적이 남아있군요. 비록 알섬에 인가는 없지만 이곳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날새들의 보금자리엔 인민군전사들의 고귀한 애국의 땀이 스며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안경테를 매만지며 꺼명게 녹이 쓴 총탄깍지를 떨리는 눈길로 굽어보았을뿐이었다.

《우리가 지금 땀을 바쳐 진펄을 옥토별로 개간하는것도 선렬들이 피로 지킨 조국땅을 더욱 아름답고 기름지게 가꾸고 꽃피우려는것이 아니나요.》

진주는 잠시 입을 다물고 풍치수려한 알섬을 더듬어보더니 담담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더우기 이제 우리가 개간한 땅에 새로운 농장이 생겨나면 이 알섬도 유원지로 꾸려놓을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곳이야말로 일하기도 좋구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될거예요. 절 위하는 성호동무의 마음은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앞날을 그러봐요. 아마 이 알들에서 가까운 갈매기들이 우리가 개간한 벌로 훨훨 날아들지 몰라요.》

시를 읊듯 하는 그의 목소리가 나의 가슴을 뜨겁게 덥혀주며 마쳐왔다.

꿈이 많은 처녀, 그 꿈을 자기의것으로 창조해가는 처녀, 하지만 그날에 진주에 대해 느낀 감정을 내가 후날에도 생생하게 기억하게 될줄을 그때는 다 알지 못했다.

사람은 평범하게 흘러온 백날보다 번개치듯 언뜻 비끼는 한순간일지라도 뇌리에 진하게 새겨진 하루의 일을 더 잊지 못한다.

우리 대대가 드디어 방조제쌓기를 돌격대적으로 제일 선참 끝낸 장마철의 어느날이었다.

소대원들은 붕 기분들이 떠서 서로 부둥켜안고 돌아가다못해 덩실덩실 춤판을 벌렸다.

영철이와 순희를 비롯한 남녀대원들이 쌍쌍이 춤을 추었으나 나는 혼자 짝없는 외기러기처럼 한쪽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왜서인지 진주가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혹시 하많은 기쁨과 슬픔, 고난의 사연들을 안고 고평치는 마음을 건잡을수 없어 제방이라도 거닐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제방쪽으로 나가보려고 막 걸음을 떼었다.

이때 진주가 춤판이 고조되고있는 돌격대병실마당에 상기된 얼굴로 숨을 할싸이며 달려들어왔다.

《동무들!》

홍성거리던 춤판이 물을 뿌린듯 삼시에 잣아들고 대원들의 눈길이 부채살모이듯 그에게 쏠렸다.

진주의 입에서 뜻밖의 호소가 튀어나왔다.

《소대장동무가 제방뚝을 미쳐 쌓지 못한 3소대를 우리가 도와주자고 했어요!》

《아니, 3소대를요?!》

모두가 웅성거렸다.

《그래요. 방금 일기예보에 의하면 동해안에 무더기비와 폭풍이 예견된대요. 만일 3소대구간의 제방뚝을 오늘 밤중으로 마저 쌓지 않으면 큰 피해를 받을수 있어요!》

뒤이어 콕삼소대장이 헐떡이며 달려왔다.

《웁소. 빨리 삼과 맞들이와 질통을 가지고 3소대가 맡은 제방쌓기전투장으로 갑시다.》

우리모두는 힘차게 호응하며 바다가로 달려가 3소대를 도와나섰다.

우리 소대만이 아니라 온 대대가 일제히 펼쳐나 제방뚝쌓기에 힘을 합쳤다.

날이 어두워지자 화불들이 수없이 활활 타올랐다.

《결사옹위!》, 《결사관철!》

막돌과 진흙을 마대며 질통에 가득 담아메고 달리는 대원들의 힘찬 웨침소리가 대기를 흔들었다.

그런데 하늘도 우리 청년들과 겨루기를 하듯 심술궂게도 검푸른 구름들을 시시각각 몰아오고있었다.

드디어 이른새벽이 되자 세찬 바람과 함께 먹장구름이 머리위에 밀려들더니 무더기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집채같은 파도가 제방뚝을 몰

어뜰기 시작했다.

긴급비상조치에 따라 가마니와 마대며 진흙과 막돌을 싣고 자동차, 트랙토르들이 줄지어 달려왔다. 그러나 산악같은 파도가 쉬임없이 덮쳐들며 우리가 쌓은 막돌과 진흙가마니들을 몽청몽청 휘감아가지고는 바다속으로 사라지곤 하였다.

나는 마대를 메고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멈칫 서버렸다.

진주를 비롯한 우리 소대원들이 서로서로 어깨성을 쌓고 사납게 밀려드는 파도를 맞받아 제방뚝을 버티고서는것이였다.

뒤이어 울부짖는 파도소리를 짓누르며 대원들의 입에서 우렁찬 노래가 울려 퍼졌다.

그대가 한그루 나무라며는

이 몸은 아지에 피는 잎사귀

찬바람 불어와 떨어진대도

흙이 되어 뿌리 덮어주리라

아 나의 조국아

흙이 되어 뿌리 덮어주리라

나는 비물인지 눈물인지 앞을 가려 뿌듯하게 흐려지는 안경을 벗어 주머니에 집어넣고 어깨에 묵직한 막돌마대를 둘러멘채 그쪽으로 부리나케 달려가 화점을 막듯이 제방에 가슴을 내대었다.

기다렸다는듯이 포말을 일으키며 산악같이 밀려드는 격랑이 제방을 사납게 들이쳤다. 장석이 와르르 무너져내리면서 내 몸을 덮쳤다.

그만에야 나는 의식을 잃었다.

내가 흐리마리한 혼미상태에서 깨어나 눈을 뜬것은 침대우에서였다.

침대주위에는 위생복을 입은 녀의사와 눈물이 글썽한 순희며 영철이가 있었다.

그들은 내가 의식을 회복하자 안도의 숨을 내그었다.

나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머리와 발목에서 심한 동통을 느끼며 다시 누워버렸다.

《아직은 움직여선 안돼요. 머리엔 타박을 받은 데다가 발목뼈가 골절됐으니까요.》

상냥스러운 녀의사의 말을 듣고보니 내 머리엔 붕대가 칭칭 감겨있고 다리엔 부목을 대었다.

그제야 나는 파도속에 휘말려들 때 타박을 받고 의식을 잃던것을 어렴풋이 상기했다.

눈물을 머금고 서있던 순희가 울먹거리며 말하였다.

《글쎄 성호동무를 누가 구원해서 기슭까지 헤엄쳐나온줄 알아요? 진주예요, 진주동무...》

《뭐라구요? 진주동무가?!》

금시 목이 짝 메고 눈물이 뚫었다.
《진주동문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사위를 둘러보며 물기에 젖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녀의사가 위생모를 벗어들며 말했다.
《진주동무는 도정 형외과병원으로 후송했어요. …》

나는 그날 밤 침상에서 진주에 대한 생각으로 잠 못 이루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제방쌓기전투장의 그 파도 사납던 밤의 진주의 모습이 눈을 감아도 새록새록 눈앞에 안겨왔다.

들이치고들이치는 파도의 갈기를 온몸에 뒤집어 쓰면서도 연약한 몸을 곧추 세우고 노래를 부르던 진주, 정녕 당이 부르는 전투장의 제일 앞자리에 자기를 세우고 온몸을 불처럼 태우며 살던 처녀, 또 동지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운것 하나 없이 양보밖에 모르는 처녀, 그 이름처럼 진주같이 귀한 처녀라 말할수 있지 않을까.

나는 정말 진주가 돋보이었다. 그리고 마음속깊이 차곡차곡 다져온 그에 대한 호감과 정이 강렬한 사랑의 감정으로 끓어올랐다. 그런 처녀와 함께라면! 그런 처녀와 일생을 함께 하는것이 나에게는 더 바랄나위 없는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후 하루가 다르게 나의 몸은 완쾌되어갔다. 개간지공사도 완공되었다.

돌격대원들은 자기 초소들로 떠나갔다.

어느날 팍삼소대장이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하는 말이 머지않아 개간지에 새로운 농장이 일떠서게 되어 자기는 이곳에 뿌리내리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순희와 영철이도 여기에 떨어지겠다고 제기했다는 것이었다.

《성호동문 어떻게 할 생각이요?》

팍삼소대장이 나에게 묻는 말이었다.

그 말에 대답을 하려고 하니 느닷없는 감회에 하여 순간에 가슴이 그들먹해졌다. 나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소대장동지, 저도 정말이지 이 땅에 정이 뚫들었습니다.

여기서 좋은 동지들을 만났고 여기서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은 이 땅이 마치 이제 제 고향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떨어지겠는가 하는 결심을 내리기 전에 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팍삼소대장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는 영민한 사람이었다.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라도 한듯 그는 나에게 말했다.

《해야 할 일이라는게 진주동무와의 일이겠지?》
《…》

《진주동문 정말 쉽지 않은 처녀야. 성호동무, 진주동무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그를 사랑해주라구. 나도 인차 그를 찾아가보겠소.》

팍삼소대장은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6

다음날 이른새벽 나는 가방을 메고 떠나던 길에 우리가 그동안 청춘의 더운 땀을 뿌리며 전변시킨 개간지를 마지막으로 돌아보려고 바다가로 걸음을 옮겼다. 신선하고 부드러운 바다바람에 실려 자오룩이 밀려드는 젖빛안개가 나의 온몸을 구름처럼 축축히 휘감았다. 잠에서 깬 갈매기들(아마 그가운데는 언젠가 알섬에서 진주가 나더러 도로 갖다놓으라던 알들에서 까나온 어린 갈매기들도 있을지 모른다.)이 나에게 작별인사라도 하듯 머리위를 감돌며 끼룩끼룩 우짖는가 하면 일매지에게 장식을 입힌 제방에 검푸른 파도가 포말을 일으키며 처절씩 부딪쳐 은구슬을 휘뿌렸다. 감회어린 눈길로 개간지를 둘러보며 휘적휘적 걷던 나의 발걸음은 지난날 진주와 함께 콩을 심은 보둑앞에 멈춰섰다. 그사이에 벌써 연록색콩포투리가 오롱조롱 달린 콩포기들을 보자 은연중 눈곱이 뚫었다.

진주가 개간한 땅속에 억센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 이 콩포기들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했으랴!

가슴에 파고드는 아릿한 생각에 잠긴채 다시 걸음을 옮기던 나는 개간지쪽에 놓인 불룩한 배낭과 트렁크를 띄어보게 되었다.

아니?! 앞에는 뜻밖에도 채양모자를 쓴 진주가 콩포기들사이에 돌아난 잡풀을 뽑고있지 않는가? 나는 반가움과 놀라움에 가슴이 쿵쿵 방아찡듯 뛴뛰는것을 다잡을새없이 달려가며 목갈린 소리로 웨쳤다.

《진주동무! 이거, 이거 어찌된 일이요?!》

《어마나, 성호동무!》

진주는 나를 보자 허리를 펴며 반색했다.

《나때문에 허릴 상했다더니 어쩔소?》

나는 퍼그나 수척해진 그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의사선생님들의 극진한 성의로 완치됐어요. 그런데 성호동문 아주 떠나는 길인가요?》

진주는 붓초리같은 눈썹밑에서 깜박이는 눈매로 내 어깨에 멘 가방을 여겨보았다.

《내 사실 진주동무에게 가는 길ियो.》

《그래요?!》

진주는 긴 눈썹을 내리깔며 나직이 뇌이였다.

《진주동문?...》

《개간지에 새 농장이 생긴다기에 왔어요.》

《아니, 그래서 다시 왔단 말이에요?!》

나는 눈이 휘둥그레지었다.

《네. 성호동무의 상처는 다 나았는가요?》

《보다싶이 완치됐소. 진주동무, 고맙소. 사실 동무를 만나서 많은 이야길 하고싶었는데 이 말밖에 할말이 없구만.

내가 개척자의 영예를 땀땀하게 지닐수 있게 된 건 전적으로 진주동무의 덕이요.》

별스레 정색한 어조로 말하는 나를 처녀는 밉지 않게 흘겨보았다.

《아이참, 별소릴 다하네. 호호...》

진주는 천진한 소녀처럼 불우물을 파며 깔깔 웃었다.

《진주동무는 정말 이곳에 남을 생각이요?》

한참후 나는 다시금 그에게 물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저는 이곳 돌격대로 나올 때부터 그런 결심을 가졌었어요. 물론 원림사업소에서 화초나 나무를 가꾸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오늘 우리 장군님께서 그토록 마음쓰시는 인민생활향상의 생명선인 이 알곡생산터전이 바로 내가 설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여기가 이제는 내 고향처럼 생각돼요. 많은 추억을 쌓았고 또 성호동무와 같은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진주는 얼굴을 붉히며 말끝을 채 맺지 못했다.

그의 말을 듣자 나는 역시 이 처녀의 생각은 출발선에서부터 내가 가졌던 생각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음을 감득하였다.

그리고 다음순간 진주와 함께라면 나도 떨어지고 싶다는 열망에 휩싸이며 갑자르듯 떠듬거렸다.

《그렇다면 나도, 나도 남으면 어떨가 하는데...》

진주는 얼굴빛이 심중해졌다.

《성호동문 혹시 제가 여기로 아주 온다니까 저를 남달리 생각해서 즉흥적으로 내리는 결심은 아니예요? 저 하나때문에 그런 결심을 했다면 이왕 내친 걸음에 그냥 떠나가세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종전과 달리 쌀쌀한 뎅기가 풍겼다.

《아니 뭐, 그냥 떠나라우요?!》

나는 불시에 실망이 어린 목소리로 되뇌이었다.

소금기 머금은 바다바람과 함께 눅눅한 안개가 화끈 달아오른 얼굴에 마쳐왔다.

《그래요.》 하고 진주가 흘러내린 귀밑머리를 비다듬으며 나직하나 명료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저는 성호동무가 이곳에 남으리라고 생각했었어요. 청년돌격대원들이 몇년동안 애써 개간한 이

땅에 금나락 물결칠 그날의 보람을 안고 강성국가에 때문에 나란히 땀땀이 들어서게 될거라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진주가 서운함을 묵새기듯 말끝을 애써 삼키며 배수로에 흙물은 손을 씻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낼 때 내 눈에 가끔 뜨이던 그 손거울이 꺼물어나와 땅바닥에 툄렁 떨어졌다. 나는 그 거울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놀랐다. 손거울뒤면에는 군복의 앞가슴에 군공메달을 달고 찍은 진주의 사진이 끼워있었다.

나는 진주가 힘겨울적마다 군사복무시절 군공메달을 수여받고 찍은 자기 모습을 돌이켜보며 마음의 탕개를 다잡아왔다는것을 비로소 헤아려보게 되었다.

진주는 콩포기의 잎새들을 어루만지고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진주동무! 혹시 여기에 심은 콩에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게 아니요?》

진주는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추억깊은 눈길로 저 멀리 아침노을이 물들여지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터놓았다.

《난 해안포중대에서 군사복무를 했답니다. 어느해인가 우리 중대의 초소주변에 있는 바다가의 진펄을 개간하고 콩을 심었는데 글썽 포기마다 총알같은 콩꼬투리가 주렁주렁 달리지 않았겠어요. 그 해 뜻밖에도 우리 초소에 찾아오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 콩밭을 돌아보시고 이곳 녀병사들이 바다바람 세차고 파도사나운 바다가에서 조국의 해안을 억세게 지킬뿐아니라 진펄도 자체로 개간하여 콩까지 심은것을 봐도 뜨거운 애국심을 지닌 병사들이라고 분에 넘친 치하를 안겨주셨답니다. 그때의 그 감격이란 참...》

그후 제가 체대되어 초소를 떠날 때 우리 동무들이 기념으로 그 콩을 배낭에 넣어주었어요. 나는 그 콩을 우리 집 터밭에도 심고 제가 배치된 시원림사업소 부업지에도 심었는데 얼마나 실한 콩이 열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로 올 때에도 배낭에 그 콩종자를 넣어가지고 왔던거예요. 어버이장군님의 로고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픈 생각에 이 개간지도 충실하게 살찌우고싶었던 거예요.》

나는 가슴이 뭉클해왔다. 어버이장군님의 뜨거운 애국심에 작은 발걸음이나마 따라서기 위해 모지름쓰는 처녀...

나는 짐짓 감동을 누르며 그의 불룩한 배낭을 가리키며 이번에도 또 콩종자를 가져왔느냐고 물었다.

진주는 의외에도 수종이 좋은 나무씨를 가지

고왔다고 대답하였다.

《아니, 이번엔 콩밭대신 양묘장을 만들자는 거요?》

《앞으로 여기엔 옥토벌의 주인들이 대대손손 살아갈 새 마을들이 생겨날거예요. 그 마을들은 정말이지 세상에 부럽없는 선경으로 될거예요. 그런데 선경에 나무가 없어서 되겠어요. 들에는 금나락 설레고 마을에는 록음 우거지고... 정말 가슴 설레어요.》

진주의 진정어린 목소리에 나는 그만 눈을 습벅거리며 그의 배낭과 트렁크를 두손에 넣춤 든 채 씩씩 씩씩 걸어갔다.

《아니, 어디 가요?》

진주가 놀라며 내뒤편을 따라왔다.

《어데로 가겠소?! 나도 진주동무처럼 영원히 이 개간지를 해마다 오탁백과 주렁지는 기름진 땅으로 가꿀 결심이요!》

진주는 뛰어와 내앞에 마주섰다.

《그렇다면 좋아요. 성호동무, 함께 가자요.》

진주는 정이 담백 실린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성호동무! 우리 청춘들의 위훈과 사랑의 진가는 진심을 바쳐 가꾼 이 땅의 열매가 말해줄거예요.》

《땅의 열매가요?》

《그래요. 귀중한 조국의 땅에 대한 사심없는 사랑의 열매가 말이에요!》

진주는 따뜻한 정이 어린 눈길로 뽀얀 젖빛안개가 아침해살에 서서히 녹아버리는 무연한 개간지를 둘러보며 배낭과 트렁크를 마주 들었다.

나는 그의 모습에서 오늘의 선군시대에 우리 청춘세대들의 참다운 위훈과 사랑이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가를 가슴뜨겁게 절감하며 걸음을 옮겼다.

보기에는 그저 수수하게 생겼으나 얼마나 뜨거운 심장을 지닌 처녀인가! 참으로 진주라는 그의 이름처럼 격랑이는 바다속에서도 비바람 사납고 때없이 오르내리는 밀물에 씻기며 땀별에 죽가마 꿇듯 하는 진필과 감탕속에서도 영원히 변함없이 굳셈과 아름다운 빛을 잃지 않는 진주보석과 같은 처녀였다.

그러고보면 진주는 여기 개간지뿐아니라 내 가슴속에도 얼마나 귀중한 씨앗을 심어준 것인가!

나는 뉘엿는 가슴의 파동을 다잡으려고 애쓰며 진주와 보폭을 맞추었다.

이때 눈부신 태양이 수평선으로 불쑥 솟아오르더니 마치 나의 앞날을 축복하듯 금빛해살을 아낌없이 뿌려주기 시작하였다.

봄순아 또 한번

우 광 복

버들논의 돌피 잡고 천평논에 들어서니
이삭들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구나
너무 기빠 안아주는데도
고개만 숙이고 말이 없구나

부끄러운듯 말없이 고개만 숙였어도
나에겐 어쩔지 말하는것 같구나
이제 두고보라고 통장훈 부르겠다고
가슴을 내밀고 빼기는것 같구나

번개같은 솜씨로 봄철을 감아쥐고
드살군 왕가물도 땀으로 적셨으니
말 못하는 이삭이라고 말하지 말자
웃설에 안겨 채롱부리는 저 이삭

장군님유훈을 포전마다 꽃피우자고
눈물속에 거름 나른 그 진정도 이삭은 알아

한껏 살오르며 고개를 숙였구나
땀흘린 보람이 이삭들에 실렸구나

덥다고 말하면 보도랑도 열어주고
목마르다 말을 하면 보약물도 더 주고파
하루종일 속삭여도 싫지를 않겠다
애인이면 이보다 헤어지기 싫겠니

나라의 쌀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고향별에 모시자고
말을 하면 분명히 고개를 끄덕일게다
총알처럼 영글겠다 말을 할게다

김정은동지의 기쁨 금나락에 어려와
신들메를 더 조이고 땀을 더 흘리자
이삭들이 땅에 닿아 땅이 꺼지라고
봄순아 또 한번 돌피 없나 포전을 돌아보자

시 초

그 리 움 의 교 단

—이 시를 전국의 분교교원들에게 드린다—

김 명 옥

교 정 의 백 양 나무

나의 교정엔 있어라
높이 자란 한그루의 백양나무
산촌마을 분교교원 나의 어머니
교단에 선 날에 심은 백양나무

그 나무엔 세월의 년륜만이 감기였던가
거기엔 생생히 새겨져있어라
등지를 털고 훨훨 날아가던 새처럼
도시로 꿈나래 펼치고 훨훨 날아보던
철없던 어린시절 나의 그 꿈도

그 년륜엔 새겨져있어라
한생 이곳에서 산 어머니를
야속하게 생각하며 어머니를 괴롭히던
그 나날들을 포근히 감싸안고

친척나들이도 마음껏 가본적 없는 어머니
방학때면 칠판글 머루닝글 휘감긴
저 구름너머 교원재강습을 가시던것이
어머니의 한생의 전부로 느껴지던 그 시절

이젠 어머니 심은
분교교재림에 심은 과일나무들이
빨갭게 무르익은 어느날
아이들에게 나누어줄 과일
정히 따 바구니에 담은
어머니에게 나는 물었어라

—어머니
바라보면 둘러막힌 산
들리는건 새소리 개울물소리뿐인
여기서 어머니님 어떻게 한생을 보냈는가요

어머니마음
다 알수 없던 이 딸
허나 그날에 어머니의 이야기
나의 가슴속에 저 아릅드리 백양나무마냥
뿌리를 내릴줄

늘 전선시찰에 바쁘신 우리 장군님
아이들과 함께 있고싶은 자신의 마음
교원들이 대신해달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장군님
장군님의 마음속엔
아홉명학생이 공부하는 우리 분교도 있었다고

그래서 새움트는 봄날도
어머니의 그리움
락엽지는 가을날도 더더욱
사무치는 그리움
우리 분교에도 장군님께서 오실것만 같아
그리움의 년륜을 돌기돌기 감은 백양나무
그 년륜속에 감겨있는 어머니의 한생이여!

교 단 의 밤 이 여

깊어가는 밤
열어놓은 창문으로 흘러드는
줄줄줄 산골물 흐르는 소리
멀리 숲속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부엉이의 울음소리
매일이면
첫 교단에 서야 할 이 딸

이 딸의 교수안을 잠도 잊으시고
눈여겨보시는 나의 어머니

칠판에 이 딸이 쓴
수업제목도 다시 써보라고
지시봉을 든 나의 모습
아이들이 잘 보게 옆으로 서야 한다고
세심히 일깨워주시며
흘러간 어제날을 더듬으시는가

여섯살난 오빠의 손목잡고
세살난 나를 등에 업으시고
힘한 술개끌너머 아홉명 아이들을 위해

산촌의 이 분교로 자진해온 나의 어머니

운동장의 철봉대 하나
교재림 한그루에 빛나는
공식판들에도 어머니의 뉘이 어려
이 산촌의 래일을 안고산 어머니

아, 어머니 첫 교단에 서던 그날처럼
이 딸을 조국의 교단에 세우시고
교단을 받들 교육자의 참된 량심을
말없이 이 가슴에 심어주시는
깊어가는 오, 산촌의 밤이여

꽃 다 발

아직도 눈에 삼삼해라
그날은 우리 어머니
도에서 열리는 교육일군회의로 떠나던 날
그날은 단풍도 붉게 타던 날

개울의 징검돌
하나둘 옮겨디디며
언덕의 고개길로 오르는데
기다린듯 고개굽이에서 달려나온 아이들
고사리같은 손들마다
어머니가슴에 안겨지는
산촌의 향기그윽한 들국화꽃다발

—선생님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봉지마다에 이슬흐르는 머루 다래
어머니가슴속에 일렁이는 감격의 파도
기쁨의 눈물 꾸밈없는 소박한 마음들

그날 어머니는 생각하셨지
아이들 그 마음이 담긴 꽃다발
어머니가슴에 금별은 빛나지 않아도
조국이 어머니에게 안겨주는
소중한 금별처럼
그 꽃다발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네

종 소 리

젖빛안개 흐르는 산촌학교의 운동장
흰 저고리 입으시고
종을 울리시던 어머니의 모습
그 누가 보논이 있었던가

허나 어머니의 종소리
밀림도 바위도 개울물도 들었지
밀림은 설레여 산촌에 전해주고
개울물은 그 소리 싣고
강으로 바다로 흘러갔지

아이들아 어서 펼쳐라 밤새 봄씩마냥 자란

너희들의 지식의 키
강성부흥할 래일의 모습이 그려진
너희들의 학습장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살아도
철령을 안고산 자랑 가슴에 안고
평양의 아이들과 똑같이
경연무대에도 담차게 나서자고
마음과 마음을 불러세워주던 종소리

멀고 험한 장군님 전선길에
45분을 전선시간마냥 따라세우며

어머니 울리던 종소리
순간이라도 그 종소리 드린다면
어머니 인생의 메아리가 없어질것만 같아

키낮은 추녀아래 종을 울리시던

그날 어머니의 모습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마음속에 그리며 간절한 소원 안고
이 딸이 영원히 울려가는 종소리 종소리

민 들 레 꽃

가슴에 훈장 가득
초소에 섰던 준혁동무
제대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고
대학교정을 마친 남철동무
최우등졸업생되어 돌아온 저녁
나는 분교교원
순희는 청년분조 분조장
어릴적 우리 작은 발자국 무수히도 찍힌
모교의 마당가에 서니
우리의 마음처럼 키높이 자란 백양나무
저 뒤동산 밤나무숲엔 우리를 반겨맞는
등실 떠오른 보름달 추억 많은 밤
우리 언제나 잊은적 없었지
수업시간 어머니 들려주던
민들레꽃이야기

사람들 수없이 지나는
동구길 두렁길에 피어도 탕함이 없이
뿌리를 품어준 땅이 고마워
잎이 지는 그날까지 키 솟굴줄 모르고
땅에 얼굴 묻고 사는 민들레꽃처럼
태를 묻고 자란 산천을 사랑하라고
어머니 들려준 그날의 이야기
우리의 가슴속에 보름달처럼 환히 솟아
래일의 꿈으로 환히 웃는 내 고향땅
달도 우리도 마주 웃는 밤
추억속에 우렷이 떠오르는 어머니의 모습
마음속에 뜨겁게 울리는 목소리들
—선생님 우리모두 나서자란
고향땅에 민들레꽃이 되렵니다...

우 리 마 음 전 해 다 오

전해다오
온 마을의 축복속에 바래움속에
붉은넥타이 날리며
6.6절경축행사 대표로 떠나는
분교아이들아

아버지도 평범한 농장원
어머니도 농장원
농민의 자녀들이 오늘은 평양으로 간다고
감격의 눈시울 적시며 따라서는
마을사람들의 고마움의 인사들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 뵙고싶어
낭비들기 날으는 저 험한 철령에 올라
평양하늘 바라보았다는
산골마을 마지막집 소년
너의 소원 꿈같이 **김정은**선생님 풀어주셨으니

평양과 멀어도
마음속 가까이에 사는 우리들
말씀드려다오 아이들아
온 나라 소년단원들 다 모인
평양의 그 넓은 경축행사에서

언제나 마음속에
장군님을 그리며 산 우리 분교 학생들의 마음
아이들의 영원한 교원이 되고 뿌리가 되어
그리움의 교단을 지켜가는 나의 마음도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어머니와 이 딸이
조국의 이름없는 분교의 교단을
하루같이 굳건히 지켜간다고
우리 마음 전하여다오!



수옥선생

박 찬 은

1

유럽에서 열린 수학자들의 회의에 참가했던 내가 집에 돌아오니 수옥선생님이 보내준 축하전보가 기다리고있었다.

《세계무대에 나가 뛰어난 실력으로 우리 민족의 높은 지혜와 슬기를 빛내여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한 을룡박사선생을 축하합니다!》

나는 서재창가로 다가갔다.

수옥선생님 나이 올해에 여든두살, 이제는 교단을 내려와 자식들의 뒤바라지나 해주며 소일하는 늙은이가 되었지만 옛 제자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계시구나. 세월은 흘러가도 마음속의 교단만은 내리지 않은 선생님!

내 나이도 벌써 일흔살, 오늘에 이르러 국내는 물론 세계수학계의 권위자가 되어 원사, 교수, 박사에게 로력영웅이라는 험치 않은 명예를 얻을 때마다 나는 철없던 시절에 나를 지식의 세계로 이끌어준 선생님, 내 인생의 첫 교사였던 수옥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이 젖어들군 한다.

우리 장난꾸러기들을 이끌어 속도 많이 태우신 선생님, 무슨 사연인들 없었으랴. 그중에서도 가렬처절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었던 일들이 더 더욱 잊혀지지 않는다....

×

서북지대에 위치한 내 고향 강안마을은 물산이 풍부하고 산천이 아름다운 고장이었다.

흰쌀이 나는 풍요한 남벌이 하늘끝과 맞닿았고 그 가운데로 물결세찬 동천강이 서해로 흘러내린다.

강안마을이 들어앉은 높고 험한 뒤산을 주토산이라고 불렀다. 아름답리 소나무밀림이 하늘을 가리우고있어 밤이면 승냥이가 울고 여우가 캥캥 짖으며 농가에 내려와 대낮에도 닭을 물어가곤 했다.

내가 아홉살나던 해, 강안인민학교(당시) 1학년과정이 끝나갈무렵인 1950년 여름에 전쟁이 일어났다.

미제원썹들이 우리 조국강산을 빼앗으려 미친듯이 덤벼들었다. 놈들의 썩썩기와 구라망편대, 《B-29》 폭격기들이 날아들어 기총사격을 해대고 줄폭탄을 던지였다. 마을이 불타고 벌에서 제초기를 밀던 사람들과 누렁황소가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마을청년들이 일떠섰다. 농사일을 하던 우리 아버지와 옆집 봉삼의 아버지도 전선으로 달려나갔다.

이튿날 내가 학교에 갔을 때 교장선생님이 들어와 우리를 배워주었다. 수옥선생님이 전선을 탄원하여 군사동원부로 달려갔다고 했다. 나는 저으기 울상이 되었다.

(선생님과도 헤어지게 됐구나! 어제는 아버지를 떠나보냈는데...)

스물한살 처녀의 몸으로 나라를 지키는 싸움에 용약 펼쳐나선 선생님, 나를 그토록 사랑해주던 수옥선생님과 떨어지게 됐다는 섭섭함이 어린 가슴을 몹시도 아프게 했다.

그날 학교에서 돌아오던 나는 집에도 별로 들어가고싶지 않아 풀밭에 벌렁 누워 하늘만 올려다보았다. 생각할수록 미제놈들이 저주스러웠다.

이렇게 선생님을 떠나보낼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공부를 잘했을걸... 공부에 재미를 못 붙이고 장난질에만 정신팔고 돌아가던 지난날이 돌이켜져

최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옆집에 사는 봉삼이와 한짝이 되어 산으로 강가로 싸다니며 노는데만 정신을 팔아 선생님을 애태웠다. 그러다나니 학급에서 성적이 뒤꼬리를 차지했다.

수옥선생님네와 우리는 앞뒤집에서 한우물을 먹으며 살았다. 우리 사는 곳을 샘골이라고 불렀다. 샘골은 강안 큰마을에서 나지막한 둔덕을 넘어 주토산 소나무밀림가까이에 붙어있었다.

나는 어려서 수옥선생님을 누나라고 불렀다. 그는 내가 귀여워 업어주기도 하고 손목잡고 걸음마도 태워주었으며 옛장사가 가위를 절령거리며 지나가면 옛가락을 사서 내 손에 쥐여주기도 했다.

그런 누나가 해방된 이듬해에 집을 떠나 신의주에 공부하러 간다고 하더니 작년부터는 우리 학교에 와서 나의 담임선생님이 되었다. 늘 을롱아, 누나가 무얼 줄가, 우리 을롱인 얼굴이 차돌갈고 코마루가 돋은게 여무지게 생겼어, 호호… 하고 쓰다듬어주곤 하던 누나였지만 내가 공부에 취미를 못 붙이자 더는 장난질을 못하게 그러잡기 시작했다.

매일 밤 두 부잡둥이들인 나와 봉삼이를 집에 불러 끼고앉아 배워주었다. 그렇게 보름쯤 지난 다음부터 봉삼이가 먼저 달라지기 시작했다. 공부하는데 불이 붙었던것이다. 내가 놀러가자고 해도 더는 말을 듣지 않았다. 숙제하고 놀자, 이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해 가을 어느날이었다.

그날 아침 나와 봉삼이는 수닭싸움을 시키는데 정신을 팔다가 학교가는 시간을 잊어먹었다.

봉삼이는 자기네 수닭의 털빛이 검다 하여 검둥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집 알락이와 봉삼이네 검둥이는 턱없이 건방진데다 사나운 싸움꾼들이었다. 언제 보나 한아름되게 살찐 몸뚱이에 힘이 뻗쳐 어쩔바를 몰라하는듯 했다. 언제나 기다란 목을 쪽 빼든채 부리를 잔뜩 쳐든 오만한 자세다. 걷는 것도 우악스러운 발톱으로 땅바닥을 탁탁 치며 거드름스럽게 걷는다. 그 우쭐렁거리는 꼴이 볼수록 우습다.

목덜미털을 거슬러세운 두놈이 시뻘건 번두를 흔들며 후닥닥 맞붙는다. 매부리같은 주둥이로 사정없이 물어뜯는다. 주둥이들에는 적수의 숨털을 한입씩 물었다. 창끝같은 발톱으로 눈을 찌르자고 덤빈다. 날개죽지를 기세높이 펼치고 화닥닥 달려붙을 때마다 먼지가 풀썩풀썩 떠오른다.

그날도 나와 봉삼이는 응원하기에 열이 올랐다.

《알락아, 검둥이를 물어메쳐라.》

《검둥아, 알락이 먹을 찢러라.》

검둥이눈가에서 피가 흘렀다. 알락이번두에서도 피가 흘렀다. 그래도 나는 자신있어 신심이 높았다.

(봉삼아, 넌 모르지, 내가 알락이한테 소고기를 먹였다는거.)

이윽고 검둥이가 옆집인 자기네 마당으로 달아난다. 그뒤로 기세가 오른 알락이가 쏜살같이 쫓아간다. 닭들도 터세를 하는지 자기 마당에 가서 싸우면 더 승벽이 살아올라 사정없이 해댄다.

이때에야 먼저 봉삼이가 뛰쳐일어났다.

《학교 늦었다.》

지각했다. 교실에 들어서니 오늘도 수옥선생님은 눈결처럼 하얀 적삼에 까만 치마를 받쳐입고 교단에 서있었다. 곱게 다문 입가에 미소를 짓고 우리를 바라보았다.

좀 긴 중발머리에 얼굴이 동그스름하고 키가 날씬해서 선생님은 보기가 좋았다. 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코끝도 오뎝하여 귀인성스러워서인지 제 나이보다 더 애뉘보이는것 같았다.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파스하게 울렸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요.》

왜 늦었는가고 묻지 않았다. 공부가 끝난 다음 선생님은 우리 둘을 남겨놓았다.

《닭싸움을 시키다가 지각했다는걸 알고있어요. 이제는 장난질만 하는 버릇을 버려야 해요. 학생이 되지 않았어요. 학생은 공부를 잘하고 학교생활을 잘해야 해요. 그래야 나라를 받드는 귀중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을롱학생은 공부를 잘하겠다는 결심이 없어요. 노는것밖에 몰라요. 그런걸 건달군이라고 해요. 건달군은 훌륭한 사람이 될수 없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안타까움에 젖어 울리었다. 우리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눈길은 서늘했다.

《봉삼학생은 또 닭싸움을 시키겠어요?》

《그런 놀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지각하면 안돼요. 봉삼이는 공부하는데서 을롱학생보다 훨씬 앞서요. 공부를 잘하겠다는 결심을 깊이했어요. 아주 좋아요. 조금만 더 잘하면 학급에서 일등 할수 있어요. 을롱이는 공부에서나 학교생활에서나 다 꼴등이에요. 학생이 되기 전처럼 장난에만 정신을 팔고있어요.》

나는 봉삼이보다 못하다는 소리에 얼굴이 달

아오름을 느꼈다.

(피 — 떡판같은게...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고 우쭐하겠구나.)

봉삼이는 나보다 키가 더 크고 얼굴이 넓적하여 떡판이라고 놀려주곤 했다.

내가 봉삼이보다 공부를 어방없이 못한다구? 나는 뺨이 팔려 썩썩거렸다. 씨, 해볼테면 해보자. 내가 너한테 저? 속은 살아서 풀떡거렸지만 어찌는 수가 없었다. 입술을 비죽 내밀었다.

《울퉁학생은 입술을 비죽 내밀곤 하는 버릇을 고쳐야 해요. 그러다 고운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지겠어요. 이제부터 두 학생은 지각한것만큼 공부를 더 해야겠어요. 학생은 한순간도 수업시간을 그냥 흘려보낼수 없어요.》

이날 밤 나는 잠자리에 누워 나서 처음으로 생각에 잠겨보았다. 선생님은 봉삼이가 조금만 공부를 더 잘하면 학급에서 일등 할수 있다고 했지? 아무리 봐도 그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건 사실이야. 그는 벌써 우리 말 글자를 다 아는것 같애. 나는 글자를 쉬운것밖에 모르지 않아. 어떻게 해야 봉삼이를 따라앞설수 있을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아직 굳은 결심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이튿날 학교에 갔다와 또 놀러가자고 봉삼이를 꼬드겼다. 그는 픽 웃으면서 따라서지 않았다.

나는 기분이 나지 않아 시무룩해서 정한 곳 없이 걸어갔다.

주토산에 올라가 여우굴에 불을 놓아 그 알미운 놈이나 잡아볼가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며 룩쵸형 울천이네 집 앞길에 들어섰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형은 안마당에 깔개를 펴놓고앉아 새끼를 꼬고있었다. 물에 추긴 버짚을 놓고 썩썩 잘도 꼬아올린다.

나보다 불과 삼년 우인데도 어찌나 형형세를 하며 만날적마다 뽀뽀거리는지 눈썹이 시릴 지경이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울천형을 똑똑하고 돼먹은 아이라고 누구나 칭찬한다.

내가 집앞에 이르자 형은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나는 달갑지 않았으나 할수없이 발길을 돌렸다. 뜨아한 걸음으로 대문안에 들어서자 아닐세라 형은 벌써 쌍까풀진 눈을 똑 부릅뜬다.

《저기 앉아.》

(첻, 제가 뭐라구.)

하지만 앉지 않을수가 없었다.

《너 아직두 뱅들뱅들거리면서 놀기만 한다지? 공부는 하지 않구.》

나는 아니라고 뻑뻑스레 우겼다.

《우리 글 다 알아?》

《알아.》

《그런데 왜 학급에서 꼴등이야?》

《몰라.》

《몰라? 그것도 모르니 깡통을 면할수 없지.》

나는 낮빛이 쯤해서 울천형을 흘겨보았다.

울천형은 움쭉 일어서서 옷방에 올라갔다오더니 신문을 내앞에 쑥 내밀었다.

《읽어.》

얼결에 그 신문을 받아들고 들여다보았다. 알기쉬운 글자보다 모르는 글자가 더 많았다.

나는 입이 굳어져 고개를 숙였다. 울천형은 새끼꼬던 손을 멈추고 나를 쏘아보았다. 가뜩이나 뽀족한 코등이 더 창끝처럼 솟아오르는듯싶었다.

《못 읽어? 야, 그것도 못 읽어? 봉삼이는 공부를 잘한다는데 이것도 못 읽는 깡통은 매점밖에 맞을게 없어.》

형은 말끝마다 나를 깡통이라고 옥박지르다가 꼬아놓은 새끼발을 모아쥐더니 그것으로 내 등허리를 후려갈겼다. 나는 악이 받쳐 벌떡 일어섰다. 마주 쏘아보았다.

《왜 때려? 왜 때려?》

《너같은 돌대가린 맛아야 정신이 들어.》

나는 대문밖으로 뛰쳐나가며 울천형한테 빈주먹질을 했다.

《공부 잘한다고 뽀내지 말어. 보기 싫어야, 형행, 우쭐렁바우같은거.》

나는 울천형네 집에서 나와 아무데로나 걸어갔다. 얼마쯤 가다가 길옆의 풀밭에 주저앉았다. 생각할수록 분했다.

사실 형이 새끼오리로 한번 때렸다고는 하지만 잔등의 먼지나 털어준셈이지 조금도 아픈 매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왜 아프게 느껴지는지 모를 일이었다. 눈물이 다 질끔 솟아올랐다.

그때 무슨 일로인지 집에 들렀던 수옥선생님이 지나가다 나를 띄여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왜 여기 앉아 울고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자꾸 캐여몰어 대답하지 않을수 없었다.

《울천형이 때려줬습시다.》

《형한테 맞았다구? 왜?》

나는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한마디씩 끊어서 외웠다.

《공부... 안하구... 놀기만 한다구... 깡통 똥다

면서…》

그 신문을 못 읽었다는 말도 했다. 수옥선생님의 얼굴에 웃음발이 곱게 비졌다.

《울퉁학생은 진짜 깡통이 됐나요? 펄펄펄렁 소리만 내는 빈 깡통?…》

《예.》

놀랍게도 나는 고지식하게 인정했다.

《그럼 형한테 맞은게 웅당하구만요. 잘못된 동생이 형한테서 맞는건 있을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형이 동생을 때린건 잘한 일이 아니지만 울퉁이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학교생활도 잘하고 부모님들 일손도 잘 도와드리느 모범학생이에요. 울퉁이는 언제쯤 가야 울퉁형처럼 뭐나 다 잘하는 학생이 되겠나요.》

나는 입술을 비죽하려다가 얼른 오무렸다.

(씨, 선생님도 우쭐렁바우 울퉁형편이야.)

《그래, 형이 읽으라는 글에서 어떤 글자를 못 읽었어요? 그 신문을 가지고있어요?》

《형네 집에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다. 나는 뛰어갔다. 내가 신문을 주어줄 때 형이 새끼꼬던 손을 멈추고 쳐다보았다.

《왜 또 왔어? 좀더 맞고싶어서?》

《행- 나를 때려줬다고 큰엄마(울퉁형의 어머니)한테 대줄래.》

나는 빨간 혀를 쭉 내밀고는 두눈을 지릅떠보이며 얼얼릴릴 하고 형을 골려주었다. 울퉁형은 어처구니가 없는지 하하 웃었다.

《고것… 뻘들래미 망종같은거…》

수옥선생님은 나를 옆에 끼고 들국화가 하얗게 핀 풀밭에 가지런히 앉았다. 신문을 받아든 그는 맨우의 첫 단어를 짚으며 물었다.

《이걸 못 읽었어요? 이건 〈깜빡거린다〉는 말이에요. 우리 나라 글 한자한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있어요?》

《자음과 모음으로…》

《옳아요.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글자가 돼요. 자, 〈잠〉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지요.》

선생님은 글자가 되는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설명이 어떻게나 귀속에 쭉쭉 들어와 머리에 박히는지 신기한 일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왜 이런걸 몰랐을가. 에이- 멍텅구리…

《울퉁인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아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르지요.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척 하면서 허튼 생각을 했지요?》

수옥선생님은 동그스름한 얼굴에 웃음을 띠우고 따뜻한 정이 어린 눈길로 나를 보았다. 반듯한 이마에 몇오리 흘러내린 까만 머리칼이 바람에 한들 한들 춤을 추었다.

《선생님설명은 안 듣구… 주도산에서 다람쥐 잡던거랑 높에서 메사구잡던 생각만 했습니다.》

나는 사실대로 말했다.

《보라요. 그러니까 모르지요. 이제는 알았으니 밤낮 책을 놓고앉아 꾸준히 익혀야 해요.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하는 울퉁형을 따라앞서자요. 공부를 안하니 형한테서도 맞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한테 속보이면서 살겠어요? 칭찬받으며 살아야지요. 그때야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날은 선생님의 타이름이 나의 가슴을 세차게 찢어냈다.

《이제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하자요.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해방후 중요한 회의를 여시고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도록 연필문제부터 먼저 풀어주시었어요. 장군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꼭 최우등생이 되자요.》

나는 결심어린 목소리로 크게 대답했다. 선생님은 기뻐하며 내 등을 다독여주었다.

《울퉁이는 국어시간이 재미있어요?》

《산수시간이 더 재미있고 알기가 쉽습니다. 국어는 좀… 힘들니다.》

《국어와 산수를 다같이 잘해야 해요.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서 **김일성**장군님을 받드는 큰 기둥이 되자요. 큰 기둥이 된다는 말은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것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다 큰 기둥이 돼서 장군님을 잘 받들어야 우리 나라가 튼튼해져요.》

나는 선생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몽클 솟구치는 충격으로 안겨와 입속으로 몇번이나 외워보았다.

(장군님을 받드는 큰 기둥! 큰 기둥!…)

그때 심어준 선생님의 말씀이 나의 한생의 리상으로, 좌우명으로 되었다.

그날부터 나는 책과 씨름을 시작했다. 선생님 설명을 되새겨보며 한자한자 파고들었다. 원리를 알고 달라붙으니 쉽게 깨도가 되었다.

선생님의 수업은 교실과 집, 길가와 풀밭 등 가림없이 밤낮으로 이어져 우리를 지식의 세계로 이끌어갔다. 끝내는 나에게도 공부하는 취미를 붙여주었다.

공부하다 모를것이 있으면 선생님집으로 달려가곤 했다. 어떤 날 밤엔 수옥선생님이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일어나 가르쳐주곤 했다. 선생님의 어머니는 혀를 찼다.

《온, 녀석두. 용타... 이젠 공부바람이 났구나. 참 좋은 바람이다. 허허허.》

내가 선생님의 설명을 제격제격 받아물면 어머니는 더 기특해했다.

《똥똥하구나. 울차게 여물었어.》

날이 흘러 나는 학기말에 있는 군적인 학과경연에서 1등을 쟁취하고 군표창장을 받았다. 수옥 선생님은 너무 기뻐 방글방글 웃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나를 품에 안고 쓰다듬어주었다.

《을롱이, 더 높이, 더 높이 날아오르자요!》...

...그때를 돌이켜보는 내 눈에 절로 눈물이 고여 올랐다.

내가 이렇게 수옥선생님에 대한 생각에 잠겨있을 때 누군가가 등뒤에서 물었다.

《왜 여기 혼자 앉아있니?》

결에 다가온 사람은 강안 큰마을에 사는 농산기수 용하아저씨였다. 그는 나를 찬찬히 보았다.

《너 울었구나. 누구와 다뤘니?》

《아니예요. ... 저 - 수옥선생님은 언제 군대에 가나요?》

나는 용하기수가 수옥선생님과 가깝다는것을 아는터라 그렇게 물었다.

용하기수는 의주농업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와 농민들의 기술농사를 지도하는 한편 리내의 중요한 사업들을 겸해서 보고있는 사람이었다.

수옥선생님네는 남정들 손이 없는 집이었다.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갔고 손우오빠는 인민군대에 복무하고있어 용하기수가 자주 와서 집일을 도와주곤 했다. 수옥선생님은 용하기수를 오빠라고 친근하게 불렀다.

용하아저씨는 싱긋 웃으며 내 머리를 뺑 쓸어주었다.

《오 - 너 수옥선생님과 헤어지는게 섭섭해서 울었구나. 을롱아, 선생님은 떠나지 않는다. 군사동원부에서 승인하지 않았단다. 선생님은 방금 학교에 돌아왔다.》

보아하니 용하기수는 수옥선생님과 같이 군사동원부에 갔다오는 길인것 같았다. 미체놈들과 판가리싸움을 하는 전쟁속에서도 교육사업의 중요성으로 하여 녀선생들은 군대에 입대시키지 않았다는것을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어쨌든 정든 선생님과 헤어지지 않는다는것으로 하여 마음이 가벼워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적들은 무섭게 발악했다. 매일 놈들의 폭격기들이 날아들어 다리와 철길, 마을과 학교에 폭탄을 들부었다.

폭격에 우리 학교도 처참하게 무너졌다. 별안간 배움터를 잃어버린 우리들은 어쩔바를 몰라 당황했다. 재더미만 남은 학교를 바라보며 다들 울었다. 교정의 허리부러진 나무밑에 오구구 모여 선생님들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교원들도 방이 없어 나무밑에 앉아 모임을 가지었다. 선생님들이 일어나 원썬놈들의 만행을 규탄하며 전시하에서의 수업보장에 대해 말했다.

우리들은 선생님들의 열변을 들으며 숨을 죽이고 서있었다.

수옥선생님이 일어섰다. 그렇게도 동그스름하니 곱고 생기있던 얼굴이 하루아침에 해쓱해지도록 살이 내리고 두눈만이 예리하게 빛을 뿔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으나 또랑또랑 울리었다.

《미체원썬들이 아무리 폭탄을 들부어도 우리는 결코 수업을 중단할수 없습니다. 수업은 어길수 없는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 교원들은 인생에서 배움의 첫걸음마를 떼는 어린 학생들에게 지성의 거목을 키워주는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성의 거목을 키워주는 밑거름이 되는 과정은 곧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수업은 한순간도 중단할수 없습니다. 교원의 수업은 장소에 구애될수 없습니다. 그 어디든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끊임없이 수업이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학급은 오늘부터 새 교실이 될 때까지 야외수업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들에게 지성의 거목을 키워주는 밑거름이란 말인가.)

당시 나는 수옥선생님의 이 말뜻을 다 알수가 없었다.

이날부터 우리는 선생님네 집뒤의 숲그늘에 들어가 야외수업을 받았다. 아릅드리 소나무밑림이 우거져 하늘이 보이지 않는 주도산숲속은 대낮에도 컴컴했다. 송이버섯이 많고 노루, 메돼지, 여우와 승냥이까지 있는 이 산속에 들어와 공부할 하다니... 미체놈들이 저주스러웠다.

수옥선생님은 우리들에게 강개한 어조로 말했다.

《학교가 없어졌다고 해서 눈물을 흘려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울면 미체원썬놈들이 더 좋아합니다. 어려울수록 마음을 굳게 먹고 다들 을롱학생

처럼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야겠습니다. 지금 영웅한 인민군대아저씨들은 미제놈들을 용감하게 무찌르고있습니다. 벌써 서울을 해방하고 남녘땅의 넓은 지역을 해방했습니다.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는 꼭 이깁니다!》

봉삼이가 벌떡 일어나 《만세!》 하고 웨쳤다. 모두들 짜락짜락 박수를 쳤다.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나는 나이보다 앞질러 철이 드는것 같았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아버지없이 혼자 농사일에 바빠하는 어머니를 도와 저녁밥을 지었다. 터밭김을 매기도 했다. 주토산에 올라가 솔가래기도 굽어 땀감을 마련했다. 이때부터 올천형과 산에 나무하러 같이 가곤 했다. 형은 나를 힘써 도와주었다.

수옥선생님은 나날이 수척해졌다. 그는 오전에는 야외수업을 하고 오후부터는 밤까지 립시교사 짓는 일을 했다. 주토산골짜기마다에 교실로 쓸 립시건물들을 지었다. 학부형들이 다들 달라붙었다.

그들의 일손을 도와 수옥선생님은 몸을 아끼지 않았다. 날이 흐를수록 선생님은 너무도 몸이 고달파 입맛까지 제졌다. 밥을 못 먹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했다. 학부형들이 쉬라고 말려도 립시교사가 빨리 돼야 안전한 수업을 할수 있다며 일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는 수업이라는 말이 한시도 떠날줄 몰랐다.

우리 어머니도 몇번이나 수옥선생님 걱정을 했다.

《그러다 쓰러질것 같구나. 닭곰이라도 한마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쟁판이니...》

나도 걱정이 되어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선생님이 식사를 할수 있나요?》

어머니는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달콤한 메사구탕이나 한남비 끓여먹었으면 좋으련만...》

(메사구?)

나는 일요일 아침에 봉삼이를 찾아가 동천강가에 메기 잡으러 가자고 했다. 나의 말을 들은 그는 선생님을 위해주는 일에 선뜻 따라나섰다.

그때 우리 아이들은 동천강에 나가는것이 엄금되어있었다. 놈들의 썩새기가 무시로 달려들어 기총을 쏘갈기기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봉삼이를 끌고 아무도 몰래 강안마을을 빠져 남벌로 내달렸다. 포화속에서도 실하게 자라오른 벼포기들이 바람에 넘실넘실 푸른 파도를 일으켰다.

논벌과 강둑이 맞닿은 기슭에는 넓은 늪처럼 생

긴 물웅덩이들이 널려있었다. 거기에는 창포가 우거지게 자라 그밑에 물고기들이 많았다.

나와 봉삼이는 자그마한 무명자루를 하나씩 입에 물고 물가에 들어가 손더듬질을 했다. 우리들은 민물고기를 손더듬으로 곧잘 잡아냈다. 손바닥만 한 붕어, 농달치, 참게 등 닥치는대로 잡아 자루에 넣은 나는 큰 계구멍안에 팔을 쑥 들이밀었다.

미끌하는 감촉과 함께 주먹만 한 왕메기대가리가 잡혔다. 물밖으로 끌어내니 크고 시누런 놈이 화닥화닥 요동을 치며 꼬리로 내 팔꿈치를 때렸다. 온몸에 짜릿한 쾌감이 흘러 소리라도 치고싶었다.

이때부터 나는 런속 메기를 잡아냈다.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어느덧 내 자루에는 메기가 여라문마리나 들어가 찼다. 자루가 무거웠다. 그런데 이상했다. 봉삼이는 메기를 한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도 물고기손더듬질에서 나만 못하지 않았는데 수확이 없어 시무룩해졌다.

얼마후 우리는 몸을 씻고 동천강둑에 올라섰다. 나는 동무의기분을 풀어주고싶었다.

《봉삼아, 좀 웃어라. 이걸 선생님 어머니한테 갖다드릴 때 절반은 네가 잡은것이라고 할게. 빨리 가자. 미국놈썩새기가 울수 있어.》

우리는 강둑을 따라 바삐 걸었다. 얼마나 갔을가. 갑자기 봉삼이가 걸음을 툭 멈추며 《저거 뭐야?》 하고 동천강가운대를 가리켰다. 나는 그쪽으로 눈길을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는것이 없었다. 강에는 물이 짙대로 찌어서 가운데로만 얼마간 흐르고있었다.

내가 어정쩡해하자 봉삼이는 참지 못하고 후닥닥 동쪽을 뛰어나려 강판으로 내달렸다. 그때에야 내 눈에도 강 저쪽 감탕판에서 무엇인가 번쩍! 하는것이 보였다. 순간 농어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사실이였다. 이따금 그런 일이 있었다. 장마철에 사뭇쳐흐르는 물살이 무섭게 강둑을 때리곤 하여 그 힘을 죽이느라고 사람들은 대추산벼랑을 헐어 강가운데로 얼마간 돌동둑을 내쌓았다.

바다에서 밀물과 함께 들어왔던 농어들이 썰물을 따라나가다 그 돌벽에 대가리를 맞쫓는통에 물우에 떠오르는것들이 있었다. 그중에는 기절하여 물결따라 빙빙 돌다가 감탕판에 걸려 죽는것도 있었다. 그것이 해빛을 받아 비늘이 번쩍번쩍 빛을 뿜었다. 그 빛이 아마 봉삼의 눈에 먼저 걸려든 모양이다.

이윽고 봉삼이는 번쩍거리는 농어를 가슴에 안고 강둑을 향해 감탕판을 헤어나왔다. 농어는 중

개만큼이나 컸다.

《야— 데거—》

나는 감탄했다. 봉삼이가 부러웠다. 메기를 많이 잡은 기쁨은 졸지에 날아가버렸다. 농어는 아직 살았는지 꼬리가 구불뻑거리는것이 보였다.

그때였다.

《정신있어요?!》 하는 야무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옥선생님이였다. 나는 우뚝 굳어졌다. 후에 안 일이지만 우리들이 동천강으로 나갔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은 선생님은 작업을 하던 삽자루를 집어던지고 남벌로 냇다 달렸다고 한다.

나는 선생님앞에서 몸돌바를 물랐다. 그사이 농어를 불안은 봉삼이는 감탕판을 벗어나고있었다.

그 순간 돌연 하늘에서 앵— 하는 앙칼진 소리와 함께 미국놈썩썩기가 날아들었다. 선생님이 다급히 웅쳤다.

《을롱이, 개고로!》

마침 강둑아래에 물감탕이 흐르는 깊숙한 개고가 있었다. 나는 정신없이 개고로 굴러들어갔다. 그때야야 선생님을 돌아보았다. 수옥선생님은 강기슭으로 올라서는 봉삼이한테로 달리며 피타게 소리쳤다.

《봉삼이, 농어를 버리라! 개고로!… 개고로!》

선생님은 번개같이 몸을 날려 봉삼이를 개고로 이끌었다. 둘은 붙잡고 덩굴며 개고안으로 들어가 었드렸다. 선생님은 우리를 좌우에 끼고 적기가 마주오는 방향의 개고옆에 가붙었다. 그래야 발견되지 않을수 있었다.

썩썩기가 미친듯이 기총사격을 해댔다. 총알이 피유포유포 소리를 지르며 강가와 감탕판에 박혔다. 그놈은 논판과 강둑, 마을과 산기슭을 훑으며 대충없이 총탄을 퍼부었다. 귀청을 켜는듯 한 금속성과 총소리에 얼이 빠진 나와 봉삼이는 선생님이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를 삼키고있는것을 모르고있었다.

인민군대의 세찬 고사포화력에 얻어맞은 썩썩기가 검은 연기를 토하며 동천강전너에 날아가 처박힌 다음에도 선생님은 개고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때야야 나와 봉삼이는 감탕이 두렵게 발린 선생님의 한쪽무릎아래에서 피가 흐르고있는것을 보았다. 깜짝 놀란 우리들은 《선생님!》 하고 목갈린 소리로 불렀다. 선생님은 애써 몸을 일으키며 우리를 안심시키듯 나직이 말했다.

《일없어요. 놈들의 흉탄이 왼쪽장판지를 스친것 같애요. 을롱이와 봉삼이는 다친데 없어요?》

우리는 낮빛이 죽어 고개를 끄덕이였다.

《자, 어서 개고에서 나가자요. 놈들의 비행기가 또 올수 있어요.》

선생님은 손수건을 찢어 상처를 대충 싸매고는 가까스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와 봉삼이는 량쪽에서 부축했다. 선생님을 끌다싶이 하면서 겨우 강둑을 기여넘어 물이 팔팔 흐르는 내가에 이르렀다. 거기서 손발과 얼굴을 씻었다.

선생님의 장판지살은 몹시 헤집어져 피가 줄줄 흘렀다. 나는 와락 속옷을 벗어 북북 찢었다. 그것으로 선생님의 상처를 든든히 동여맸다. 손을 놀리면서 흑흑 흐느껴울었다. 봉삼이도 흐르는 눈물을 주먹으로 훔쳤다.

《선생님, 우리때문에… 우리때문에…》

선생님을 위해드리려다 이런 봉변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해본것이여서 가슴은 비틀리우는듯 아팠다.

수옥선생님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울지 말아요. 약을 바르면 아물거예요. 다시는 이런 자유주의를 하면 안돼요. 오늘 큰일날번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자신의 피로움보다도 우리들이 무사한것이 다행이라느듯 안도의 낮빛을 지었다.

선생님이 걸으면 피를 더 흘릴수 있어 달리기 잘하는 봉삼이가 마을로 뛰어가 알리기로 했다.

경황없는 속에서도 어떻게 농어와 메기자루까지 끌고왔는지 모를 일이었다. 봉삼이가 떠나려 할때 마을앞 동구길로 선생님의 어머니와 용하기수, 봉삼의 어머니와 을천형, 우리 어머니가 달려왔다. 벌써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다.

용하기수는 군말없이 등을 돌려 수옥선생님을 업었다. 마을에 있는 진료소로 냇다 뛰었다. 머리칼이 희숙한 진료소장은 상처를 자세히 보고나서 처치를 하고 봉합실로 껴맸다.

《요행 뼈는 다치지 않았으니 안정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꼭 안정해야 합니다.》

의사선생님은 안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와 봉삼이는 수옥선생님앞에 죄스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목숨걸고 우리를 구원해준 선생님!)

나는 또 어깨를 들먹이였다.

다음날 우리들은 더욱 놀라게 되었다. 수옥선생님이 쌍지팽이를 짚고 수업을 하러 야외수업장에 나왔던것이다.

선생님은 서있지 못하고 앉아서 수업을 했다. 의사선생님이 누워서 안정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는데 어찌려고 그러나. 그러다 큰일나지 않

을가. ... 나는 근심이 되어 속이 조였다.

쌍지팽이를 짚고 교단에 섰던 그날의 선생님의 모습이 육십여년이 지난 지금도 내 눈앞에 삼삼히 어려온다.

림시교사가 완성되자 우리는 한결 안전하게 수업을 받을수 있었다.

...내 고향 강안마을에도 시련이 닥쳐왔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된것이다. 학급동무들은 부모를 따라 이웃군에 있는 친척집들로 피난해갔다.

수옥선생님은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신심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인민군대는 전략적으로 일시 후퇴를 했을뿐입니다. 인민 군대는 곧 돌아옵니다. 우리의 장군님께서서는 미제놈들을 때려부시는 싸움을 승리에로 령도하고계십니다. 학생들도 원쑤들과 싸워야 합니다. 공부도 더 잘해야 합니다. 수업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미제놈들이 들어온다는데 공부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

나는 머리를 기웃했다.

그때까지 수옥선생님은 윈다리를 절며 다녔다. 그사이 지팽이는 버렸으나 우리들을 배워주느라 안정치료를 할수가 없어 상처가 빨리 아물지 못했던것이다.

...마을에서는 반동놈들이 《치안대》를 못고 사납게 날치였다. 수옥선생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군인민유격대가 조직되었다던데 수옥선생님도 거기서 갔을가?

나는 무척 수옥선생님의 소식이 궁금했고 또 보고싶었다.

3

캄캄한 밤, 널대문에서 방울소리가 달랑달랑 울렸다.

내가 나가 문고리를 벗기자 한사람이 바람처럼 휩 들어왔다. 두툼한 솜옷을 입고 머리에는 개털모자를 쓴 키가 큰 사람이었는데 그는 뜻밖에도 용하기수였다.

《을롱아, 수옥선생님은 가까이에 있다. 래일 점심때 주토산 곱바위앞으로 오너라, 봉삼이를 데리구. 〈치안대〉놈들 눈에 띄우지 않게 해야 한다.》

용하기수는 자기를 만나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일러준 다음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이튿날 점심에 나는 봉삼이와 함께 주토산에 사

정이 주으러가는척 하고 갈구리를 하나씩 둘러메고 날래게 숲속으로 사라졌다. 곱바위가 있는 곳은 대낮에도 여우가 싸다니는 음침한 골안이였다.

거기에는 깊이 않은 동굴이 있었다. 거기서 우리는 수옥선생님을 만났다. 골안쪽에 가랑이를 굽어다 깔고 그우에 멍석을 펴놓았다. 교과서와 출석부도 있고 배낭도 보였다. 한구석에 방등불을 켜놓아 그만하면 밝았다. 골안에 들어오니 공기가 훈훈했다. 수옥선생님은 자주색솜옷을 입고 머리에는 흰 목도리를 둘러감고있었다.

선생님은 나와 봉삼이를 껴안고 반가와 어쩔줄을 몰라했다. 자리에 마주앉자 마을형편부터 물어보았다. 우리들은 강안마을 《치안대》놈들의 만행에 대해 보고들은것을 이야기했다.

《우리 학급학생들은 마을에 몇명이나 남아있어요?》

나와 봉삼이는 동무들의 이름을 불렀다.

《일곱명밖에 안되는군요.》

선생님은 가슴아파했다.

《이제 돌아가면 아무도 몰래 알려주세요. 래일부터 여기서 2학년수업을 계속하겠어요.》

아침에는 나와 봉삼이를 포함하여 네명이 오고 다음 세명은 점심후에 오도록 했다. 나무를 하러 가는것처럼 지게와 괄지를 가지고 각기 헤어져 오라고 일러주었다. 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치안대〉놈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수업을 중단하고있을수 없어요. 미제놈들은 다시 쫓겨나오고있어요. 용감한 인민군대들이 재진격의 길에 올랐습니다. 사정이 어려워도 수업을 계속해야 다들 우리 장군님을 받드는 큰 기둥으로 자라날수 있어요!》

큰 기둥! 내 일생의 목표로 된 큰 기둥! 가슴은 또다시 세찬 격동으로 높뛰였다.

수옥선생님은 부상당한 다리때문에 군인민유격대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주토산 밀림속 동굴에 들어가 학생들에 대한 수업을 중단없이 계속하겠다고 상급에 제기했다고 했다. 학생들을 통하여 마을의 적정탐지도 같이할 계획을 말했다. 상급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승낙하면서 군인민유격대원인 용하기수를 연락원으로 붙여 선생님의 신변안전을 지켜주도록 했다.

다음날부터 선생님의 동굴속 수업이 시작되었다. 일곱명밖에 안되는 인원마저 쪼개여 한조 수업이 세네명이지만 마을에 남아있던 동무들은 다들 선생님을 찾아 이곳으로 들어왔다.

그때 동굴안을 밝히던 등불의 빛과 동굴속에 울

려퍼지던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와 가벼운 웃음 소리를 나는 오늘도 쟁쟁히 듣고있다.

우리들은 집에 돌아와 숙제를 하고는 강안 큰마을을 돌아치며 《장난질》을 했다. 짙뿔던지기, 강통차기도 하면서 《치안대》놈들의 동태를 곧잘 알아냈다. 이것은 용하기수를 통하여 군인민유격대에 알려졌다. 용하기수는 용감한 정찰병이었다.

날이 갈수록 인민유격대의 기습활동이 맹렬해졌다. 우리 마을에서 삼십리 떨어져있는 동천강철다리를 수비하던 놈들과 읍에 있던 적들이 녹아났다. 강안마을 《치안대》놈들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다. 날치며 돌아가던 악질 《치안대》놈들이 하나, 둘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곤 했다.

《치안대》놈들은 숲이 우거진 산속에 들어가는 것을 제일 무서워했다. 유격대원들이 바람처럼 나타나 처단해버리곤 했던것이다. 놈들은 마을에서만 돌아치며 죄없는 사람들을 잡아다 때리고 총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술을 치먹었다. 그러던 어느날 수옥선생님의 어머니도 사형장으로 끌려나갔다. 아들이 인민군 편대참모장이고 딸은 교원이라고 어머니를 붙잡아다 죽도록 때리며 고문하던 끝에 총살하였던것이다.

어머니의 최후에 대한 소식을 들은 수옥선생님은 격분으로 몸을 태웠다. 당장 용하기수에게 총을 달라고 졸랐다. 복수하지 않고서는 살아숨쉴수 없다고 펄펄 뛰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입술을 깨물고 우리들을 위한 교육교양에 더욱 힘썼다.

인민군대후방가족이라고 우리 어머니와 봉삼의 어머니도 끌려다 소비조합창고에 가두고 때렸다. 나는 어머니에게 밥을 날라가고 혼자 집을 지키면서도 울지 않았다. 내가 울면 미제놈들이 더 좋아한다고 한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새겨져있어 이를 악물었다.

...한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그날 밤 나는 한잠도 못 잤다. 초저녁부터 밤길도록 대포소리가 울려와 밖에 나가 하늘만 올려다보았다. 팡! 파르릉!— 하는 소리에 주토산이 와르릉 울리었다.

다음날 수옥선생님은 흥분된 얼굴로 우리들을 맞이했다.

《어제 밤 오래도록 울린 포소리를 들었지요? 재진격해나오는 인민군대의 포소립니다. 곧 마을이 해방될거예요. 우리가 교실로 돌아가 마음껏 공부할 날이 눈앞에 왔습니다!》

우리들은 기쁨에 넘쳐 뛰어일어나 박수를 쳤다.

이날 저녁녘에 나와 봉삼이는 수업진도를 앞서 나가고싶어 수옥선생님을 찾아 다시 숲속으로 들

어갔다.

《선생님, 3학년 교과서를 가지고있는것이 있습니까?》

《그건?... 오, 한학년 높은 과정을 예습하겠다는거지요? 좋아요. 집에 감추어놓은것이 있어요.》

선생님은 기뻐했다.

《이제 내가 집에 내려갔다 오겠어요.》

《그건 안됩니다.》

우리는 위험하다고 선생님을 만류했다. 수옥선생님은 웃어보이였다.

《인민군대의 진격앞에 〈치안대〉놈들은 정신이 다 홀 나갔어요. 그런 놈들을 겁낼게 뭐 있어요.》

그렇게 집으로 내려갔던 수옥선생님은 그만 《치안대》놈들에게 붙잡히였다. 인민군대가 다시 밀고나온다는 소식에 마지막말악을 하며 발작적으로 빨갱이들을 더 많이 잡겠노라 돌아치던 물독같은 감둥이놈과 그 졸개놈의 매복에 걸렸던것이다. 옷칠을 한듯이 온몸이 너무도 새깁새깁해서 감둥이라 부르는 그놈이 바로 수옥선생님의 어머니를 학살한 악질 《치안대》놈이었다.

숲속에서 선생님을 기다리다못해 마을로 내려온 나와 봉삼이에게 다음날 《치안대》가 들어있는 우물집에서 불을 때고 나무를 때는 잡일을 하는 할아버지가 이것을 알려주었다.

순간 나와 봉삼이는 서로 붙어잡고 엉엉 울었다.

《이걸 어찌니? 응?》

《선생님을 혼자 내려보내지 말았어야 했을걸, 후후...》

한참 그러고있던 우리는 머리우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놀라 언뜻 고개를 쳐들었다.

《울지 말아. 너희 선생님이 그러지 않아도 너희들이 울지 말라고 꼭 말해주라고 하시더라. 울면 원주놈들이나 좋아한다고 말이다.》

할아버지의 낮으나 비장한 말에 우리는 똑 굳어졌다. 《치안대》놈들의 심부름을 해준다고 우리가 나쁜 할아버지라고 욕하던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생각에서였다. (후에 알고보니 그 할아버지는 인민유격대와련결된 애국적인 농민이었다.)

할아버지는 우리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말했다.

《선생님이 밤에 뒤울안으로 오라고 하시드라, 오늘 수업을 하겠다고.》

《예?!》

우리는 어마지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놈들에게 체포되어있는 그 살벌한 환경속에서 선생님이

우릴 공부 배워줄 생각을 다 하시다니...

우리는 팔소매로 얼굴에 흘러내린 눈물을 벽 벽 씻었다. 마치도 앞에서 선생님이 엄한 눈길로 마주 바라보시는것 같아서였다.

그날 밤, 늦가을의 밤은 몹시도 을씨년스러웠다. 그리고 인기척 하나 없이 괴괴하였다.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둡컴컴한 골목에서는 한산한 마가 울바람에 락엽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소리만이 와삭와삭 나고있었다.

한밤중에 나와 봉삼이는 수옥선생님이 잡혀있는 초가집의 뒤담쪽으로 조심조심 접근해갔다.

우물집할아버지가 뒤울안쪽으로 먼한 담벽에 기대어놓았던 수수대단무지를 치우니 아래쪽에 살창을 댄 통기구멍이 보였다. 쿵, 쿵 두번 두드리니 안쪽에서 손이 쑥 나왔다.

《을롱이, 봉삼이.》

귀에 익은 수옥선생님의 목소리였다.

《선생님!》

우리는 내어민 자그마한 손을 짹 부어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선생님을 찾았다. 수옥선생님도 반가운듯 우리의 손을 자꾸자꾸 쓸어보았다.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때문에 선생님이...》

《그러지 말아요. 동무들, 난 괜찮아요. 그저 학생동무들이 무섭다고 공부를 하지 않을가봐 그게 제일 걱정돼요. 이젠 울지 않지요? 을롱이.》

나는 내 눈에 고인 눈물을 혹시 선생님이 보지 않는가 하여 짐짓 소리에 힘을 주어 씩씩하게 대답하였다.

《울지 않습니다, 선생님.》

잠깐 침묵이 흐른 뒤 수옥선생님은 《내가 어제 내준 숙제는 다 했어요?》 하고 물었다.

순간 우리는 뜨끔했다. 그리고 놀라움으로 눈을 덩둘하니 뜨고 서로 마주보았다. 이런 정황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다했는가고 물어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터였다.

선생님은 재차 물었다.

《숙제를 다 했어요?》

우리는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 못했습니다.》

한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안에서 선생님의 담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을롱이, 봉삼이! 선생님이 말했지요? 그날 숙제는 꼭 그날로 하는 버릇을 붙여야 한다고. 그 래야 배운 지식이 자기것으로 되고 자기의것으로 된 지식이 많아야 나라의 큰기둥으로 역세게 자라

날수 있다는걸 명심해요. 이제 돌아가면 숙제를 꼭 해야 해요. 내가 나가면 꼭 검열하겠어요. 알겠어요?》

선생님은 다짐조로 말끝을 맺었다.

《예!》

우리는 낮으나 힘있게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선생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반짝이는 검은 눈의 영채는 금시 눈앞에 보이는듯했다. 그와 함께 선생님이 지니고있는 용기가 슬그머니 우리 몸에 옮겨오는것 같았다.

《자, 그럼 오늘은 노래를 복습하겠어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그래, **김일성**장군님은 어떤분이시라고 했나요?》

나와 봉삼이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리고 겨금 내기로 대답하였다.

《예, 우리 나라를 찾아주신 빨찌산영웅이십니다.》

《우리 조선사람을 제일 잘살게 하시려는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그러자 안에서 기쁜듯 환희에 찬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예, 잘 말했습니다. 전번에도 말했지만 **김일성**장군님은 우리 조선민족이 낳은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만고의 영웅이십니다. 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 민족이 망국노의 멍에를 벗어던진것처럼 이 전쟁에서도 반드시 이깁니다. 지금 인민군대의 재진격이 시작되었어요. 미제원썹들이 쫓겨가고있어요.》

《야!》

우리는 어둠속에서 낮게 환성을 울리며 선생님의 손을 꼭 잡았다.

이때였다.

오른편 외양간쪽에서 《야, 이놈! 꼼짝말고 서있어!》 하는 돼지먹따듯 하는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나와 봉삼이는 와들쭉 놀라 담벽에 몸을 바싹 붙이였다.

잠시후 망을 보고섰던 할아버지가 다가오더니 감둥이놈이 술에 취해 너부러졌는데 잠꼬대를 하는거라고 알려주었다.

우리는 후-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웨, 악마같은 놈. 잠결에서까지 사람잡이로구나.》

《체까짓놈, 저놈을 콕 그저-》

할아버지가 우리의 등을 두드려주며 《그래, 저놈은 얼마 못 가 뒤흔들거다.》 하더니 선생님에게 한마디 하였다.

《수옥선생, 편락이 갔네. 용하기수가 새벽녘에
올거라고 하더군.》

수옥선생님이 기쁜듯 제격 대답했다.

《할아버지,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그럼 동무들!
우리 조용조용 힘있게 노래를 불러봅시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옥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옥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우리 둘의 애된 목소리에 점차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목소리를 합쳤다. 우렁찬 노래소리는 하
늘에 닿는듯싶더니 온 골안에 메아리쳐갔다.

다음날 노도와 같이 진격해오는 인민군대의 제
진공과 합세하여 군인민유격대가 우리 강안마을을
해방하였다. 수옥선생님이며 나의 어머니, 봉삼이
어머니를 비롯한 마을사람들이 구원되었고 감동이
넘을 비롯한 악질 《치안대》놈들은 인민의 심판을
받고 처단되었다.

용하기수는 반격하는 인민군대오에 입대하여 남
진의 길에 올랐다. 우리는 다시 학업에 열중했다.

전쟁이 끝난 후 수옥선생님은 승리하고 돌아온
용하기수와 결혼했다. 용하기수는 강안농장 관리
위원장을 거쳐 군경영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많
은 공로를 세웠다.

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 수옥선생님은 강안인
민학교(당시) 교장이 되었고 그후 읍으로 이사를

가서도 한생 교단에 서있었다.

나는 세월이 흐르고흐른 지금도 그밤의 수업을
잊지 못한다.

생사를 알수 없는 정황속에서도 끔찍않고 여유있
게, 도담하게 우리에게 교사로서의 모범을 보여주
고 생의 지침으로, 삶의 희망으로 될 영생불멸의 혁
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던 수옥선
생님의 모습은 나의 뇌리에 깊이깊이 새겨졌다.

오늘 내가 세계수학계에 조국의 명예를 걸고 당
당히 진출할수 있는것도 인생의 첫 교사로서의 수
옥선생님이 내 밑거름이 되어 끊임없는 자양분을
뿜어주었기때문이라는것을 잊지 않고있다.

배움의 첫시절부터 공부에 취미를 붙이도록 애
써준 선생님, 나라를 받드는 큰기둥이 되라고 내
일생의 좌우명으로 된 값높은 리상을 심장에 심
어준 선생님의 사랑으로 이렇듯 크게 성공한것이
아닌가.

쌍지팽이를 짚고도 교단에 나섰던 선생님, 비록
짧은 시일이었지만 어찌 그 엄숙한 나날의 선
생님모습을 잊을수 있을까.

지금도 들려오는 선생님의 목소리, 교원은 배움
의 첫걸음을 떼는 어린 학생들에게 지성의 거
목을 키워주는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그런 밑거름이 있어 봉삼이도 군사대학을 나오
고 조선인민군장령으로 복무하고있다. 교수, 박사
가 된 을천형도 농업과학원에서 편속 연구성과를
올리고있다.

...서재창가에서 물러난 나는 수옥선생님을 찾아
전화기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상 식

노래와 건강

노래를 부르는것과 체력간에는 밀접한 관
계가 있다. 아름다운 소리는 타고난 능력이지
만 성량은 체력에 의하여 좌우된다. 성량이 풍
부한 가수는 체력이 좋기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청춘의 기백이 넘치고 장수한다.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무의식중에 폐의 기
능이 활발해지고 몸안에 산소를 많이 흡수
하게 된다. 산소가 혈액속에 많이 들어가게 되
면 몸전체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해준다. 따
라서 노화를 방지하고 성인병을 예방할수 있

게 된다.

뇌는 대량의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노래를
부를 때 산소가 대량 섭취되므로 치매증방지에
도 큰 효과를 나타낸다. 새로운 노래를 많이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뇌에 대한 좋은
자극으로 된다.

노래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과도한 정신적
긴장을 푸는데도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노래
를 부르는것을 생활화하면 풍부한 정서를 지니
는것은 물론 건강에도 매우 좋다.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 있다

조 광 원

하늘은 패칭하고
해빛은 눈부시다
작은 가슴마다 터질듯 한 긍지를 안고
붉은넥타이 자랑스레 날리며
우리의 아이들이 6.6절경축대회를 나선다

어른들도
어깨성 쌓으며 손을 흔들고
달리던 차들도 멈추어서고
하늘땅이 밝게 열려
눈부신 오늘

보아라
태양의 축복을 받은 우리 아이들
지금도 그 가슴들에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울리고있거니

6.6절 이날이
우리 당과 인민의 소중한 명절이라시던 그 말씀
소년단원들은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라시던 그 음성엔
마음의 키가 하늘만큼 자란 앞날의 주인들

아이들아
마음껏 내달으며 덩굴어라
하늘과 땅 온 세상이 너희들의것
이제 너희들이 달려가는 앞길에
부모들의 구슬땀은 보석처럼 깔리고
조국은 자기의 사랑을 아낌없이 다 부어주리니

넓은 길을 열어주자
우리의 소년단대표들에게
그 작은 어깨들에
매일의 강대한 조국이 실려간다

아, 우리의 6.6절
하늘은 패칭하고
해빛은 눈부시다
태양의 축복받은 소중한 오늘이 있어
우리의 하늘은 더 밝아졌어라
우리의 앞날은 더 밝고 창창하여라

처녀선생님들

김 춘 호

처녀시절 꽃시절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정과
그리도 잘 어울려선가
내가 자란 모교엔
처녀선생님들도 많았지

꿈도 많던 그 나이를
산촌마을학교에서 보낸 선생님들
아담한 합숙에서 자고 깨며
학교에로 출근할 땐
마을길이 꽃향기로 덮이는듯 하였지

이름처럼 얼굴도 고왔던 선생님들
국어 수학 물리...

가르치는 과목은 서로 달랐어도
배워주는 마음은 하나같이 살뜰했지

우리를 가르치며
분필이 다 닳도록 쓰고 지우고 또 쓰던
하이얀 그 손들이 지금도 보이누나
이제는 알겠노라 머리를 끄덕이면
기쁨이 찰랑이던 정찬 그 눈빛들이
지금도 나를 향해 웃누나

장난에 똥은 웃도 빨아주며
엉뚱한 질문에도 차근차근 대답하며
처녀시절 고운 마음을
제자들의 성장에 애써 고인 선생님들

우리와 함께 화단을 가꾸며
 해님만을 따르는 꽃이 되라고
 불러주던 그 노래 지금도 정답구나
 교과서표지도 깨끗이 다시 씌워주며
 책을 사랑해야 큰사람이 된다고
 일깨우던 그 음성 지금도 들리누나

정녕 잊혀지지 않구나
 처녀시절 때를 놓칠라
 학부형들이 걱정하면
 나는 아이들과 함께 한생을 살래요 하며
 수줍게 미소지으며 우리를 꼭 껴안던
 그 손길의 살뜰함 그 품의 정다움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 마음을 따르며
 우리 또한 얼마나 아름다워졌던가
 어른들의 말 잘 듣고
 착하고 좋은 일만 찾아하는 학생들로
 공부도 잘하고
 희망도 꿈도 아름다운 제자들로...

그래서 모교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그 모습들
 우리의 선군시대
 꽃이 되어 별이 되어 빛내가라고
 아름답게 바친 그들의 처녀시절이
 수많은 제자들을 아름답게 키워냈구나

아, 지금은
 할머니라 불리울 나이런만
 이 제자의 마음속에서
 좀처럼 늙지 않구나 그 모습들은
 아름다움을 바쳐
 아름다움을 키워낸 그 모습들은

진정
 처녀시절은 한때여도
 조국의 미래 위해 바친
 선생님들의 처녀시절은
 아름답게 꽃피는 후대들의 모습에 비껴
 그냥 남아있구나

해 칠 보의 절 경

문 기 창

바위만 쳐다보며 올라
 칠보단장 황홀경에 마음 한껏 취했는데
 굽이굽이 돌고돌아 해칠보에 내리니
 바다밑에서도 단풍이 타는듯
 이 아니 절경인가 절승경개인가

동해창파에
 깨끗이 몸을 씻고
 방금 솟아오른듯
 싱싱하고 신선한 너 해칠보

온갖 새들의 지저귂소리
 물속에서도 들려올듯
 아아한 산정 천하절경 칠보가
 동해창파 물결우에 춤을 추는듯

승선대에 오르고
 다시 조각대에 오를 때엔
 사나이의 억센 기상갈더니
 해칠보

에서 보니 너인의 아름다운 모습인듯

벽계수에 비낀 해빛은
 선녀의 날개옷에 반짝이던 구슬이런가
 봉이마다 타는 단풍은
 머리우에 날리던 붉은 땀기런가

바다바람소리인지
 숲의 설레임소리인지
 선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인듯
 이 가슴을 다 녹이는
 아, 해칠보의 절경이여

산은 하나의 산이지만
 아니구나 억세임과 부드러움
 기묘함과 신비로움
 조화로움과 황홀함의 그 절경은
 너를 찾아주고 빛내주신
 절세위인들의 사랑이 있어 네가 더욱 빛나누나

봄의 속삭임 속에 깃든 시대의 웨침

—시집 《봄의 속삭임》을 두고—

최 남 순

우리 시문단을 더욱 풍부히 하며 시집 《봄의 속삭임》(김일규)이 나왔다.

시집을 통하여 시인의 남다른 얼굴을 다시 여겨 보게 되는것은 자못 기쁜 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뚜렷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수 없는 독특한 정서세계가 펼쳐져야 한다.》

시인의 독특한 정서세계속에서 울리는 봄의 속삭임은 어떤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인듯 시집에는 머리말처럼 《봄의 속삭임》(1)이, 맺는말처럼 《봄의 속삭임》(2)가 실려있다.

첫번째 《봄의 속삭임》은 《시샘하는 눈썹이를 헤집고/장하게도 바위처럼아래 얼굴 내민 봄썩》의 노래이다.

《봄에 취한 길손들 지리밧는 오솔길에도/끝 끝내 움터오른 민들레》가 처음으로 꽃잎술을 열고 속삭인 말. 그렇다, 그것은 분명 《해님, 고마워요.》일것이다.

그 민들레는 시인자신이였다.

어찌하여 시인은 하많은 봄꽃중에 민들레가 되였는가?

너무도 수수한 민들레...

그러나 보잘것없는 봄썩이기에 자기에게까지도 봄빛을 아낌없이 뿌려준 해님의 은혜를 그 어느 꽃보다 더 깊이, 더 사무치게 느끼는것이 아니겠는가.

때문에 《향도의 태양이 따스한 해빛으로/ 그토록 애무하며 키워준 젊음》을 《눈비 뿌리는 립산》, 《석수 쏠아지는 막장》, 《풍랑 사나운 날바다》, 《언땅을 깔고 날을 새는 전호》 그 어디든 아낌없이 바쳐 필 자리를 찾으리라는 시인의 열렬한 토로에서조차 민들레의 절절한 속삭임이 울리는듯싶다.

《어디서든 해님만 따라 곱게 피자》는...

그렇다. 시집에서 속삭이는 봄의 노래는 분명 고마운 해님에 대한 노래이다.

《봄의 속삭임》에 깃든 인생의 좌우명

누군가가 시는 독자들과 녀을 주고받는다라고 했다.

시인으로 살아 자기 한생을 통하여 얻은 고귀한 녀을 시로써 독자대중의 심장에 새겨준다면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하다면 시집에서 노래한 봄의 속삭임, 그 속삭임을 거쳐 울리는 인생의 좌우명은 무엇인가.

시 《당이어 그대의 믿음은》에서 시인은 자 기자신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고있다.

내 무시로 마음속에 묻는다

나의 삶이

이리도 뿔뿔하고 궁지로웁이

그 어디서 시작된것인가를

시에서는 당의 믿음에 대하여 《그렇더라 그것은/날바다우에도 빗장을 지를수 있는/ 그 담력의 샘/ 순간에도 세기를 당겨오는/기적의 원천》이라고 노래하였다.

이 시에서 노래한 당의 믿음은 청춘의 궁지였고 랑만이였다.

그것은 정녕 전호가에서 밤을 새워도, 날바다를 한가슴으로 막아도 다 헤아려주고 내세워주는 삶의 힘이였고 기둥이였다.

시집에서 당의 믿음에 대한 노래는 계속된다.

시 《11월 1일》에서는 《참으로 평범한 우리 기자들을 불러/ 동지라고 불러주시며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회답서한》을 받아안고 환희에 넘친 시인의 모습이 보인다.

세계의 많은 기자들이 어지러운 자유화의 바람에 도덕과 리성도 다 버리고 《문드러진 붓대를 밥술처럼 붙들고》있을 때 우리의 기자들은 《정의와 진리를 뿔뿔이 웨치며》 붓대를 총대처럼, 화불처럼 추켜들었다.

때문에 시인은 그 크나큰 궁지를 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자들을 동지라고 불러주신 믿음속에서 《신념도 의리도 더 높이 새롭게 태여》났음을 소리높이 웨치고있다.

또한 시 《나의 이 두손에...》에서는 자기에게 당의 사상적무기인 문학예술작품의 편집사업을 맡겨준 아버지장군님의 믿음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

우에서 본 당의 믿음에 대한 시들에 하나같이 흐르고있는것은 고마움과 긍지의 감정이다.

시집 두번째 편의 마지막시인 시초 《심장의 고백》에서 당의 믿음에 대한 노래가 절정을 이룬다.

시집의 두번째 편 《심장의 고백》의 서시에서는 그것을 암시하며 이렇게 썼다.

내 심장은 속삭이네
가슴깊이 심장이 있듯이
심장깊이 믿음이 있다고
나를 낳은 어머니도 줄수 없는
심장속의 심장이
우리 당의 믿음이라고!

심장속의 심장—당의 믿음!
시초에서는 이에 대한 깊은 해명을 주고있다.

이 손에 다시 쥐여주신것은
하나의 작은 펜이건만
지구의 무게가 통채로 실린듯
쿵—
심장이 먼저 무거워졌다

한걸음 잘못 디딘 자욱으로 하여
기슭으로 밀려난 거품처럼
멀리 뒤떨어졌던 나의 인생이
보무당당한 대오의 한자리에서 울릴 발걸음소리
심장이여 네가 먼저 울리는가

고마움에 눈물은 얼굴을 적시킨만
심장은 붉은 피
다시 끓는 붉은 피로
온몸을 새 생의 환희로 적시나니

(시 《새삶의 고고성》중에서)

이 시 역시 당의 믿음에 대한 노래이나 앞의 시들과는 달리 긍지보다 뼈아픈 자책이, 환희라도 단순한 환희가 아니라 삶을 다시 찾은 사무치는 환희가 고평친다.

때문에 시에서는 《믿음이 있어 내가 있고/ 믿음을 지켜 심장이 편다고》, 《깊은 밤 꿈속에서도》, 《노을피는 아침길을 걸을 때도》 끊임없이 속삭인다고 고백한다.

그 속삭임속에 믿음에 대한 철학은 깊어진다.

한시절의 자서전을 땀으로 새겼다고
저절로 지켜지는것도 아니여라 당의 믿음은
그 어떤 명예처럼 간직하는것도 아닌
너는 생명보다 귀중한것이기에
성스러운 대오속에 내 들어설 때
새삶의 고고성을 터친
심장이여 네가 먼저 울지 않았더냐

쉽게는 말하지 말라
심장을 바쳐 보답한다고
가볍게는 새기지 말라
심장으로 지킨다고
믿음을 저버린 인생은
피가 없는 심장
천길나락의 막돌과 같기에
내 목숨과 바꿀것이 있다면
당의 믿음 하나뿐이여라

(시 《심장의 고백》중에서)

시집에서는 첫 부분에서 삶의 땀뿔함이고 긍지라고 노래하였던 당의 믿음에 대하여 드디어 온 삶이고 목숨이라고 목매여 웨쳤다.

그렇다, 당의 믿음은 가슴에 번쩍이는 훈장도, 주석단의 한자리도 아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이름난 사람에게도 누구나 필요한 맑은 공기이고 해빛이고 생명이다.

이 나라의 시인치고 누구인들 당의 믿음이 없으면 못산다고 절절히 노래하지 않았으랴.

허나 천백이 노래한 진리라도 매 시인의 사무치는 체험을 거쳐 보다 깊이있게, 진실하게 노래된다면 그 진리는 언제나 뜨거운것으로 된다.

《심장속의 심장은 당의 믿음》이라고 노래한 여기에, 믿음의 철학—인생의 좌우명을 심장으로 속삭인 바로 여기에 시집이 거둔 중요한 성과가 있다.

다음으로 시집을 통하여 독자들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을수 있는것은 위훈에 대한 철학이다.

시집에서는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편들인 《병사의 행군길은 끝나지 않았다》와 《나의 땀은 식지 않았다》, 《달리자 젊음이여》에 속한 시들에서 위훈에 대한 철학을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다.

시 《내 삶의 영원한 시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

군복입은 그 시절
 총멘 어깨너머 비껴오던 그 푸른 하늘
 초소의 밤 그러안던 그 참호뒤에
 이 몸 바쳐 지켜야 할 조국이 있어
 눈비속에서도 식지 않던 이 가슴
 머리에 서리 내려앉은들 식으랴

...

이미 흘러간 그 시절은
 흘러간 먼먼 생의 나날에
 조국에 바치는 창조의 끝없는 열정으로
 당에 대한 의리의 영원한 시절속에
 투쟁속에 위훈으로 나를 떠미는
 내 삶의 영원한 시절이여라

시집에서 주장코저 한 위훈은 끝없는 위훈이다.
 또한 만족을 모르는 위훈이다.

여기에는 당에 대한 변함없는 의리를 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끝없는 요구성을 제기하며 삶을 불태우는 열정이 있고 참다운 녀이 있다.

시 《총대와 함께》, 시초 《조국과 병사》, 시초 《청춘의 메아리》, 시 《동지여 우리 함께》, 시 《한모습만...》, 《갈망》, 《청춘이여, 앞으로》 등에서 시인은 독자들에게 끝없이 위훈을 떨치며 삶을 빛내일것을 호소한다.

바로 이러한 삶의 좌우명들로 하여 시집 《봄의 속삭임》은 더욱 무거워진다고 생각된다.

《봄의 속삭임》 속에 깃든 시대의 웨침

결론부터 앞세운다면 시집 《봄의 속삭임》의 시인은 사색형의 시인이다.

량만이나 열정이 아니라 사색이 먼저 앞서고 생활적인 화폭을 채색하며 펼쳐나가는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자신의 심리세계를 진지하게 파고드는것이 시집 《봄의 속삭임》에서 보여준 시인의 특징이다.

시집 《봄의 속삭임》에 실린 시들에는 대체로 구체적인 생활계기보다는 생활의 깊은 체험을 거쳐 드디어 불꽃을 지핀 사색의 계기들이 더 두드러진다.

때문에 시인은 속삭임의 시인이라고 할만큼 물과 별, 나무와 불빛, 추억과 미래 등과 속삭인다.

뜨락을 감도는 소백수의 물소리가
 나를 부르는 그 뉘의 음성같아

날썰녘에 서둘러 오르는 이 가슴속에
 심장은 류다르게 뛴뛰누나

(시 《우리에겐 백두의 고향집이 있다》 첫련)

낮이나
 밤이나
 내 가는 행군길 그 어데서나
 마음속에 조용히 속삭여주는
 내 물통의 출렁임소리

(시 《병사의 물통》 첫련)

부는 바람을 애월에 쥐고서
 제법 독오른 애송이강녕이모도
 세잎 네잎을 흔들며
 하고싶은 말이 있는가보다

(시 《결사전》의 첫련)

옷자락을 부여잡는 한줄기 바람결과도, 마음의 금선을 튕겨주는 지나간 아름다운 모든것과도 속삭일줄 아는 능력은 깊은 사색만이 주는것이다.

작품에서는 그 속삭임도 그대로 읊기지 않고 거기에 깃든 의미를 또다시 파고들면서 서정을 전개해나간다.

다시말하여 시인은 시적대상과 끝없이 속삭이면서 처음에는 그 속삭임이 주는 감각적인 느낌을, 다음에는 두번, 세번에 걸쳐 그 속삭임에 깃든 의미를 밝히는 방법으로 시를 써내려갔다.

때로는 그 속삭임마저도 다 함축해버리고 그 속삭임끝에, 깊은 사색끝에 결론지어진 보다 발전적인것으로부터 불쑥 시를 시작하기도 한다.

《거인의 거대한 주먹들이/날마다 새날의 태양을 받들어올》린다고 노래한 시 《당창건기념탑》이라든가 《밤하늘에 별이 솟으면/그 별을 따오고싶던 어릴적 꿈이》 현실로 된것만 같아 날과 날을 가슴울렁이며 맞는다고 노래한 시 《내가 사는 시대》를 비롯하여 시 《10월의 아침에》, 《인류의 밝은 웃음》, 《총대와 함께》, 《군모의 별》과 같은 작품들에서는 사실 첫련에서 할수 있는 이야기를 다 했다고 할 정도로 사색의 끝머리에서 시를 시작한다.

그다음에야 독자들의 리해를 위하여 감정을 터뜨리며 왜서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는가를 증명하듯 주정을 토로한다.

때문에 많은 시들에는 표상이나 감각적인 시어들보다는 철학적으로 의미있는 시어들이 더 두드러진다.

그러나 작품들은 언제나 추상화되지 않고 섬세하다.

작품들에서 주장하고자 한 깊은 시적의미들을 구체적이고 섬세한 시적세부들로써 안받침해주기 때문이다.

시 《위대한 스승의 한생》에서 수령님께서 사양법까지 일깨워주시는 《햇병아리 모이 쫓는 산골집뜨락》, 시 《당이어 그대의 믿음은》에서 병사가 《방선의 전호속 그 낮과 밤》에 가려드는 《풀잎에 맺히는 이슬소리》, 시 《실농군》에서 《나를 보며 목을 빼》고 《꼭 깨우—》라고 긴 소리를 내는 수탉, 시 《갈망》에서 《머리우에 흰서리 없힐가봐》 향시 주머니에 넣고 사는 쪽거울과 같이 생동하면서도 의미깊고 섬세한 시적세부들이 시의 서정이 가라앉지 않게 날개를 달아준다.

깊은 의미로 일관된 시련들에 섬세한 세부들의 결합.

이로써 속삭임의 성격이 밝혀진다.

《봄의 속삭임》은 웅글은 속삭임이다.

섬세한 세부들은 정겨운 속삭임의 정서적색깔이고 깊은 의미는 그의 넓은 진폭이다. 소리는 낮아도 진폭이 크기때문에 마음을 울린다.

이것은 시인의 순수한 개성이기 전에 시대와 생활이 형성시켜준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라가 어렵던 시절에 우리 목매여 불러찾던 강성의 봄!

시련의 겨울에 아프게 얼었던 땅이 녹아 꽃을 피워올리니 어찌 그 속삭임이 가볍고 랑랑하기만 하랴.

정녕 잊지 못할 고난의 겨울을 거쳐 오늘의 따뜻함과 눈부심을 노래하려니 진폭이 좁고 가느다란 목소리로써는 어렵도 없다.

뿐더러 오늘에 꽃피난 행복이 너무도 눈물겨운 헌신이 안아온것이기에 시인은 그 행복을 소리높이 자랑하기 전에 심장에 껴안고 뜨겁게 속삭인다.

격조높은 웨침보다는 때로 열렬한 속삭임이 심장을 크게 울리는 법이다.

시 《비날론》만 보아도 《오랜 세월 헤어져/에 타게 그리던 혈육을 만난듯》 비날론을 껴안고 목매여 불러보며 시작된다.

시인은 비날론과 가지가지 행복한 추억으로 얹혀진 지난날에로 내달리기도 하며 잊을수 없는 《조국병역의 결사전》을 가슴뜨거이 돌이켜보기도 한다.

시인은 드디어 비날론 《너는》 《아름다운 꽃》,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의 웃음》이라는 형상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더 활짝 피어나라든가 영원히 만발하라

든가 하고 큰소리로 선언하지 않는다.

그 꽃을 안고

그 웃음을 터치며

저기 보이는 강성부흥의 대문을 바라보니

너는 벌써 그안에

만발한 화원을 펼쳤구나

마지막까지 시인의 속삭임은 높지는 않으나 절절하고 뜨겁다.

때문에 독자의 가슴에는 비날론이 더욱 만발하여 눈부실 조국의 래일이 소리치며 들어선다.

속삭임속에 깃들어있는 강렬한 웨침!

이러한 창작기교는 대체로 창작후반기에 쓴 시들에서 보다 원만한 모습을 갖추고 나타난다.

내 마음에 손짓하며 더 좋은 꿈 꾸라누나

래일은 더 큰 행복의 속삭임을 들으리라누나

(시 《어디서 그 어디서》의 마지막련)

그리고

희한한 산중호수의 절승경개앞에

웃음과 기쁨에 취한 마음에도

갈증에 서둘러 입술대는 마음에도

그지없이 깨끗하고 청신한 이 물

이 물을 목이 메여 넘기지 못하리라

...

(시 《물에도 목이 메여...》의 마지막련중에서)

내 문득 어머니라 불렀을 때

그 이름 잃어 서러운 모습

오, 어머니라 다시 부를수 없는

떨어진 꽃잎의 흐느낌앞에서

할말을 잊은 사나이의 이 가슴에

꿈틀 용을 쓰는 불덩어리

철퇴같은 불덩어리여

(시 《내 문득 어머니라 불렀을 때》의 마지막련)

마지막까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깊은 의미를 심어나갔다. 시는 끝났지만 그 울림은 계속된다. 그 울림속에는 시대의 강렬한 웨침이 있다.

시집 《봄의 속삭임》에는 아쉬움도 있다.

일부 시들은 지나치게 의미를 심으려고 노력하

새 집들이 첫 밤에

한 병 화

한생 산촌에 정들어
고향 떠나 못살던 로인내외
새로 지은 창전거리살림집
막내아들집에 나들이온
첫날밤이야기

벌써 날이 밝으려는가
희뼉히 밝아오는 창문
무슨 창문이 저리도 크담
집칸수는 또 얼마나 많소
거기에 전실 부엌 창고 방마다 베란다

꽃밭속에 있는듯 벽지엔 온통
활짝 핀 갖가지 꽃이 만발하고
베란다에 나가보니
하늘엔 별들이 초롱초롱한데
밭밀엔 대동강의 유유한 흐름

무슨 잠이 저리도 많을가
웃방의 애들을 깨울가
아서라 가스로 밥을 지으면 빠르지
손자들은 모두 이불을 차던지고 자나
그렇지 아래웃목 따로 없는 더운 방

참으로 꿈만 같은 일이다

이런 궁궐같은 집이 화력발전소 노동자
내 아들녀석이 사는 집이란 말인가
저네들이 이 고마운 은혜 무엇으로 다 갚으랴
그야말로 제일이지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생각할수록 가슴 뜨거워만 지는구려
백성들은 궁궐같은 집에서 살건만
아버이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한평생 집을 떠나 사셨으니
어이하랴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도
늘 현지도의 길 이어가시거니

대대로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더냐
오직 한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받들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거늘
그이의 덕만 입고 산다면 백성의 도리 아니지
애국이란 말로만 하는것이 아니지

애들을 깨우자 새벽출근 늦지 않게
저기 희뼉히 밝아오는 동평양쪽에
우뚝 솟은 살림집건설장에 나가
이 늙은이도 더운 땀 흘리고싶다
자 다들 일어나거라 새벽일찍 일터로 나가거라
일은 애국이요 애국에서 반복이 온다

던 나머지 상념화되어버린감도 든다.

구체적인 생활계기를 비약해버린 후과라고 생각
한다. 그래서 시집은 《좀더 친근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긴다.

시집의 마지막시 《봄의 속삭임》(2)을 읽는다.
시집을 마지막까지 번지는새에 시인의 인생에는
가을이 왔다.

그러나 시인은 그 가을을 부정한다.

《그 어떤 인생의 열매를 이 땅에 남겼다고》
가을이란 말인가 하고—

시인은 어느때까지나 봄을 원한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래일을 위해

또 다른 열매 크나큰 수확을 이 땅에 보태고저
새로운 향기를 뿌리고저
서둘러 달리는 봄시절에 피가 끓어

시인의 봄은 새라새로운 열매를 갈망한다.
열매를 위해 봄은 불탄다.

결국 또 하나의 《봄의 속삭임》은 선군의 해빛
이 넘치는 강성부흥하는 풍요한 대지우에 끝없이
자기의 열매를 안아올리고픈 갈망의 노래이다.

이 시집 또한 봄의 시인이 조국에 드리는 알찬
열매중에 하나이리라.

시인에게 고마운 해빛을 아낌없이 뿌려준 조국
은 시인이 안아올리는 더더욱 충실한 열매— 더
훌륭한 시들을 기다릴것이다.

꽃은 무엇을 위해 피는가

김 원 영

모두들 우리 집을 가리켜 《꽃집》이라고 부른다. 우리 집 베란다에는 온통 크고작은 화분들이 거의 짝 들어차있다.

진주꽃, 백일홍, 부상화, 홍초, 선인장 등 가지 가지 화초들과 꽃나무들이 앞을 다투어 꽃을 피울 때면 벌과 나비들이 날아든다.

이 모든 꽃들을 가꾸는 일을 나의 안해는 아주 중히 여긴다. 아침마다 물을 주곤 하는데 대개 맹물보다 쌀씻은 물을 주곤 한다. 쌀씻은 물에 자양분이 많기때문이라고 하였다. 비가 오는 날이면 안해는 잊지 않고 화분들을 모두 밖에 내다가 비를 함뱍 맞히곤 하였다.

진정 꽃을 가꾸는 안해의 마음은 극성스러웠다.

결혼생활을 시작한 첫날부터 친정에서 안고온 화분의 꽃을 애지중지 키우는 안해를 보면서 나는 도대체 꽃과 무슨 연고가 있기에 저리도 극성일가 하는 생각조차 들곤 했다.

한가정의 살림살이를 맡은 녀자들은 언제나 일손이 모자라는 법이라고 한다. 사실상 세끼 밥을 지어야 하고 집안팎을 거두고 빨래를 하고...

직장에 나가 일하는 안해한테는 화분을 가꿀 사이가 정말 부족했다. 하지만 안해는 집에 들어와 땀이처럼 돌아가면서도 화분을 가꾸는 일만은 놓치지 않았다.

꽃에 대한 안해의 정성에 감동된 나는 그의 일손을 덜어주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래서 어느해 봄엔가는 농촌지원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화분에 쓸 부식토를 한배낭 파가지고오기도 했다. 봄, 가을에 두번정도 하는 화분의 흙갈이때마다 부식토때문에 걱정하는 안해를 생각해서였다.

결혼생활 전기간 안해는 꽃가꾸기에 열심을 기울여왔는데 특히 진주꽃에 대한 애착은 굉장했다.

결혼 첫해에 나는 안해에게서 그 꽃과 인연을 맺게 된 사연을 들었던적이 있다.

《진주꽃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꽃이에요. 어머니는 내가 태어났을 때 새싹을 화분에 옮겨 또 한 그루의 새로운 진주꽃을 자래우기 시작했고 제 이름도 진주라고 지었답니다. 그리고는 진주꽃을 가꾸듯 스물다섯해란 세월 나를 애지중지 키워주었

어요. 어머니는 그후 저를 시집보내면서 또 이 화분을 안겨주었어요. 나는 거기서 어머니의 말없는 당부를 느꼈어요.》

그때 안해의 말에서 내가 받은 감동은 자못 컸다.

진주꽃은 참으로 푸르싱싱하면서도 붉은색, 연분홍색, 흰색의 아름답고 품위있는 꽃을 피워올리는것으로 하여 그리고 전체적으로 풍겨오는 부드러운 정서로 하여 보는 사람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화초였다.

땅결면에서부터 길죽한 푸른 잎새들이 두갈래로 시원히 뻗어져있고 그사이 중심에 또한 참대바늘같이 가늘고 곧바른 꽃대가 치솟아올랐는데 그끝에 나팔모양의 꽃이 해를 반기듯 활짝 피어나는 아름답고 땀시나는 꽃이었다.

진주꽃을 사랑하는 안해는 결혼후 진주꽃처럼 고운 딸자식을 셋이나 낳았다. 현희, 정희,련희...

안해는 아이들의 생일때마다 그 애들의 이름을 붙여 자래우는 진주꽃화분을 놓고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

축하합니다 생일을

기쁨넘친 생일을

...

그리고 나는 매 아이들의 수첩을 마련해주고 그 애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그들의 인생행로에서 불씨가 되고 꽃씨가 될 뜻깊은 글을 써주곤 하였다. 그 생일수첩에는 꽃나무들처럼 푸르싱싱 자라는 아이들의 나이와 림름한 모습이 나무의 년륜처럼 새겨지었다.

아이들의 생일때마다 꽃화분을 놓고 노래를 부르고 수첩에 뜻깊은 글을 새겨주는것은 자식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하나의 년례적인 행사처럼 되었다. 하지만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생활은 결코 순탄한것이 아니었다.

어느해 겨울이었다. 발전소건설장에 나간 만

딸 현희의 생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었다. 안해와 나는 돌격대에 나가 생일을 맞는 현희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돌격대에 나가 고생도 해 봐야 철이 든다며 안해와 나는 서로를 위안했다.

그후 나는 출장길에서 돌격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생일을 축하하는 부모들의 인사를 현희에게 전해줄것을 부탁했다. 그런데 돌격대장이 하는 말이 어머니병이 위급하다는 전화가 왔다기에 현희를 집에 보냈다는것이 아닌가.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갔다, 어쨌든 현희가 집에 왔으니 생일걱정을 하지 않게 됐노라고 기뻐하면서...

그런데 집에는 안해만이 있었다. 안해의 얼굴빛은 무거워보였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안해는 무겁게 말문을 열었다.

《여보, 우린 그 애를 온실의 꽃으로 잘못 키운 것 같아요.》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그 애가 글썽 이 에미가 앓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생일을 쇠러 왔더군요. ...》

《그게 정말이요?》

나는 놀라마지않았다.

《그래서 가슴아파도 문전에서 돌려세웠어요.》

《...》

나는 아무 말도 않고 안해의 손만 짚아주었다. 그렇게 마음을 모질게 먹노라니 생각인들 얼마나 많았으랴싶은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리고 다짐을 주었다.

《우리 믿어보지요. 그 앤 꼭 온실의 꽃이 아니라 돌격대의 꽃으로 피어날거요.》

며칠후에 현희한테서 편지가 날아왔다.

《어머니, 아버지!

철없는 이 딸을 용서해주세요.

제 생일날에 돌격대에서 생일상을 차려주고 동무들이 축하의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대장동지가 생일수첩에 조국의 딸이 되라는 글을 새겨주었어요.

그날 나는 커다란것을 마음에 새겨안았습니다.

사람이란 자기 하나만을 위한 생이 아니라 집단을 위한 생, 나아가서 조국을 위해 바치는 생을 살아야 한다는걸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믿어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딸은 이겨낼겁니다. 온실의 꽃이 아니라 찬바람도 이겨내는 억센 꽃으로 피어날겁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였다. 우리 집에는 기쁜일이 생겼다. 현희의 이름으로 자래우는 화분의

진주꽃이 활짝 피어났던것이다.

나는 안해를 돌아보며 웃음을 지었다.

《여보, 진주꽃도 우리의 소원을 알아주는구려. ...》

《정말 그런가봐요...》

안해의 얼굴에도 행복의 미소가 피어났다.

그날 나는 이 글을 쓸 생각을 하였다.

딸의 성장을 두고 그토록 기뻐하는 어머니, 너인들에 대한 생각을 나는 한다.

꽃은 자기를 위해 피지 않는다.

꽃은 열매를 위해 핀다.

자식을 위해 사심없는 진정을 기울이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바로 이 꽃의 생리에 비길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느라니 우렷이 떠오르는 존귀하신 영상, 친근한 음성.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깊으신 말씀.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애쓰고있는 온 나라의 전체 학부형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드린다고 하시던 눈물겹도록 다정하신 말씀.

그이께서는 아이들의 뒤에 서있는 어머니들을 보시였고 자식들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주고 뿌리가 되어주는 부모들의 수고를 깊이깊이 헤아려보신것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산골마을의 이름없는 14살 소녀애가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무더기비속에서 구해내고 숨졌을 때에도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며 부모님들께 위로의 말씀 전하여달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다는 사랑과 믿음이 자자구구 흐른다.

14살 소녀애의 부모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뿐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부모들이 가슴뜨겁게 받아안은 생각.

이 땅엔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가 공기되어, 물이 되어 자양분으로 흐른다.

이 나라의 모든 아들딸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처럼 이 땅, 이 조국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불태우며 살기를, 투쟁하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견고 힘차게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싸워나가자.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한마음으로 하는 생각, 결의이다.

아! 꽃은 무엇을 위해 피는가.



라 광 철

최인옥은 나이 팔순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정했다. 그는 일년에 돼지만 해도 7~8마리나 길러내여 주변군부대들에 보내주곤 하여 마을에서는 물론 군에서도 애국적인 할머니로 소문이 났다.

인옥의 집은 읍거리와 잇닿은 남산기슭에 자리잡은 단층집이었다. 청기와를 얹은 집은 무척 아담해보였다. 마당안의 터밭에는 시금치, 파, 쪽갓을 비롯한 봄남새들이 푸르싱싱 자라고있었고 뒤울안에는 백살구와 새 품종의 키낮은사과나무들에서 하얀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나 벌들이 봉봉 날아들고있었다.

인옥은 양지쪽에 주련이 놓여있는 나무함통들의 비닐박막들을 헤치고 온도계를 꺼내보고있었다. 마지막함통의 비닐박막을 제끼니 잘 발효된 돼지먹이가 향긋한 냄새를 물씬 풍겼다. 그는 그 발효먹이를 비닐바게쓰에 퍼담아들고 돼지우리로 다가가 팔고루 나누어주었다. 돼지들은 꿀꿀 소리를 내며 걸탐스럽게 먹어댔다.

인옥은 피둥피둥 살이 오른 불깃불깃한 돼지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이제 한달만 더 기르면 이 돼지들도 팔십키로는 넘어나게 될것이다. 올해에는 어떻게 하나 여느해보다 고기생산량을 높이자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잡도리를 하고있는 그였다. 어제 저녁 텔레비존 보도시간에 나오는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된 어느 한 돼지공장을 찾으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는 영상을 우러르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추운 날, 더운 날을 가리지 않으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그이의 무거

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는 일념을 더욱 다져넣었던 그였다.

《할머니!》

밖에서 그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문에 달린 방울소리가 딸랑! 딸랑! 요란스럽게 울리며 중학교에 다니는 손자녀석이 혈금씨 금거리며 뛰어들어왔다.

《아니 유남아, 왜 그렇게 급히 뛰어다니느냐?》

《할머니, 나 합격했어요.》

《무슨 합격?》

인옥은 키가 늘씬하고 어깨가 짙 벌어져 총각꼴이 다 잡힌 유남을 의아해서 바라보았다.

《할머니, 난 인민군대에 나간단 말이에요.》

유남은 싱글벙글 웃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군대에?! 대학에 가겠더니 어떻게?...》

《아버지처럼 군사복무를 하고 대학공부를 하면 더 좋지요 뭐.》

《그래?!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알고있느냐?》

인옥은 목소리까지 어른스러워진 유남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예, 아버지, 어머니는 적극 지지해주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알면 정말 기뻐하실거라고 했어요.》

그 말에 인옥의 가슴은 후덥게 달아올랐다. 세월의 흐름이란 참, 아들을 키우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이제는 손자가 다 자라 군대에 나가게 되었으니 참 빠르기도 하다.

손자의 끝끝한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는 인옥의 마음속에 인생의 보람과 행복이 가슴뿌듯이 차올랐다. 그리고보니 군대로 떠나게 된 손자에게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대해 꼭 이야기해주고싶었다. 누구나 철이 들면 자기 가정의 근본을 알고있어야 하는것이다.

한동안 생각에 잠겼던 그는 아들이 군사복무때 부상을 당하여 찾아가던 일부터 두서없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1

그날은 인옥에게 있어서 청춘벽력같은 날이었다. 최전원에서 군사복무를 하고있던 아들 리충국이 중상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인옥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정신없이 허둥거리며 한밤중에 급행열차에 올랐다. 인옥의 눈앞에는 모진 아픔을 겪고있을 아들의 모습만이 삼삼했다. 그는 자신이 그 고통을 당하는듯만싶어 저도 모르게 엷은 신음소리를 냈다.

《어디 아프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녀인의 목소리에 인옥은 정신을 가다듬고 얼굴을 들었다. 앞자리에 갓난아기를 안고있는 젊은 녀인과 그의 남편인듯 한 청년이 근심스럽게 쳐다보고있었다.

인옥은 시름겨운 눈빛으로 마주보며 무겁게 머리를 저었다.

《그럼 이 과일단물이라도 좀 드세요.》

얼굴이 동그스름한 그 청년이 고뿌에 단물을 따르며 말했다.

인옥은 그 청년의 성의를 마다하고싶지 않아 단물을 받았다.

《고마워요!》

시원한 단물을 마시자 한결 정신이 맑아지는듯 했다.

근심이 비졌던 그 청년의 얼굴에도 미소가 그려졌다.

맥없이 등받이에 몸을 기대는 인옥의 눈앞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얼굴이 느닷없이 떠올랐다. 고통스러운 이런 시각에 남편이 곁에 있어만 준대도 한결 마음의 의지가 되련만!... 더불어 남편을 처음 만나던 때가 새삼스럽게 추억되었다.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이듬해 봄, 한쌍의 처녀총각이 어둠이 깃드는 강변에 마주서있었다.

건설사업소 설계기사 리문혁이 같은 직장에서 사도공으로 일하는 인옥에게 사랑을 고백했던것이다. 사실 인옥이도 지성적인 그를 사모하고있는데

였다. 하지만 정작 이런 마당에 서고보니 인옥은 대답할수가 없었다.

인옥은 조국해방전쟁시기 부상병들을 후송하는 도중 적들의 함포탄에 심한 부상을 당하여 복부절제수술을 받았었다. 기적적으로 소생한 후 앞으로 아이를 낳기가 힘들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으나 인옥은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인옥은 문혁이가 앞에 서있는 바로 지금에야 비로소 자신은 원썬들에게 사랑할 권리, 어머니가 될 권리, 가정을 가질 권리를 무참히 빼앗겼음을 가슴저리게 느끼고있었다.

인옥은 대답을 기다리며 줄담배를 피우고있는 문혁기사를 외면하고 폭격에 대가 부러진채 서있는 한그루의 버드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봄이 왔건만 잎이 피어나지 못하는 버드나무, 그것은 마치도 인생의 봄을 잃은 인옥의 불행을 말해주고있는것 같았다. 그는 바짝 마른 나무가지 한가치를 꺾어 자기의 입술에 가져갔다. 봄의 향기를 전혀 느낄수 없었다.

인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전 가정에 대해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럴거예요!》

문혁은 여느때없이 랭담해진 인옥의 태도에 그만 아연하여 한동안 돌미륵처럼 서있다가 수치를 느낀듯 뺨 돌아서 어둠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홀로 남은 인옥은 불행한 그 버드나무를 불안고흐느꼈다.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 그 밑뿌리에 스며들었다.

다음날 전선에서 함께 싸우다 제대된 영화가 퇴근길에서 다짜고짜 인옥을 몰아냈다.

《넌 도대체 어찌자는거냐? 그토록 마음에 두고있다가 정작 그렇게 찾아오니 아닌보살이냐?》

인옥은 야속한 눈길로 영화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영화, 너까지 왜 내 마음을 그리도 몰라주니? 사실 문혁동문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나 난 그를 사랑할수 없어!》

인옥의 목소리는 차츰 잦아들며 가볍게 떨렸다. 그러자 영화는 얼떨떨해진채 이상한 눈초리로 인옥을 쳐다보았다.

인옥은 걸음을 멈추고 망연한 눈길로 저녁노을이 사그라들고있는 서쪽하늘을 바라보고있었다. 침묵속에 잠긴 그들의 머리위로 한마리의 흰비둘기가 외로이 날아갔다. 그는 《호-》하고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영화, 넌 내가 부상당했던 일을 잊었니?》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나?》

영화는 답답한듯 또다시 어성을 높였다.

《난 그때 녀성으로서 어머니가 될 운명은… 이미 끝났어?》

인옥은 그 말을 끝맺는것과 함께 온몸의 피가 다 빠져버린듯 창백해진 얼굴에 야릇한 웃음을 지었다.

영화는 깜짝 놀랐다. 그는 모든것을 체념한듯한 인옥의 서늘해진 시선에 온몸이 떨리기까지 했다. 지금껏 너무나 아름답게만 보이던 얼굴, 함께 있어도 사람들의 눈길이 그에게만 쏠릴 때면 은근히 질투심까지 자아내던 그의 모습이였다.

영화는 그를 부등켜안고 왈각 울음이라도 터뜨리고싶었다.

《뭐라구?!…》

영화는 분명치 않은 어조로 중얼거리고는 인옥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무엇이라고 인옥을 위안하고싶었으나 딱히 할말이 없었다.

《인옥아, 그렇다고 사랑까지 외면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것은 너무 외곬으로만 생각하는게 아닐가.》

《글쎄, 그건 아직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나 래일을 생각할 때면 항상 마음속에 그 의식이 모질게도 떠나지 않는구나.》

그들은 말없이 걸었다.

사랑!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지극히 단순해보이던 사랑이 언제부터 이렇게 이해할수도 가늠할수도 없는것으로 되었을가....

인옥은 그후 마음이 외롭고 쓸쓸할 때면 마음의 벗을 찾듯이 그 강기슭 버드나무를 찾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타다남은 그 줄기에서 움터나고있는 새싹을 발견했다. 이것은 정말 기적같은 일이었다. 그 새싹을 들여다보면서 그는 환희를 느꼈다. 해빛과 대지에 감사를 드리고싶었다. 그후부터 인옥은 한잎두잎 돌아나는 그 연한 잎들을 시간가는줄 모르고 바라보곤 했다, 마치 그 속에 자신의 운명이 깃들어있거나 한듯.

그러던 어느날 그는 등뒤에서 나는 인기척소리에 놀라 돌아보았다.

《어마나?!》

바로 그 사람, 문혁기사였다. 문혁은 습관적으로 안경을 바로잡으며 인옥을 열기편 눈으로 보고있었다. 인옥은 금시 온몸이 줄어드는듯 했다.

《난 오늘에야 모든것을 알게 됐소, 영화동무를 통해서...》

《뭐라구요?!》

인옥은 비명비슷한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얼굴이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제발 저를 더 괴롭히지 마세요!》

《동문 지금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고있소. 동무가 비판하고 나약해지면 원썬들이나 좋아할거요. 나는 사랑도 전쟁을 이긴 조선사람답게 원썬놈들이 보란듯이 하고싶소!... 나도 미제원썬들에게 부모형제를 다 잃은 사람이요!》

소심하고 어질게만 보이던 문혁의 심장에서 타오르는 막을길 없는 사랑의 불길의 뜨거운 웨침으로 막 터져나왔다. 인옥은 그만 문혁의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얼굴을 묻고말았다.

2

그렇게 그들은 결합되었다. 두려운 믿음과 이해, 사랑과 신뢰로 가득찬 나날들이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서며 흥분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내가 아이를 데려왔소!》

순간 인옥은 가슴위로 불덩어리가 굴러내리는것 같은 느낌에 전신이 확 달아올랐다. 그는 숨을 딱 죽이고 눈까지 꼭 감았다. 심장이 쿵! 쿵! 흥벽을 때렸다.

《당신과 미처 의논을 못했는데... 당신은 어떻소?》

인옥은 먼곳에서 들려오는것 같은 남편의 목소리에 한순간 무아몽중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는 곧 끝없는 감동과 열광적인 환희에 북받쳐 눈을 떴다.

《고마워요!》

속삭이는듯 한 목소리가 그의 가슴속으로부터 뜨거운 숨결과 함께 흘러나왔다.

인옥은 남편이 안겨주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포단을 들추고 아이를 보았다. 솔곳이 잠든 아기의 얼굴에서는 아직 그 어떤 특징도 찾아볼수 없었다. 그 얼굴에 또렷또렷 찌혀있는 눈, 코, 입만이 인옥이와 얹혀질 래일에 대한 미지의 문자마냥 하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아기의 작은 입술이 약간 오물거렸다. 순간 인옥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이쁨할수 없는 정이 북받쳐 아기의 두볼에 자기의 얼굴을 살그머니 가져다대었다. 것처럼 바라면서도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바랄수 없다고 단념했던 사랑의 열매, 행복의 씨앗인것이다.

《여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언젠가 건설장에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가 떨군 불발탄을 해체하다가 희생됐소. 이 애 어머니가 우리 건설사업소에

함께 있었는데 그도 역시 전쟁참가자였소. 전쟁때 부상당한 몸이 산후에 악화되어 그만 오늘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소. 우리 그 부모들과 한전우라는 심정으로 이 애를 죄스럽지 않게 잘 키워봅시다.》

《알겠어요. 전... 정말...》

인옥의 가슴속으로부터 뜨거운것이 치밀어오르며 목을 메우고 목소리를 끊어버렸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했다. 어디선가 밤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인옥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밤깊도록 잠 못들고 희망의 닭알난가리를 쌓았다하물었다하였다.

(이 애는 이제 크면 무엇이 될가? 유명한 발명가? 아니면 이름있는 예술가? 혹시 체육명수도 될수 있어! 또 큰 일군이 될수도 있지!)

그는 벌써 다 자란 아들의 장래까지 무지개속에 그려보며 이 세상 훌륭하고 아름다운 리상을 좁은 가슴에 다 안아보고있었다. 그러다가는 또 가장 소박한 마음을 아이의 앞날에 실어보기도 했다. 그것은 보통 성실하고 평범하면서도 대바른 사람으로 자라 늘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때없이 그저 어머니라 불러주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 충국은 세월과 더불어 쑥쑥 몰라보게 자랐다.

아들이 점점 커가는 모습에 인옥은 생의 보람을 느꼈고 기쁘고 행복했다. 첫걸음마를 떼기 시작하고 《엄마!》 하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 고와 어쩔줄을 몰라했다. 아들의 보동보동한 볼과 온몸에는 언제나 인옥의 입술자리가 꽃잎처럼 피어나있었다. 그러는 그를 보며 남편은 의미있게 말하곤 했다.

《여보, 그러다 당신의 입술에 아이가 다 닳아지겠소. 우린 그 애를 그저 곱게만 키워서는 안되오. 무엇보다 우리의 녀를 지닌 한피줄로 키워야 하오!》

《호호, 참 당신두. 정을 기울이면 어련히 한피줄로 될거예요. 그렇지? 충국아, 지금 아버지가 뭐라시니?》

충국은 마치도 알아듣기나 한듯이 해득해득 웃으며 몽실몽실한 두팔로 인옥의 목을 꼭 그러안았다.

유치원으로 좋아라 뽀박질을 하며 가던 충국이 그만 돌부리에 걸쳐여 넘어진적이 있었다.

인옥은 황급히 달려가 그를 일으켜세웠다.

《엄마, 나 여기 아파!》

충국은 울상이 되어 살갗이 약간 벗겨진 무릎을 가지고 엽살을 부린다.

《오, 그건 일없다. 우리 충국이 이제 크면 인

민군대 되겠는데 그쪼한거야 참아야지. 그렇지?》

《싫어, 막 아파! 나 오늘 유치원 안 갈래!》

충국은 동정을 바라듯 엄마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버티고 서있었다.

인옥은 가슴이 허전해졌다.

(이 애가 왜 이리 나약할가?)

인옥은 문득 아이를 곱게만 키워서는 안된다고 하던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지금껏 눈먼 사랑으로 충국이를 키워오던 자신이 심각히 돌이켜지는 순간이었다. 그때부터 인옥은 충국을 엄하게 키우며 요구성을 높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요구성을 어린 충국은 다르게 받아들이는상싶었다. 원망 어린 눈길로 바라보는가 하면 어리광을 부릴 대신 심술을 부리며 밥을 안 먹겠다고 찌뿌둥한 얼굴에 말도 안하곤 했다.

충국이 소학교에 다닐 때의 일이었다. 퇴근하여 돌아오니 집안이 어수선했다. 방바닥에는 학습장들이 아무렇게나 널려있었고 인옥이 받은 훈장과 메달들이 방구석에 떨어져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거울이 깨진채로 삐뚤서하게 걸려있었다. 무심중 거울을 쳐다보던 그는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 깨진 거울속에서 행복에 곁든 자기의 얼굴이 당황과 불안이 엇섞인 표정으로 마주보고있었다.

인옥은 어쩌서 집안이 이런 판장판인지 가늠이 안 갔다. 충국이는 어디로 갔는지 밤늦도록 들어오지 않았다. 인옥은 속이 새까매서 여기저기 충국이 가있을만 한 곳을 다 찾아가보았으나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혹시 그사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하여 지친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인옥의 귀전에 밤렬차 떠나는 기적소리가 길게 울려왔다. 인옥은 발길을 떠박지르는 예감에 역으로 달려갔다. 기다림 칸에 들어서니 한쪽구석 긴의자에 몸을 오그리고 잠든 아이가 있었다. 충국이였다. 인옥은 너무도 기가 막혀 그앞으로 다가가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인옥은 한참을 그러고 서있다가 그를 흔들여 깨웠다.

《충국아!》

충국은 부시시 눈을 뜨더니 벌떡 일어났다. 그는 목이 다 쉬고 하루저녁사이에 몰라보게 시들어 버린듯 한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두눈을 슴벅거리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충국아, 이게 무슨 일이냐? 집없는 아이처럼, 응?》

인옥은 충국의 손을 잡아끌었다.

이제나저제나 어머니의 추궁이 떨어질가 조심조심 따라걸던 충국은 주뭇주뭇 말했다.

《어머니가 욕할것 같아서...》

인옥은 철렁하는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다.

《그렇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면 어쩌자는거냐. 도대체 무슨 장난을 했기에 그렇게 됐니?》

《귀남이와 싸웠어요.》

《동무들과 싸우면 안된다고 늘 말했는데... 왜 싸웠니?》

《난 잘못된게 없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전장에 참가해서 훈장까지 탔다고 하니깐 그 애가 날 보구 가짜어머니자랑을 한다구 놀려줘서 때렸어요!》

순간 인옥은 가슴에 파편조각이 들어와박힌듯 숨이 껍 막혔다.

《그런데 어머니, 그건 무슨 말이나요, 예?》

맑고 순진하던 그의 눈빛에 무엇인가 의혹의 그늘이 비껴있었다.

인옥은 금시 하늘이 무너져내리는것 같았다. 그의 가슴에 흐르던 더운 피마저 서늘하게 식어들고 온몸이 그대로 돌로 굳어지는듯 했다.

충국은 하얗게 질린 어머니의 얼굴을 겁먹은 눈으로 쳐다보았다. 인옥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충국아, 그런 말은 듣지 말아!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

인옥의 말소리는 떨렸다. 그는 충국의 눈을 마주보다가 갑자기 후들거리는 두팔로 온힘을 모아와락 그러안았다. 허나 충국은 여느때없이 어색해하며 슬그머니 몸을 뺐다.

그러자 그는 왈칵 설음이 북받쳐 피가 지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부터 장난 많던 충국의 유년시절은 여기서 동강난듯 했다. 아이는 눈에 띄게 우울해졌다. 책을 펼쳐놓은 책상앞에서도 꿈을 꾸는 아이처럼 초점없는 눈으로 앉아있기가 일쑤였다. 때로는 인옥의 눈치를 살피며 별치 않은 일도 숨기곤 했다.

인옥의 함치르르하던 검은 머리에 흰오리가 때이르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어느날 저녁 인옥은 영화와 함께 퇴근하고있었다. 충국이와 영화의 아들 창민이는 한학급에서 공부하고있었다.

《참, 오늘 날씨가 좋아 아이들이 정말 잘 놀았겠구나. 난 어제 밤 등산가는 음식을 해주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 무슨 해달라는게 그리 많은지. 인옥아, 우리도 이번 휴식일에 작업반이 다같이 야유회를 한번 가지 않겠어?》

그는 작업반장으로 일하고있는 인옥에게 말했다.

《뭐라구?!》

《왜? 이달계획도 넘쳐했는데 우리도 한번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즐겁게 놀고오면 정말 온몸이 거뜨해질거야.》

인옥은 화로불을 뒤집어쓴듯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오늘 아침 충국이 식물채집을 간다고 하기에 그저 보통점심밥을 싸주었던것이다.

(자식이 어쩌면 어머니에게 그럴수 있단 말인가!)

영화는 금시 낯색이 달라진 인옥을 보며 물었다.

《너 왜 그러니? 갑자기 어디 아프니?》

인옥은 말없이 머리만 가로저었다.

집에 들어서니 충국이 먼저 와있었다. 그는 아무 내색도 없이 혼연했다.

《이제 오세요?》

인옥은 이제는 마치 선생님앞에서처럼 깎듯이 례의까지 지키려드는 충국이를 보자 지금껏 참고 참았던 설분이 치밀었다.

《충국아, 너 정말 이러겠니?》

충국은 인옥의 킁킁하게 죽어든 얼굴을 쳐다보더니 머리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넌 어머니한테 왜 등산간다는 소리를 안했니, 응?》

인옥의 목소리는 점점 젖어들었다.

《어머니가 바빠하시길래...》

충국은 주뿔거리며 말했다.

《뭐? 넌 정말 내 가슴이 터지는것을 보자구 그러니? 왜 자꾸 이러는가 말이야?》

인옥은 너무 속이 타 충국의 어깨를 와락 쥐어 흔들었다. 그리고는 방바닥에 쓰러져 소리를 내며 흐느꼈다.

충국은 것처럼 애절하게 몸부림치는 인옥을 보자 죄스러움을 느꼈다.

《전 사실... 우정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나도 모르게 자꾸...》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떠들거리던 충국은 끝내 자기도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인옥은 그런 충국이를 보자 자신이 너무 엄하게 키우는탓에 이렇게 점점 더 멀어지는것이 아닌가 했다.

(이 애를 충국이 아버지자와 나의 피줄로 키우려는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란 말인가.)

인옥은 갑자기 부상당했던 상처자리가 도지는듯한 아픔에 신음소리를 냈다. 그러자 어디선가 준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몇년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였다.

《여보, 당신은 왜 그리 나약해졌소? 당신이 흘리는 그 눈물은 원썬놈들이 바라는것이요. 그래 당신은 자식을 키우는게 험한 일인줄 알았소? 전

우들의 뜻대로 키우는게 그렇게 고와만 하고 애지중지하는게 아니라고 내 말했지. 눈물을 흘리지 말고 일어서오..》

인옥은 마음속에 깃드는 기둥같은 남편의 말에 눈물을 거두고 충국이를 그러안았다.

충국이라도 용서를 빌듯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3

렬차는 질풍같이 내달렸다.

차창밖으로는 산발들이 휙휙 바람을 일구며 지나가고 어느덧 망망한 동해의 푸른 물결이 흰 이랑을 일구며 서서히 다가들었다가는 밀려가군 하였다.

인옥은 상념에서 깨어나 감았던 눈을 떴다.

앞쪽의 애기어머니는 크고작은 고기배들이 떠있는 바다풍치를 혼자 보기가 아쉬운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를 창가에 가져다대며 무엇이랴 속삭이고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머니의 행복한 웃음이 한껏 어려있었다.

이때 인옥의 옆에 앉은 늙수그레한 로인이 한마디 했다.

《아주머니, 지금이 제일 좋은 때요.》

《예?》

애기어머니가 무슨 말인가 하는듯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이제 점점 크느라면 애녀석들이란 제 밥 먹고 컸다고 제법 뽕통을 쓴다오. 우리 손자녀석만 봐도 원, 제 얼마 말을 어찌도 안 듣는지…》

로인은 가볍게 혀까지 쫓쫓 한다.

그러자 애기어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한마디 대답했다.

《그래도 전 행복하기만 할것 같아요.》

(그래도 행복하다? 그래,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지. 그래서 나도 우리 충국이를 키우던 그 날들을 후회없이 보낸것이지.)

인옥의 머리속에 또다시 추억의 상념이 물이랑을 일구며 다가들었다.

…시커먼 구름장들이 떠돌던 어느 이른봄날이었다. 환절기의 그런 날이면 인옥은 부상당했던 부위가 아파나 병원에 다녀오곤 했다. 그날도 그는 병원에 갔다오고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충국이 어머니니!》

한무리의 학생들이 마주오며 인사를 했다.

《오, 너희들이구나!》

인옥은 반가운 미소를 지어보였다. 충국이와 한 학급아이들이었다. 영화의 아들 창민이가 인옥

을 바라보며 물었다.

《충국인 어디 아프나요?》

《아니, 난 지금 오는길인데 충국이가 어쨌게?》

《아니,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갔다오니?》

인옥은 물통과 삽을 들고있는 그들을 보며 물었다.

《오늘 학교주변에 나무심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꾸벅 인사를 하고 황황히 가버렸다.

인옥은 갑자기 지금껏 자기의 몸을 지탱하던 그 무엇이 금시 땅속으로 잦아버리는것만 같아 움직일 기력조차 없었다. 그는 강인하게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충국은 갓 배우기 시작한 기타를 들고 등당거리고있었다.

《충국아!》

인옥은 나직하나 엄한 목소리로 불렀다.

기타의 음계를 조절하며 얼굴을 돌리던 충국은 인옥의 서늘한 눈빛에 굳어졌다.

《왜 그러세요?》

《충국아, 너 오늘 학교에서 나무심기하는것을 몰랐니?》

그 말에 충국의 굳어졌던 얼굴이 스르르 풀리었다.

《예, 알고있었어요.》

《그런데 너 왜 안 나갔니?》

인옥의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높아졌다.

그러자 충국은 무슨 큰 변이나 난것처럼 그러느냐 하듯이 시뚱이 대꾸했다.

《내가 뭐 놀면서 안 나갔어요? 난 지금껏 어려운 수학문제를 푸느라 애를 썼는데… 에이, 정말!》

그리고는 손에 들고있던 기타를 신경질적으로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밀어놓았다.

《뭐라구? 너 공부만 잘하면 다되는줄 아느냐? 언제부터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니? 이 땅에 나무 한그루 심어가꾸지 않은 인간이 공부를 하면 어느만큼 하며 집단밖에서 나도는 인간이 우리 사회에서 잘되는것도 이 엄만 보지 못했다. 이제라도 네가 오늘 심지 못한 나무를 심어라, 어서 일어나거라!》

인옥이 무섭게 성을 내자 충국은 그를 원망스럽게 바라보기만 했다.

창밖은 벌써 어슬어슬해지고 진눈까비가 희끗희끗 흘날렸다.

《래일 심겠어요!》

충국은 잔뜩 불이 부어 맞가지 않게 대꾸했다. 그러나 인옥은 사정없이 그를 일으켜세웠다.

《아니다. 지금 당장 심어야 해!》

인옥은 단호하게 잘라냈다.

충국은 인옥의 엄엄한 기상에 더 어쩔수 없었다.

밖은 한치 앞도 가려볼수없이 어두워졌다. 차거운 바람이 몰아치며 채찍처럼 얼굴을 때렸다. 충국은 미끄러지는 진창길에 발을 헛디디며 자빠졌다. 그는 선뜻 일어설념을 안하고 작은 어깨를 들먹거렸다.

그 모양을 지켜보는 인옥의 눈에 불씨가 날아드는듯 하여 눈을 꼭 감았다. 그는 한순간 내가 너무 모진것이 아닐가, 정말 친아들이 아니돼서 이렇가 하고 동요했으나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충국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밤 그들은 서로 말없이 무거운 침묵속에서 나무를 심고야 돌아왔다.

충국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어머니쪽에 등을 돌려대고 이리저리 뒤척거리다가 잠들었다.

인옥은 아픈 몸에 찬비를 맞은 후파로 온밤 고열속에 신음하며 한잠도 자지 못했다. 그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앓아누웠다. 그러면서도 충국이 학교에서 공부를 끝마치고 돌아오면 이를 악물고 일어나 함께 바깥쓰를 들고 나무에 물을 주러 가군 했다. 버팀목도 만들어 세워놓고 강변의 조약돌을 가져다 나무밑에 정성껏 깔아놓기도 했다. 그 나날들속에 어느덧 충국이 심은 나무에도 푸른 잎이 돋아나고 가지들이 뻗어오르기 시작했다.

인옥은 충국의 졸업기가 다가오자 그의 장래문제를 놓고 생각이 많았다. 졸업을 앞둔 어느날 그는 충국에게 물었다.

《충국아, 너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하겠니?》

충국은 이미 자기의 지망문제를 생각하고있은듯 인츰 대답했다.

《어머니, 전 대학에 가겠어요!》

《그래?!...》

인옥의 생각은 신중해졌다. 충국은 중학교 전과정의 최우등생이었다. 그러나 인옥은 그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먼저 조국에 대한 병사의 사랑과 원쑤에 대한 증오를 심어주고싶었다.

《충국아, 난 네가 군대에 나갔으면 좋겠구나!》

인옥은 넓어지기 시작한 충국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군대에요?》

《응!》

《어머니, 군대에야 누구나 다 나갈수 있지만 대학에야 어디...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대학

에 가겠어요?》

인옥은 근엄한 표정을 짓고 말했다.

《조국보위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가장 신성한 의무란다. 대학공부는 군사복무를 하고도 할수 있지 않느냐?》

충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다음날로 조선인민군 입대를 탄원하였다.

드디어 충국이가 인민군대로 떠나는 날이 왔다.

그날 역구내는 환송나온 사람들로 붐비었다.

《충국아, 군사복무를 잘해야 한다, 알겠니?... 편지도 자주 하구, 응?》

인옥은 충국의 손을 꼭 잡고 간곡히 당부했다. 열차원이 빨리 열차에 오르라고 재촉해서야 인옥은 충국의 손을 놓았다.

충국은 승강대에 올랐다. 열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열차의 승강대와 창문에 몸을 내민 초모생들이 저마끔 손을 내흔들며 목소리를 높여 웨쳤다.

《안녕히 계십시오!》

《선생님! 영웅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충국이가 상기된 얼굴로 서둘러 인옥을 향해 말했다.

《어머니, 그새 고생만 시켰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충국의 마지막인사말은 술한 사람들의 말소리에 뒤섞여버렸으나 인옥은 그 목소리를 푹푹히 들었다.

(아이참, 무슨 인사말을 저렇게 할가? 여기 어디 어머니에게 그런 인사를 하고 떠나는 아들이 있담? 그새?... 그새라니?!...)

인옥은 무엇인가 다른 말을 듣고싶었다.

《충국아!》

그러나 열차는 사정없이 속도를 높여 멀어져갔다. 순간 그때까지 강인히 참고있던 눈물이 주르르 불편으로 흘러내렸다.

(저 애가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있는가?)

인옥은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자기 인생에서 새 생활이 시작되던 그 잊지 못할 강기슭의 나무 밑에로 이르렀다.

전쟁때 폭격에 대가 부러졌던 그 나무가 이제는 거목으로 자라나 설레이고있었다.

인옥은 그 나무에 등을 기대었다. 그러자 스르르 마음에 안정이 깃드는것 같은 느낌이 들며 더불어 아들에 대한 믿음이 새로이 자리를 잡고앉았다.

(충국이도 이제 이 나무처럼 푸른 거목으로 자라 하늘을 떠받들 날이 꼭 올거야.)

인옥의 생각에 대답이나 하듯 나무가지들이 와슬렁와슬렁 설레임소리를 내었다.

4

기차를 갈아탄 인옥은 드디어 한밤중에야 아들의 부대에 도착했다. 부대정치일군이 각근히 인사를 하며 맞아주었다.

《어머니, 먼길을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황황히 허리를 마주 굽히는 인옥의 마음속에 (혹시?) 하는 불안한 생각이 매삼을 쳤다.

정치일군은 안절부절 못하고있는 인옥의 심중을 알아차린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중국동무는 이번 에 우리측 지역으로 기여들던 적무장악당들을 소멸하는 전투에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최고사령부에서는 적들의 무분별한 도발을 분쇄하고 조국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기여한 중국동무를 꼭 살려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인옥은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아들이 받아안은 이 사랑의 이야기가 심혼속에 한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꿈같은것은 아닐가. 그러나 그는 자기를 바라보는 정치일군의 눈빛에서 이 모든것이 사실임을 확실히 믿었다.

《우리 중국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국이가?》

그는 한시바삐 아들을 보고싶었다. 그의 두볼을 어루만지고 그의 손을 잡아보고싶었다.

인옥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들이 누워있는 입원실로 갔다. 아들은 잠들어있었다. 꼭 다문 입, 애된 얼굴이 아니었다.

《중국아!》

인옥은 조용히 아들을 불러보았다. 그러나 중국은 기척없이 누워있을뿐이었다.

덮고있는 모포깃을 여며주고 베개를 바로잡아주던 인옥은 베개 한귀퉁이에 삐죽름히 엮보이는 편지봉투를 발견하였다. 꺼내보니 곁봉에 집주소와 최인옥어머님앞이라는 중국의 글씨가 써여있었다. 아마 편지를 써놓고 전투에 참가하는통에 부치지 못한 모양이었다.

인옥은 서둘러 곁봉을 뜯었다.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순간 인옥은 여태껏 들어보지 못했던 부름에 가슴이 뭉클해오고 눈곱이 뜨끈해졌다. 내심 얼마나 바라고 기다려온 부름이었던가. 다시 눈길을 편지

종이로 펴구니 중국의 눈길인듯 글자들이 막 달려온다.

《그렇게 떠나오고 편지 한장 제때에 보내드리지 못한 이 아들을 욕 많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에는 말하고싶군요.

어머니, 전 인민군대에 입대했을 때 부모님은 나를 안아 고운 정, 미운 정 다 기울여 키워준 어머니의 의견을 좇는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떠나왔지만 사실 어머니에 대한 고까운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그 어릴적부터 전 어머니가 무척 어려웠고 그래서 강한 요구성을 내뿜 때에도 오감이 더 컸습니다. 혹시 제 친아들이 아니어서 저렇게 막 굴리는게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인옥의 눈에서 종내 눈물이 주르르 굴러떨어졌다.

(원, 자식두. 어찌편...)

《제가 신병훈련을 마치고 중대에 배치받은지 두달이 지난 어느날이었습니다.

정치지도원동지가 찾는다는 말에 저는 교양실을 나왔습니다. 정치지도원동지는 병실앞의 휴식터에 있었는데 무슨 일로인지 인상이 밝지 않았습니다.

〈중국동무, 동문 왜 집에 편지 한번 쓰지 안소?〉

삼 식

인체를 구성하고있는 원소들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있는 10종의 주요원소들은 수소(62%), 산소(26%), 탄소(10%), 질소(1.5%), 칼시움과 린(0.2%), 류황, 나트륨, 칼시움(0.05%), 염소(0.04%)이다.

만일 70kg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게는 43.4kg의 수소, 18.2kg의 산소, 7kg의 탄소, 1.05kg의 질소, 200g의 칼시움과 린, 50g의 류황, 나트륨, 칼리움, 40g의 염소가 있는셈이다.

이 원자들이 결합된 분자성분은 67%의 물, 20%의 단백질, 10%의 리포이드와 3%의 탄화수소화합물이다.

흥미있는것은 인체를 구성하고있는 10종의 주요원소가 해양을 이루고있는 10종의 주요원소와 같은데 다만 함유률이 다르다는 것이다.

첫마디부터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전 머리를 수그리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동무들의 말에 의하면 중국동문 여태 편지 한 장 쓰는걸 보지 못하겠대. 무슨 일이 있소?〉

전 머리를 번쩍 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지도원동지! 전 위훈을 세우기 전엔 집에 편지를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닌데... 중국이 눈은 다른 말을 하고있는데...〉

〈아닙니다. 전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전 더욱 크게 웨치듯 말했습니다.

허— 하고 웃으며 정치지도원동지는 저의 어깨를 눌러 의자에 앉히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국이, 동무 아버지는 전쟁때 부상자리때문에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신다더군. 어머니의 마음엔 그 아들 하나만이 가득차있겠는데 편지 쓰오. 정 쓸게 없다면 오늘 동태국을 먹었습니다 하 고라도 쓰란 말이요.〉

어머니가 매일 퇴근하실 때면 우편통을 들여다 볼 생각을 해보오. 그 어머니들을 위해서 우리가 군사복무를 하는것이 아닐가.〉

전 그날 잠자리에 누워 어머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편지는 쓰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터는 다른 생각, 정말로 위훈을 세운 다음에, 자랑거리가 있을 때에 편지를 쓰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왜서인지 어머니가 다 이해하고 기다려줄거라는 믿음이 새롭게 깃들더라 말입니다.〉

인옥은 편지에서 눈길을 떼고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고집스러워보이는 꼭 다문 입술가장자리며 약간 거뭇해진 턱에 어른스러움과 사내다운 아량이 깃들어보이는것이 정말로 펍 숙성해보였다.

《어머니, 그런 나날들이 흐르는 속에, 훈련의 날과 달이 해를 이루는 속에 제가 느낀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졸음에 눈뜨지 못하는 저를 새벽마다 일으켜세워 달리기를 시키고 철봉대에 세워주신것이, 해가 지더라도 나무를 다 심고야 집에 들여놓던 그 엄격한 요구성이 제자신을 남보다 앞자리에 설수 있게 해주었다는 생각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채찍질하여 자립성을 키워주시지 않았더라면 전 응석둥이로 자랐을것이고 인민군대에 나온 지금 훈련에서도 꼴찌를 기록하고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떨어져보니 어머니의 그 엄격한 요구가 저에겐

사랑이었습니다.

달리는 살아선 안될, 친부모들의 뜻대로 당당히 자라길 바라신 어머니에게는 제가 당당히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좋은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나온 것이 왜 이렇게 후회되는지...

절 용서하십시오,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인옥은 참고참던 눈물을 종내 편지종이우에 떨구고말았다.

《흐흐—》 흐느낌소리가 가늘게 흘러나왔다.

《중국아!》

인옥은 아들의 얼굴을 어루쓸었다. 그 찰나 중국이가 정신이 드는지 슬며시 눈을 떴다. 그는 자기를 내려다보는 눈빛과 마주치자 현실을 의심하는듯 눈을 꼭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 그의 눈시울이 부르르 떨렸다. 그는 자신이 부상당한 몸이라는것도 잊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다가 그만 신음소리를 냈다.

인옥은 황급히 그를 붙안아 다시 눕혔다.

《어머니!》

침상에 누워 다정히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에 인옥의 가슴은 뭉클해졌다.

《언제 오셨어요? 난 꿈인가 했어요!》

《방금 왔다. 몹시 아프지?》

인옥은 중국의 온몸을 떨리는 손으로 더듬으며 물었다.

중국은 인옥의 자그마한 손이 몸에 닿자 입술을 실룩거렸다. 한동안 말이 없던 그는 인옥의 주름진 얼굴과 희어진 머리를 물기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어머니한테 모든것이 죄스럽기만 해요!》

《그만해라, 중국아. 내 편지를 다 봤다.》

인옥은 중국의 절절한 말을 막았다.

그러자 중국은 《어머니!》 하고 뜨겁게 속삭이며 인옥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난 이 세상에서 어머니가 제일이라고 자랑하고싶어요! 어머니!》

인옥은 그만에 애써 참아오던 눈물을 끝내 쏟고야말았다. 그는 얼른 얼굴을 돌리었다. 그러자 벽에 걸려있는 거울속에 행복에 눈물짓는 자신의 모습이 비껴왔다. 순간 그의 뇌리에는 젊었던 그 시절 중국이를 키우며 더없이 행복했던 그 나날들이 영화화면처럼 흘러갔다.

《난 너와 같은 아들이 있는것이 더없이 행복하구나!》

카 바 이 드 로 앞 에 서

조 광 철

또 하루 기쁜 마음으로
카바이드로앞에 내 섰노라

또 한차지
푸짐히 끓여낸 카바이드돌물이
이글거리며 불꽃을 튀기며
사품쳐 쏟아져내리는 모습은
얼마나 장쾌한가

웅웅 소리를 내며
카바이드로가 힘껏 용을 쓰고
은빛배판들을 따라
기운차게 증기가 흐르는 소리에
전로공의 가슴은 더욱 설렌다

다만 돌물을 끓이는 일이 아니여라
인민을 위함이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시던
위대한 장군님 그 유혼 높이 받들어
돌에서 비날론을 뽑아낸
그 마음들이 익혀낸것이
다름아닌 카바이드돌물이기에

그것은 그대로
필필이 흘러갈 비날론의 흐름
무수히 반짝이는 불꽃은

그대로 비단필에 수놓아갈
아름다운 꽃무늬 아니랴

그것은 상점들에 아동백화점에
차고넘칠 비날론옷감이며 비닐제품
농약이며 물감 식초며 가정소다
숫구치는 샘처럼 마르지 않을
녀인들과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거니

장쾌하여라 이 기쁨 이 환희
들끓는 생활과 로동속에서
얼마나 새롭고 눈부신 모든것이
놀랍도록 태어나고태어날것인가

행복하여라 쏟아내고쏟아내도 성차지 않을
끝없이 분출하는 열정을 안고
경애하는 우리의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고 또 안겨주고계시는
그 믿음 안고사는
나는 비날론공업의 전초병

또 한차지
잘 익은 카바이드돌물이다
조국이며 비날론은 넘려마시라
인민생활향상의 돌과구를 나는 이렇게 열어제
깎는다

갑격에 복받친 인옥의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어머니!》

충국은 첫걸음마를 떼던 어릴적처럼 어머니의
두손을 꼭 잡고 자기의 가슴우로 가져갔다. 충국
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치고있었다. 인옥이가 느낀
것은 분명 아들의 심장속에서 뛴뛰는 자신의 박동
이었다.

×

인옥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얼굴에서는 그때의
그 감동이 사라지지 않고있었다.

나서자란 자기 가정의 사연을 듣고있는 유남
의 눈썹에도 뜨거운것이 고여있었다. 그는 할머니
를 더욱더 바라보며 걱정애 넘쳐 말했다.

《할머니! 나도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리고 아버지과 어머니가 대를 이어오며 바라는것
이 무엇인지 잘 알겠어요. 그 뜻을 이어가는것이
선군시대의 참된 병사로 되는 길이라는걸 말이에
요.》

《그래! 그래야 하구말구!》

인옥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들의 머리우에는 가없이 넓고 푸른 하늘이 펼쳐
져있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 외 1편

리 성 애

결전의 시각은 다가오고있었다
포도 한문 포탄도 떨어져가고
대원들도 몇명뿐
최고사령부와 월미도는 천리밖

이제 얼마후면
월미도는 불에 잠기고
모든것이 불에 타 없어지리라
했어도 모든것을 잊은듯
중대장과 무전수처녀 이야기 나누었다

행복하였던 전쟁전이야기
밤깊도록 책을 읽다가
밤중이라는것도 잊고
동무네 집으로 달려가 읽어주던 이야기

일마침 저녁이면 달려가던 공원
사과꽃 하얗게 핀 고향의 과원
소바리 가득 옥백미 싣고
평양으로 가던 아버지의 기쁨넘친 모습

마치도 결전은 있어도
죽음이란 없는듯

그들은 어제와 오늘 래일의 꿈세계를
아름다운 노을처럼 펼치고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기쁨에 넘치고
무한한 생의 희열이 불타올랐다
포병들도 그들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었다
중대장에게 무전수처녀는 물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지금 우리들이
결사전을 준비하는것 알고계실가요?
—이 시각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월미도의 우리들을 지켜보고계실거요!

최고사령관 그이의 마음속엔
우리의 병사들이 있었고
우리 병사들의 마음속에
오직 그이만이 계시었나니

아,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먼먼 후날 후세에도 끝없이 끝없이
그 이야기 그 정신은 전해지고 물려지리라

백 두 의 락 엽

아득한 백두밀림
그 어디 가나
주단처럼 깔린
락엽...

그 락엽 수북이 깔렸어도
차마 밟기가 송구스럽구나
밀림속 혼한 락엽도
차마 밟지 못하겠구나

이 밀림속에서 묵어간
항일의 선렬들
이불삼아 덮고 밤새웠을
락엽 락엽...

그 락엽속에 어려와라
한잎두잎 굽어모아
어린 대원에게 덮어주던
투사들의 그 모습 잎잎에 어려와라

락엽을 덮고 쪽잠자며
가슴에 총안고 잠들던 투사들
꿈결에도 그리던 그 념원 꽃핀 강산에
내 부럼없이 뛰놀며 자라왔나니

아, 내 무릎끓고
백두의 락엽 소중히 안아보니
눈시울 덮히는 그 온기
한생토록 이 몸을 덮혀줄듯

천하명승 묘향산

함영근

묘향산의 붉은 단풍

내 화가라면
이 절경 화폭에 담으련만
시첩을 펼치고 붓을 드니
시첩에 내려앉는 붉은 단풍잎

머리들어 바라보니
묘향산은 활활 불타는 산
어이하랴 하늘도 불타니
묘향천도 흐르는 불물

산천이라 어찌 무심하랴
단풍든 가을날에 수령님 오시여
《묘향산 가을날에》
한수 남기신 천하명시

천하명시에 명산이라
그리움을 더욱 불붙여주는
묘향산의 붉은 단풍은
내 시정의 영원한 붉은 넋

아! 한글자만 더

장군님 열어주신
만폭동 등산길
첫걸음 내짚으니
아! 장막의 흰 안개바다

두걸음 내짚으니
장막안개는 어디 갔나
손에 잡힐듯 다가서는
아! 은선폭포 비선폭포

걸어놓은 그림이나
쏘어보자 손 내미니
폭포는 아득한 곳에서
아! 내 시행마다 감탄부호 찍나니

시를 부치려 묘향산에 왔건만
산천에 반하여 아! 아!
묘향산아 네가 내게 시를 주었구나
아! 이 한글자의 명시를

명산의 명곡

물소리도 그저 물소리더냐
새소리도 그저 새소리더냐
바람소리도 물소리도
명산의 명곡으로 울리어

차마 발걸음 못 옮기겠네
조심스러운 발걸음조차
우아한 묘향산의 명곡에
불협화음 될가봐

이 산 저 산벼랑에
억만금이 번쩍거려도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인민위해 아껴주신 명산

인민위해 명산이 있고
명산은 인민의 산이라고 하신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뜻이 어려
명산의 모든 소리 명곡으로 울리네

묘향천에 부치여

어느 바위틈에서 솟았느냐
어느 골에서 구울며 왔느냐
하도 맑아 열길물속 돌들도
옥돌인듯 수정돌인듯

억수로 쏟아지는 가을비에
묘향천이 흐려질가 걱정했더니
물이 물을 씻어내려
더 맑아진 묘향천아

수정같은 물이라더니
수정보다 더 맑은 묘향천
너의 맑음앞에 마주서니
나의 뉘마저 보이는듯

아, 보여다오 묘향천아
나의 심장 나의 량심 나의 뉘
나라앞에 너처럼 깨끗이 살
나의 앞날까지 비쳐다오

사랑우에 또 사랑

바위우에 또 바위 바위...
산우에 또 산 산...
바위와 산 그끝은 어디냐
내 머리들어 바라보니

아, 산우에 솟은 산이
끝나는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바위도 산도
하늘아래에 있구나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이 등산길을 열어주시려
걸고걸으신 그 걸음
하늘끝에 닿은 명산

보이는것은 절승 수령님사랑
보이는것은 절경 장군님사랑
그 절경 그 절승
사랑의 하늘아래 있구나

—묘향산에서—

조선문학 주체101(2012)년 제9호 (루계 제779호)

편집위원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종	합	인	쇄
인	쇄		주	체	101(2012)	년	9월	1일
발	행		주	체	101(2012)	년	9월	5일

ㄱ-26388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2
D P R Korea
ISSN 1727-9437